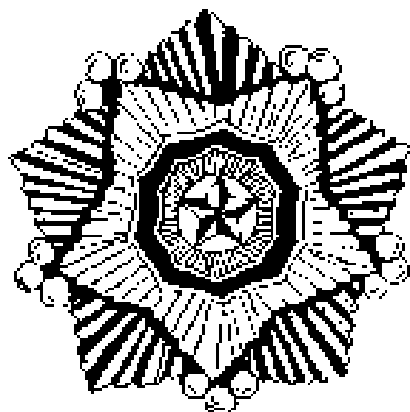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6

주체 88 (1999)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88(1999)년 제6호

(루계 제 620 호)

◆◆◆◆◆◆◆◆◆◆

차 례

◆◆◆◆◆◆◆◆◆◆

6월의 찬가.....	4
전 환.....	5
우리에게 위대한 당이 있어라.....	16
위대한 스승의 손길로	17
김정일동지 만세	18
장군님께 드리는 헌시	19
장군님만 우러러	19
내 조국의 미래를 키워주는 사랑의 품.....	20
나의 노래 나의 추억은	22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	23
은방울꽃다발	26
대흥단 감자음식 천하에 별미라네.....	27
보천보에서 (외1편).....	28
당원이 서있는곳이면 (외2편).....	29

명산풍경의 참신한 시적탐구를 두고.....	31
명언해설.....	33
장군님과 산천.....	34
행복에 대한 시.....	36
덕천풍경.....	37
산중의 작은 역을 지나며.....	39
해 살.....	40
시간에 대한 각이한 견해.....	46
보금자리.....	47
과학자, 기술자들의 성격형상창조를 두고.....	49
발사준비 끝!.....	52
륜 리.....	53
고향의 향기.....	64
꽃은 피값이 아니다.....	65
조선로동당창건 55돐기념 전국문학축전 조직요강.....	66
창조리(2회).....	67
《6. 25》는 곁에 있다.....	72
《귀나당》.....	73
병사에게는 집이 있다.....	74
잠들지 마시라 (외1편).....	75
토마스 모어의 지조.....	76
새벽에.....	77
거지가 베푼 은혜 (결인시혜).....	78
군사분계선표말뚝과 하고싶은 말 (외1편).....	79
어린이의 썸세기를 들으며.....	80

6월의 찬가

문동식

가없이 푸른 저 하늘에서
새들은 고마움에 은방울 굴린다
신록이 넘치는 신성한 전야에선
오곡이 감사에 목매여 설레인다
창창한 바다에서 달려오는 파도들은
머리숙여 축복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당 총비서 **김정일** 동지
우리 당의 창창한 미래를 안으시고
당중앙에 들어서신 그날
소박한 차림, 겸허하신 모습으로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해빛으로 빛나신 후더운 6월

항일전의 피어린 불바다를 헤치시며
어버이수령님 억센 뿌리를 마련하신 우리 당
천인미답의 주체의 궤도로 달려가는
조선혁명의 기관차 방향타를 잡으신
그날의 그이의 뜨거운 숨결소리
6월의 하늘땅에 넘쳐흐르나니

이 강산에 굽이치는 강물도 노래한다
산천의 푸른 숲도 이야기한다
하나의 뇌수, 하나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우리 당을 강철로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위업을
만고에 길이 빛날 최대의 업적을

백두산천지의 맑은 정기로
정일봉에 흐르는 청신한 바람으로
몰아치는 광풍을 쳐몰아내시며
불어오는 황색바람 다 막아주시며
지새우신 밤은 그 열마였으랴
헤쳐오신 길은 몇만리였으랴

6월의 유정한 바람도 말한다
화단의 꽃들도 정답게 속삭인다
남모르는 빈민속에 모태기던 가슴에도
뜨거운 열을 주신 그이의 믿음을
그 누구의 마음속 작은 그늘마저
자애넘친 손길로 가져주신 그 사랑을

수령님 뿌리신 주체의 씨앗을
무성하는 숲으로 가꾸시며
쫓잡마져 잊으시고 하루 또 하루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광활한 길우에
일심의 대오를 묶어세우시며
사나운 광풍속에 한해 또 한해

어버이수령님의 력사로 빛나는
백두의 상상봉 그 높이에
우리 당을 숭엄하게 이끌어올리시며
장군님 기울으신 믿음과 사랑 속에
조국은 혼연일체 대가정으로
강성대국에로 구보로 달리나니

통이 큰 우리 장군님의 그 품이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품이 되어
이 땅우에 첩첩히 일떠세운 기념비들
원썬들은 《사회주의종말》을 떠벌여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충효로 불타는 천만의 심장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떨치거니

천년이 가고 만대가 흘러가도
장군님과 당의 믿음과 사랑 앞에
결사옹위 총폭탄대오가 되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노도쳐나아가는 인민의 무적의 힘
그 어떤 원썬이 꺾을수 있다더냐

오, 이 땅우에 뜨는 해도 달도
6월의 저 푸른 창공에서
다함없는 빛을 뿜어 감사를 드린다
꽃도 숲도 무성하는 오곡도
6월의 대지에 억년 뿌리내리고
머리숙여 축복의 인사를 드린다

인간사랑의 인덕정치로
어버이수령님의 당,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온 세상에 빛내시는 회세의 천출위인
우리 당 총비서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 영광을 드린다

전 환

1

류수 같은 세월이라더니 어느새 한해가 살같이 흘러갔다.

이제 며칠 안있으면 주체86(1997)년의 새해 아침이 밝아올것이다.

어제부터 내리던 안개비는 멎을듯말듯하더니 비발을 세우며 구질구질 내리고있다.

때아닌 때에 내리는 비로 하여 돌처럼 얼어붙어야 할 땅은 질벽질벽하다.

이해의 마지막무렵까지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시고 잠전에 돌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집무탁앞에 앉으시여 새해에 당보, 군보, 청년보에 실릴 공동사설 원고를 보고계시였다.

일전에 해당 일군에게 당의 의도를 잘 반영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신테였지만 빈구석이 없지 않았다.

벌써 새해째 수령님의 신년사를 대신하여 내보내는 공동사설이어서 마음을 더 쓰게 되는 것이 이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벽찬 가슴에 받아안고 새해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신심과 락관에 넘쳐 보람찬 새해 진군길을 다그치는데 습관된 우리 인민이였다.

새해는 수령님의 서거 세뼉이 되는 해이다. 그런것만큼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쳐야 한다.

그이께서 틀어쥐신 필이 닿는곳마다 박력있고 가슴이 들뛰게 하는 새로운 문구들이 샘솟듯 생겨났다.

...올해의 총진군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온 사회를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사상에 있고 오늘의 강행군에서 승리자가 되느냐 락오자가 되느냐 하는것은 붉은기사상으로 어떻게 무장하는가에 달려있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벅차오르시였다.

《붉은기!》

조용히 뇌인 말씀이었으나 장엄한 력사의 거대한 흐름을 선포하시는듯 방안을 드르릉 울리었다.

노래에도 있듯이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기는 력사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래일이 새겨져있는 그이의 한생의 좌우명이였다.

누가 력사를 오도할수 있으며 돌려세울수 있단 말인가. 투쟁의 력사는 엄정하고 신성한것이다. 력사는 창조의 력사이다. 낡은것의 끊임없는 소

박일명

멸과 새것의 끊임없는 탄생, 이것이 바로 력사의 흐름일진대 누가 감히 력사의 흐름을 거역할수 있단 말인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전횡과 독단이 극도에 이르고 력사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한 책동이 제아무리 집요해도 력사는 자기의 궤도를 따라 흘러갈것이다. 그 어떤 힘으로도 정의의 력사는 멈추어세울수 없다.

다시 눈길을 원고에 주신 그이께서는 소리가 날듯 툭툭 뛰는 심장의 박동을 적어나가시였다.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것이 우리 붉은기에 새겨진 철리이다...

활달한 달필로 적어가시던 그이의 손이 잠시 멈추어졌다. 빨간 연필로 의문부호를 쳐놓은 부분이 눈에 마쳐왔던것이다.

(어떻게 하면 오늘의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나갈수 있겠는가...)

심원한 사색을 몰아나가시던 그이께서는 나들문쪽으로 시선을 보내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수령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들어서시는것만 같으시였다.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쳐드시였다.

《수령님!》

그이께서는 조용히 수령님을 부르시며 서계시였다. 이맘때면 언제나와 같이 수령님과 함께 한해를 총화하고 새해에 해야 할 사업들을 밤이 깊도록 토론하던 그이이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혁명의 모든 중하가 한몸에 걸메워져있었다. 그것도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는 가장 첨예하고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결심도 혼자 하시고 난국도 혼자 타개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집무실을 거니시였다. 시야에 대형지구의가 안겨들었다. 이전 쏘련의 광활한 령도가 파편조각처럼 갈라진 새로운 지구의였다. 눈에 설어보이시였다. 눈에 안겨드는 모든것이 낯설어보이시였다. 그제서야 그이께서는 집무실을 너무도 오래동안 떠나있다가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새해 정초부터 잠전까지 온 한해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종횡무진하신 그이이시였다. 가시는 로상이 그대로 집무실이 되여 차안에서 일을 보였고 현지에 도착하면 즉시 일군들에게 지시를 주시였다.

흘러간 한해가 이 순간에 심혼의 판도에 실리며 늑실늑실 다가드시였다.

준엄한 한해였다.

계속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경제적봉쇄, 세계적판도에서 분렬과 전쟁, 기아와 빈궁, 인류를

헛쓰는 력사의 류레없는 폭압의 검은 구름이 지구를 덮은 한해였다.

존엄하고 시련에 찌든 한해였던만큼 격동적이고 성스러운 한해이기도 하였다.

나라의 북단으로부터 판문점, 동해의 이름없는 바다가초소로부터 서해 최전방 섬초소, 구월산, 칠보산의 명승지들로부터 방방곡곡에 자욱을 남기던 한해가 한순간에 짝 돌이켜지시였다.

《총폭탄!》, 《결사옹위!》

우렁찬 함성소리, 폭풍과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산마다, 골짜기마다 메아리쳤다.

두손을 높이 쳐들고 만세를 부르며 눈물과 격정에 넘쳐 따라서던 전사들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리시였다.

그이께서도 전사들과 헤어지기 아쉬우시여 몇 번이고 차를 세우고 오래도록 손을 흔들기도 하시였었다. 석별의 정이 어떤것인지 처음으로 체험해보는듯한 이길수 없는 애틀함이 온몸을 휘감으시여 눈곱이 젖어오르기도 하시였다.

한동안 정회숙에 심신을 달래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기척소리에 사색의 심연속에서 깨어나 문가로 눈길을 드시였다.

언제 들어왔는지 허우대가 큰 김경우가 두손을 앞으로 모아잡고 서있었다.

며칠전에 동해안지구와 평남, 평북 일대의 농사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할데 대한 과업을 주어 떠나보냈던 일군이였다.

《언제 도착했소?》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색하시며 그에게로 다가가시였다.

《좀전에 도착했습니다.》

무엇때문인지 소심한 어조로 대답하는 그를 띄워보시던 그이께서는 좀전과는 달리 진중한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풀이 죽었소? 갔던 일이 실통치 않은 모양이구만.》

일군들을 각지에 파견하고 맞이할 때마다 기쁜 일만이 있기를 바란것은 아니였으나 이번 일만은 좋은 일만 있기를 은근히 기다리기도 하신 그이 이시였다. 그만큼 농사문제가 중요하고 현시기 긴급하게 풀지 않으면 안될 초미의 문제였다.

경우는 망설이기만 하였다.

일군들의 허위보고를 제일 질책하시며 사소한 문제까지도 죄다 보고할것을 요구하시는 그이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였지만 여러날동안 동해안지구와 평남, 평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보고들은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기에는 전반적인 농사준비형편이 낙관적이 못되었던것이다.

《왜 망설이기만 합니까. 어서 사실대로 보고하십시오. 사실대로...》

그이께서 재삼 재촉하시여셔야 경우는 입을 열었다.

《사실 새해농사준비상태가 그닥 잘되지 못하였습니다.... 제일 걸린것이 비료입니다. 국가에서

비료를 원만히 대주지 못하는 조건에서 자급비료 생산을 많이 할데 대해 이미 강조도 하였지만 현재 자급비료생산실적을 놓고보면 계획을 심히 미달하였습니다. 특히 별방지대가 문제입니다. 일부 일군들은 국가에서 비료를 대주지 않으면 새해농사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사실 비료원천이 없다보니...》

《그렇단 말이지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고는 오래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였다.

어떻게하나 새해부터는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추켜세우려고 결심을 가다듬으시던 그이의 마음은 무거워지시였다.

경우는 침중해지신 그이의 모습을 대하자니 가슴이 옥죄어들었다.

《수령님께서는 오래전에 벌써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한평생 농장벌에 나가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년간에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큰물과 가뭄피해까지 입다보니 지금 우리 인민들은 먹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타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먹으면서도 어려움을 꾀없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줄가보아말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는것이 소원이라고 늘 말씀하시던 수령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들이 장군님의 사업을 잘 받들지 못했습니다.》

경우는 머리를 푹 떨구었다.

그이의 가슴속에 고래치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뜨겁게 감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먹는 문제를 풀겠는가고 많이 모태김도 해보았지만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또 한해를 보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죄스러움만이 커갈뿐이였다.

《경우동무를 나무라는 말이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의 이 어려움을 뚫고 일어서야 하오. 특히 우리 일군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오. 난 새해를 어떻게하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해로 되게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국면을 말ियो. 경우동무의 생각은 어떻소?》

경우는 그이의 뜻밖의 물음에 아무 말씀도 울리지 못하고 얼굴만 빨갛게 달아올라 눈길을 떨구었다.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려는 그이의 결심이 드림이 없으심을 느끼면서도 이렇다 하게 말씀을 올릴수 없었다. 지금 서방나라들의 통신을 봐도 그렇고 현재 쳐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형편을 놓고봐도 새해에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더 어려워지리라는 생각을 품고있던 그였다.

《저, 지금 서방통신들은...》

경우는 말끝을 흐렸다. 심중의 고백을 하자니

그이께 오히려 심려를 끼쳐드릴수 있다는 생각이 든것이였다.

《서방통신들이 어떻다는겁니까. 올해보다 새해는 생활이 더 어려워질것이다 그 소리요? 최악의 생활난에 봉착할것이다 그 소리겠소.》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우의 심증을 꿰뚫어보시고 근엄한 음성으로 까밝혀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경우의 앞을 지나 몇발자국 옮겨질고 눈길을 허공에 든채 움직이지 않으시였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가운데 그이께서 다시 경우의 앞으로 천천히 돌아서시였다.

《생활이 더 어려워질것이란 말이지요. 더 어렵다… 그럴수도 있소. 하지만 난 달리 생각하오. 더 어려워지는것이 아니라 봄날의 눈석이처럼 점차 풀리리라고말이요. 이것은 온 한해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데서 오는 믿음이요. 물론 지금 나라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할수 있는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봅니다. 지금 경제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전후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수령님께서 이룩해놓으신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있습니다. 더우기 몇해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단련되고 각성된 우리 인민이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우리를 고립압살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썩구멍은 막을수 있을지 모르나 땅속깊이 용용히 흐르는 샘줄기는 막지 못하는 법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어디… 바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침묵하시였다.

일군들에게 달려있다고 범상하게 한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새삼스럽게 가슴에 마쳐온것이였다.

샘줄기는 터쳐놓으면 솟구치는 법이다. 샘줄기를 터쳐놓을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일군들이 아닌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필줄 아는 일군, 혁명성이 투철하고 내밀성이 강한 일군, 문제는 바로 일군들에게 있다.

혁명의 매 시기마다 일군들의 역할문제에 대하여 수차 언급도 하고 일군들의 혁명화문제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였지만 지금 이 시각 그것은 새로운 양상을 띠고 가슴에 안겨드시였다.

《비료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비료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것처럼 생각하고있는데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해방후 언제 우리가 비료타발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지금 세계적추세를 놓고보아도 비료를 적게 쓰면서 농사를 짓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고 합니다.》

그이의 말씀에 경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일군의 한사람으로서 어려운 난관을 뚫고나갈 타개책을 찾을 대신 동조하고있지 않았는가.

《장군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 비료타발을 하는 일군들의 그릇된 생각들을 바로잡아주고 자급비료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경우동무의 마음은 알만합니다. 동무 혼자서야 어떻게 일군들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자 그 문제 후에 토의하기로 하고 우리 머리로 쉬울겸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부드럽게 이르시고는 먼저 밖으로 향하시였다.

경우는 복받쳐오르는 격정에 싸여 그이를 따라 밖으로 나섰다.

2

승용차는 수도의 거리를 벗어나 시외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이의 곁에 앉은 경우는 송구스러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이께서 운전대를 잡고계시였다.

대기는 안개가 서린듯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창을 내리고 한손을 밖으로 내미시였다. 차거운 느낌보다도 녹녹한 감이 들었다.

《허, 이슬비가 내리는군.》

그이께서는 혼자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빛나던 안광에는 서늘한 빛이 어리시였다.

12월의 계절치고는 겨울인지 가을인지 분명치 못하다. 그것은 생명체들에 생존조건의 파괴를 가져다주는 좋지 않은것이였다. 모든것은 구획이 있고 명백해야 하듯이 계절도 자기의 계절적특성이 명백해야 한다. 이런 날씨는 사람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발병의 근원으로도 될수 있다. 왜 눈은 오지 않는가?…

그이께서는 지금 인민의 건강을 생각하고계시였다. 이런 날씨에 인민들이 병까지 들면 어찌라 싶으시였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보니 인민들이 생활이 넉넉치 못하여 고통을 겪고있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이이시였다. 그래서 더더욱 이밤 잠을 이룰수가 없어 밖으로 나오신 그이이시였다.

전조등불빛에 《원화리》라고 쓴 표식판이 언뜻 보이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차를 멈추시였다.

무연한 논벌이 어둠에 잠겨있었다.

《수령님께서 수차 다녀가신곳입니다. …우리 나라 그 어디에 가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가 깃들어있지 않은곳이 없습니다. … 그런데 올해에도 농사를 수령님의 념원대로 잘 짓지 못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경우는 가슴이 몽클 젖어올랐다.

현지도의 길에서 접하시는 마을 하나를 보아도 그 마을에 이어져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발자취를 생각하시고 이름없는 산굽이길을 지나시여도 그 길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로고를 잊지 못하시며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생각하시는 그이이시였다.

승용차는 다시 조용히 미끄러져갔다.

석암방향으로 꺾어든 차는 나지막한 산언덕을 넘어 굽이굽이 가슴뜨거운 사연을 남기며 어느덧 평성시내로 들어섰다.

도시는 어둑속에 잠겨 괴괴하였다.

드문드문 살림집 창문들에서 등잔불빛이 컴컴하게 새어나올뿐이였다.

요즘 발전소들이 자기 능력을 다 내지 못하고 있다. 왕가물로 인하여 수력발전소들은 물을 잡지 못하였다. 화력발전소들에서도 석탄이 걸려 전기생산량이 적다보니 중요공장들에나 보내주고 주민용조명은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있었다.

《탄광일꾼들이 일을 쓰게 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못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안광에 엄한 빛이 번뜩이시였다.

경우는 가슴 한구석이 서리를 맞은듯 시들해지는 자신을 느끼였다.

지금 그이께서는 일꾼들을 추궁하고계신다.

일꾼들이 일을 쓰게 하지 못하여 오늘의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고 심뇌하고계신다. 좁전에 하시던 그이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든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어디... 바로 일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그이의 사색은 지금 다른곳으로 치달고 계시였다. 지금 그이께서는 어떻게하나 인민들의 생활을 풀어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금 굳히고 계시였다.

아직 그이의 가슴속 깊이에서 소용돌이치는 사색의 샘은 누구도 모른다.

오늘의 어려움을 뚫고 솟아날 힘을 어디서 찾으시고 어떤 구상을 펼쳐나가시려는지...

지금은 어렵다. 그러나 오늘을 옛말하며 잘살게 될 날은 멀지 않아 올것이다...

《가만, 저 앞에 웬 사람이요?》

그이께서 차의 속도를 죽이시였다.

불빛에 검은 형체가 언뜻 보여서야 정신을 가다듬은 경우는 시창에 눈길을 모았다.

웬 할머니가 배낭을 메고 힘에 겨운지 오리발 걸음을 하고있었다.

경우는 마음이 착차분해졌다.

《장보고 가는 사람같습니다.》

여러곳을 다니면서 많이 보아온 까닭에 문득 튀어나온 말이였다.

《아니 그런것 같지 않소. 장보고 가는 사람이라면 이밤에 혼자일수 없소. 몸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걸 봐서 먼길을 왔거나 허기진것이 분명하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저러오르시였다.

인민이 겪는 아픔을 할머니에게서 보시게 된것 이였다.

할머니는 난데 없이 불빛이 비쳐오자 길옆으로 비켜서며 손을 이마우로 올려붙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를 천천히 모시여 할머니 곁에 세우시였다.

《할머니, 이밤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한동안 어리둥절해있던 할머니는 친근한 음성 에 마음이 녹아내려서인지 조금 허리를 굽혀보이더니 어쭙게 입을 열었다.

《예, 딸네 집에 갑니다.》

《그래요. 어디까지진 제가 태워다드리지요.》

《원, 이렇게 고마울데라우야. 하지만 일없수다. 이젠 거의다 왔는걸요.》

그이의 한량없는 뜨거움에 진정을 느꼈던지 할머니는 살이 빠져 초췌해보이는 얼굴에 환희에 가까운 웃음을 지으며 만류했다.

경우는 그이를 알아뵈지 못하고 덜통스럽게 대하는 할머니가 몹시 민망스러웠다.

지금 자기가 어느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는지도 모르는...

아니 이밤이, 어둠이 야속스러웠다.

그이를 알아뵈는 순간이면 아마도 할머니는 너무도 뜻밖이고 감격스러워 땅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드릴것이였다.

너무도 겸허하시고 틀을 차릴줄 모르시는 그이 이시였다. 하기에 할머니의 눈에 그이가 운전사로밖에 보이지 않을것이였다.

경우는 뜨거움이 복받쳐올라 눈가에 물기가 맺혀돌았다.

할머니는 경우를 보자 머리를 가볍게 숙이며 인사를 했다.

경우는 안절부절 못했다.

《허허, 왜 그러오. 나야 운전사가 아니요.》

그이께서는 어느새 경우의 마음을 엿보시고 현 현하게 웃으시며 가만 있으라고 오히려 그편이 할머니에게 더 편할것이라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경우는 할머니의 배낭을 거들어주어 뒤좌석에 태웠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떠났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였다.

《예, 실은 령대에서부터 떠난 걸음인데...》

《그럼 령대에서부터 줄곧 걸었던 말입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근 이 백여리를 늙은 몸으로 그것도 배낭을 메고 걸어왔다니 놀라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실은 아들녀석과 줌...》

《아들과요?》

그이께서 경우에게 눈길을 주시었다.

경우는 심중이 가다듬어졌다. 필경 머느리와 마음이 맞지 않아 아들에 집에서 뛰쳐나온 할머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머느리와 의가 좋지 않은 모양이지요?》

그이께서 다시 물으시었다.

《아니지요. 그런게 아니라... 이거 집안 망신이래도 이왕지사 내 좀 화풀이를 할가보우다.》

할머니의 뜻밖의 말에 그이의 안팎에는 놀라움과 의혹의 빛이 어리었다. 할머니는 말하기가 쑥스러운지 한동안 고개를 주억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옛날부터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것도 자식이구 그 아픔을 제일먼저 덜어주는것도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 자식이 무슨 자식이겠소. 내 말이 틀리우?》

《아닙니다. 할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의가 상했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할머니의 말을 긍정해주시며 나직이 물으시었다.

《글쎄 생각하는 잡도리가 틀려먹었수다. 당에서는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일하라고 하는데 갱초급당비서라는 사람이 석탄을 켈 생각은 안하구 주저앉아만 있수다. 그래 내 욕을 했지요. 모르긴 하겠다만 〈고난의 행군〉 이 그래 앉아만 있는게 〈고난의 행군〉 이냐, 참구만 있는게... 하구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어머니는 잘 몰라 그래요. 누군 하고싶지 않아서 그러는줄 압니까. 할수 없으니 그렇지요.〉 아 이러지 않수. 그래 뭐가 걸려서 못하는가고 했더니 뭐 구구히 알소리 모를소리 변명을 합데다. 내 그래서 무슨 타발이 그렇게 많냐. 너 자력갱생이란 말을 펴루 아니. 우리가 젊었을 땐 너희들갈지 않았다.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 우린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했다. 벽돌 한장 성한게 없을 때 맨주먹으로 다 건설을 했다. 먹지 못해 쓰러지면서두 질통을 벗지 않았어. 어깨에 멍이 지도록 질통을 지구 밤이구 낮이구 일을 했다. 지금 생활이 어찌구 저찌구 하는데 그땐에 비하면 꽃이야. 문젠 머리에 달린거다...》

안그렇수. 정말 그땐을 생각하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끊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눈곱이 뜨거워오르시었다.

얼마나 훌륭한 할머니인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했다.

전 세대들은 오늘도 그때처럼 살고있다.

할머니와 같은 세대가 있어 오늘의 《고난의 행군》이 승리의 행군으로 이어져가고있는게 아닌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슴이 후련해지시었다.

무겁던 중하를 벗어놓은듯 온몸이 홀가분해짐을 느끼시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때처럼 아글타글 일하지 않고있지요. 간부들한테도 달려있다고 보우다. 이거 촌로친이 막 말한다고 욕하지 않겠수?》

경우는 가슴이 섬찝했다.

보통할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실언을 하면 어찌라싶어 할머니의 말을 막으려고 했다.

《가만. 우리 할머니의 말을 다 들어봅시다.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일없습시다.》

그이께서 경우의 마음을 알고 먼저 말씀하시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해있더니 그이의 너그러우신 인품에 힘을 얻었는지 말을 이었다.

《...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데는 일꾼들이 일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보우다. 수령님의 교시와 장군님의 말씀에는 다 있수다. 어떻게 일하라고 말이우다.》

우린 그때 수령님의 교시라면 몸이 열조각이나도 관철했수다. 그런데 지금 일꾼들은 그렇지 않수다. 타발질만 하면서 말이우다. 뭐 다 그렇다는건 아니우다. 그런 일꾼들이 있지요. 우리 아들을 놓고봐도 그렇수다. 갱초급당비서가 된 다음부터는 사무실에만 박혀있는 날이 더 많수다. 이 어려운때 앞장서서 탄부들을 끌고나갈 대신에 말이우다. 그래서 내 늘 지청구를 하지요.

난 그날 속에 품고있던 말을 내쏘았지요.

갱초급당비서가 그러니 탄부들을 어떻게 석탄 생산에로 이끌어나가겠니. 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하는데 실지 〈고난의 행군〉을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건 장군님 한 분뿐이시라구 말이우다. 어디 량심으로 말해봐라. 내가 빈 말을 하니. 너도 텔레비를 보아서 알겠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험한 산밭을 타고계시지 않느냐.

이 조국을 지켜주구 우리 운명을 지켜주시려고 말이다. 식사도 인민들과 똑같이 하겠다고 하시면서 강낭밥과 죽을 자신다고 하더라. 어찌면 우리 장군님께서... 장군님을 잘 모신다는게 어떻게 하는거냐. 말루만 하문 그제 장군님을 잘 모시는거냐. 탄을 많이 캐야지, 탄을. 우리 장군님께서 수령님을 갑자기 잃고 지금 심신이 얼마나 괴로우실테냐. 장군님을 잘 모시는게 백성된 도리구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니. 갱심을 해라. 갱심을... 하구 딸네집에 가겠다구 일어섰수다. 막 떠나려고 하니 며늘애가 내앞에서 부산을 피웁디다. 그래서 며늘애한테 말했지요. 며늘애도 애아버지와 한진속이겠지. 예로부터 영웅의 뒤엔 훌륭한 안해가 있다고 했다. 맹종맹동하는게 안행줄 아니. 그랬더니 눈물을 찼끔 찼디다. 그리곤 내쳐나왔지요.

실은 내 딸이 평성기계공장 기사로 일하고있지요. 언제부터 탄부들을 도와 일을 하려고 마음먹

있지만 쉬이 되더라구요. 하지만 오류이 성한게
이 어려운 때 가만히 앉아 밥만 축내고있겠드라
구요. 두루 생각을 하다가 가만보니 탄부들이 늘
광차베아령이 걸렸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걸 들
었지요. 그래서 일전에 딸에게 편지를 했지요. 좀
도와달라구. 마침 어제 회답편지가 왔수다. 그런
걸 내색하지 않았지요. 아들녀석이 좀 생각되는
게 있는가봅디다. 왜 없겠수. 우리 장군님께서 죽
을 자신다는데... 듣자니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이
좀 별미를 놓아 상을 차리면 종시 드시지 않는다
니...

그러시는걸 수령님께서 아시면... 정말 우리 인
민들이 일을 쓰게 못해서 장군님께 걱정만 끼쳐
드리고있으니, 우리 장군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도 있구 잘살게 되겠는데...》

할머니는 끝내 눈가에 웃기를 가져다냈다.

경우는 형언할수 없는 뜨거움으로 하여 눈곱이
젖어올랐다. 장군님을 곁에서 보좌해드리는 일
군의 한사람으로서 인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멀
리 장군님을 받들고있다는 잠재의식으로 하여 죄
스럽기 그지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래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
시였다. 인민에 대한 감사의 정만이 그들먹이 차
오르시였다.

얼마나 좋은 인민인가. 그것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가식도 꾸밈도 없는 가장 진실하고 사심없
는 인민적감정이였다.

할머니에 대한 신뢰의 정이 억제할수 없는 흥
분을 가져다주시였다.

준엄했던 50년대의 그 태성할머니가 환생하여
앞에 나타난듯싶으시였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 령도자는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준것이 없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믿어주
시고 건강을 넘려하여주시니 그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하겠습니까. 할머니의 믿음이 인민의 믿
음임을 자각하고 제 꼭 보답하겠습니다.》

마음속 인사를 하고계시는 그이의 존안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할머니를 바래우시고 이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이께서는 좀처럼 자리를 뜰 기미가 아니시였
다.

받아안은 흥분이 너무도 크기에 그이께서는 이
밤 한없는 행복의 무아경속에 잠겨계시였다.

이런 인민이면 무엇이 두려우랴.

이런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
이다. 우리의 붉은기는 지구의 행성우에 사회주
의기치로 더 높이 휘날릴것이다.

그이의 가슴은 폭풍을 안은듯 격랑을 일으키며
뒤설레이시였다.

《장군님, 날씨가 차웁니다.》

경우는 밖에 그냥 서계시는 그이가 넘려되어
조용히 말씀드리였다.

그제서야 그이께서는 마음을 진정하시며 뜨겁
고도 절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난 지금 수령님께서 만나셨던 그 태성할머니
를 만나본듯한 마음입니다. 50년대 태성할머니에
이어 90년대의 새로운 태성할머니가 나왔습니
다.

수령님께서는 늘 이렇게 좋은 인민이 있기때문
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난 우리 인민의 목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쩍부쩍 힘이 솟습니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입니다.

전번에 립업부문에 나갔던 동무의 말을 들어보
아도 알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백날, 천날 죽물을
먹어도 일없다고 하면서 나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령도자가 건강해야 조국도 있고 자기
들도 있다고 한결같이 웨쳤다고 합니다. 난 우리
인민들의 이런 보호속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
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민들에게 보답하겠는가
를 생각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일합니다. 인민들
의 기대에 이 몸을 다 바쳐서라도 꼭 보답할 결
심입니다.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이제 멀지 않
아 우리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자는게 나의 구상입니
다.》

《장군님!》

경우는 그이를 우러렸다.

그이의 준수하신 눈가에 물기가 맺혀 번뜩이였
다.

경우는 복받치는 감개로 하여 눈앞이 흐려졌
다.

두팔을 엇걸고 조용히 차절을 거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서는 잠시후 경위의 앞으로 다가오시였다.

《경우동무, 아무래도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주
어야 할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래일 베아령공
장에 나가 베아령을 해결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탄광에 필요한 기계부속품들도 함께 가지고 할머
니를 모시고 탄광엘 좀 갔다와야 하겠습니까.

내 인사도 전하고... 할머니의 그 말씀에서 큰
힘을 얻었다고, 인민의 기대에 꼭 보답하겠다고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경우는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 나직하나 힘있게
대답했다.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음이 진정
되지 않으시였다.

로상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
거리시였다.

무릇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가슴찌릿이
젖어들면서 새해에는 모든 면에서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심이 약동하시였다.

인민들은 앙양되어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만
살던 인민이기에 갑자기 드착친 고난앞에서 일시

적으로 주춤했을뿐이다. 우리 인민에게는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자력갱생》이라는 삶의 좌우명이 있다. 그 삶의 좌우명을 안고 살기에 주저를 모르는 오직 창조만을 아는 불굴의 인민으로 되었다. 문제는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할머니의 말이 옳다. 인민의 목소리는 부정할수 없는것이다. 나라의 경제형편과 인민들의 생활이 오늘과 같이 어렵게 된데는 일군들이 일을 쓰게 하지 못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수령님의 교시를 중도반단함이 없이 관철하여왔다면 오늘과 같은 어려운 난관이 조성되지 않았을것이였다.

불현듯 수령님께 그토록 충직했던 김책동지가 생각키우시였다.

수령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무슨 일이나 말아 밤이 열이 돼도 해내군하는 혁명성이 투철하고 내밀성이 강한 일군이였다.

지금이야말로 김책동지와 같은 일군이 필요한 때이다. 말 잘하는 일군이 아니라 일 잘하는 일군, 실지 사업성으로 당을 받드는 진짜배기일군만이. 그러나 지금 그런 일군이 얼마나 되는가. 인민이 죽을 먹으면 같이 죽을 먹고 풀뿌리를 먹으면 같이 풀뿌리를 먹으며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 일군들이. 개중에는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불러일으켜 난관을 뚫어나갈 대신 주저앉아 인민들에게 낸들 어떻게 하라는가 하는 식으로 난관앞에 투항하고있는 일군, 심하게는 인민들은 어떻게 되건 자리지킴만 하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일군들도 있다.

시대와 인민의 요구를 자각하지 못한 그런 일군들에 대한 분격이 울컥 치밀어오르기도 하시였다. 진정 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부문을 책임지고 당의 의도대로 일해나간다면 난관은 하루빨리 극복될것이였다.

문득 몇달전에 목격했던 일이 그 진리를 보충해주기라도 하듯 떠오르시였다.

순간의 휴식도 없이 인민군군인들을 찾아 초소들을 이어오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판문점초소 군인들을 만나보기 위하여 판문점가까이에 도착하시였다.

벌써 날은 어두워 캄캄장막을 펼쳤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하루 근무를 마치고 쉬고있을 전사들을 생각하시어 다음날 아침에 판문점초소로 나가려고 숙소에 들리시였다.

삼라만상은 평온한 고요속에 잠기였다.

그이께서는 숙소에 들긴 했지만 마음은 인민군 전사들속에 가계시였다.

최고사령관이 초소를 찾아주었다고 그토록 감격에 넘쳐 만세를 부르는 전사들의 모습이 안겨와 설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창문가로 다가가시어 푸릿한 하늘을 배경으로 우중충하게 보이는 산발들을 이윽히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숙소 아래쪽에 난데없이 나타난 불의 바다를 보고 놀라시였다.

선두에는 유별나게 큰 불뭉치가 서고 그뒤로 수천수만개의 불뭉치들이 선두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평양광장에서 보았던 경축의 밤 해불행진대오를 연상시키였다.

불의 바다에 이끌리어 밖으로 나오신 그이께서는 불의 행진대오가 강줄기를 이루듯 끝간데 없이 늘어지는것을 의아스럽게 바라보시였다.

이윽고 여기저기에 불무지들이 생겨나고 함성소리, 노래소리가 한데 어울려 간간이 들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어 알아보도록 하시였다. 펑 시간이 흘러서야 그곳에 갔던 일군들이 돌아왔다. 그 일군은 말을 떼지 못하고 깊은 심호흡만 하였다.

《무슨 사람들이요?》

그이께서 물으시여서야 마음의 안정을 찾은 일군은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장군님, 지금 군당책임비서의 지휘밑에 온 군이 총동원되어 제방특공사를 벌리고있습니다. 그들은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돌을 날라오고 흙을 날라오고... 군당책임비서동무도 질통을 지고 사람들의 앞장에 서서 화선식선동으로 대중을 전투승리로 조직동원하고있습니다. 제방특공사가 단순히 자연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원수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자기 고향땅, 우리 조국을 사수하기 위한 방어전투라고 하면서 오늘밤중으로 기어이 제방특공사를 완공하고 승리의 붉은기를 휘날리자고 웨치면서 그야말로 결사전을...》

일군은 중시 말끝을 맺지 못하고 눈길을 떨구었다. 그들의 투쟁모습을 직접 보고온 그 걱정으로 목이 메인것이였다.

그이께서도 눈곱이 젖어오르시였다. 그들의 투쟁모습은 그대로 소왕청유격근거지 방어자들을 연상시키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을 파견해주시고 온밤 자리를 뜨지 않고 불의 바다를 지켜보시였다. 수천수만개의 해불들을 하나하나 여겨보시면서 그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로부터 여러날 걸려야 할 방대한 공사를 하루밤사이에 끝내였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자리를 뜨시였다.

그날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 쓰러지면서까지도 물러서지 않고 끝내 방어선을 구축한 그들에게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보시였으며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이끌어 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리를 다시금 받아안으시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전국국토관리일군대회를 여시고 그 군당책임비서에게 감사를 주시였으며 국토관리사업에서 모범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성과여부는 바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맹산군이 그것을 보여주었고 대흥단군이 현실로 입증해주었다. 수령님께서 이미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군들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일군들이...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은 사색을 모으시며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시었다. 순간 그이의 안광은 그 어떤 환희로 하여 밝아지시었다. 밖에서는 의외에도 눈이 내리고있었다.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하였는지 삼라만상은 백설천지로 변했다.

《허, 철을 헛갈렸는가 했더니 눈이 내리는군.》

그이께서는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시었다. 좁전까지 내리던 비가 아침까지 이어지지 않을가 하여 은근히 마음쓰시던 그이이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류다른 정서에 잠기시여 가볍게 훑날리며 내리는 눈송이들을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어두운 밤하늘에 흰꽃을 수놓으며 고요히 내리는 눈은 우주공간을 뽀얀 눈안개로 메웠다.

물기를 가볍게 먹은 진눈까비들은 정원의 나무 잎들에 소복이 쌓였다가는 소르시 무너져내리면서 가벼운 눈사태를 이루기도 한다.

한동안 설경의 정서속에 잠겨있느라니 눈사람을 만들려고 눈덩이를 굴리던 어린 시절의 한도막이 야릇한 흥취속에 추억되시었다.

해방된 이듬해 겨울이었다. 그날도 지금처럼 진눈까비가 하늘을 메우며 내리었다. 그날 경위대원들이 만들어준 눈사람이 작게만 보이시여 마음에 차지 않은 그이께서는 손수 눈사람을 크게 만들어볼 결심밑에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시었다.

주먹만하던 눈덩이가 점점 커지자 신바람이 난 그이께서는 이제는 힘에 겹도록 커지였지만 계속 굴려나가시었다.

엄청나게 큰 눈덩이를 힘겹게 굴리시는 김정일동지를 의아스럽게 바라보고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밖으로 나오시었다.

《그만하면 눈사람을 크게 만들수 있겠다. 이제 그만 굴리렴.》

김정숙동지의 만류에 그이께서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흠뻑 훑치고는 싱긋 웃어보이시었다.

《지구만큼 크게 굴리려고 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크게 놀라시여 한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결으로 다가오시여 《네가 어린 나이에 벌써 지구를 안고있구나.》라고 대견해하시며 곁들어주시었다.

그때를 추억하시던 그이께서는 느닷없이 마음이 더욱 억제여지는 자신을 의식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실이라는것을 잊으신듯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짚으시었다. 그러시다가 앞을 막아선 대형지구의앞에 우뚝 멈추어서시었다.

그 순간에 그이께서는 대형지구의가 하늘에서 떨어져 자신의 앞에 굴러온 실체인듯 생각되어 한동안 그 무게를 가늠해보시었다.

지구의 무게가 그대로 실려있는듯 움쩍 움직이지 않게 보이는 대형지구를 한동안 응시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아르키메데스라는 학자의 말이 생각키우시었다.

《나에게 지지점을 달라. 그러면 나는 지레대로 지구를 버쩍 들어올릴것이다.》

...

《지지점이라, 지지점...》

거듭 뇌이시는 그이의 얼굴에 진중한 빛이 어리더니 점차 엄숙하고 숭엄한 빛으로, 이윽고 느슨한 미소로 이어지시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지점을 찾지 못하여 지구를 들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지점을 가지고있다.

지구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지지점은 바로 인민이다.》

그이의 심중에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깊이 새겨지시었다. 그것이 조선의 힘이고 역사의 모진 중압에도 끄떡하지 않으며 그 어떤 초고압에도 깨여지지 않는 절대적 힘의 원천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형지구의에 손을 가져다대시었다. 그러시고 가볍게 힘을 주시었다. 억척 움직이지 않을것 같던 지구의가 서서히 움직이였다.

그이의 시야속에 세계가 흘러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미국땅덩어리가 눈에 마쳐오자 지구의를 멈추어세우시었다. 그러시고는 근엄한 눈빛으로 굽어보시었다. 철추를 내리는듯 그이의 안광에 섬광이 번뜩이였다.

그이께서는 다시 창가로 눈길을 옮기시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있었다.

희미한 불빛속에 수복이 내려쌓이는 눈을 이윽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잊은듯 집무탁앞으로 다가가 전화기를 드시여 선전선동부 책임일군을 찾으시었다.

《...대흥단 군당책임비서를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창작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있습니까?... 대흥단에 갔던 창작가들이 며칠전에 돌아와 지금 주야전투를 벌리고있다... 좋습니다. 언제까지면 완성할수 있겠습니까? 삼반년도안으로?...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늦어도 새년도 초봄까지는 완성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

대흥단 군당책임비서의 모습이 방불히 안겨오시었다.

말이 없고 과묵하고 무슨 일에서나 꾸준한 일군, 일단 사업에 들어가면 몸이 부서져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투신력이 강한 일군.

오래전에 수령님께서 대흥단군을 찾으시여 대흥단군은 나라의 복단에 있기때문에 모든것을 자력갱생하여 살아나갈수 있도록 생활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 자체로 군안의 전기를 풀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는 진정한 인민의 주부가 되어 오랜 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해왔으며 오늘은 대흥단군을 별세상으로 전변시켰다.

얼마나 훌륭한 일군인가. 당은 이런 일군들을 내세운다. 인민은 이런 일군들을 지지한다.

오늘도 그는 희뵤히 밝아오는 어둑새벽에 소복이 내린 솟눈길을 남먼저 밟으며 손수레를 끌고 거름생산에 앞장선다. 그것이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진 정치사업이 되어 온 군을 불러일으킨다. 하여 직접 생산한 거름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책임비서가 앞장서고 그뒤로는 군의 일군들이 서고 군내 주민들이 너도나도 따라나서 길고긴 행렬을 이룬다.

이처럼 일군들과 군안의 인민들의 이악한 노력이 있어 백두산이 뿜어낸 용출물과 화산재로 이루어진 백두용암대지가 옥도로 전변되어 옛날에는 한해농사를 지어도 다람쥐 불가심 량식밖에 안되던 대흥단벌에 해마다 풍년작황이 실려 행복의 노래소리만 울려 퍼지고있는것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얼마전에 대흥단군에 대한 실태를 보고받으시고 대흥단군사람들이 별세상에서 아무런 걱정없이 살고있다는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면서 대흥단군을 공산주의리상촌으로 꾸린 군당책임비서에게 우리 당이 바라는 진짜배기 충신이라는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그를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를 만들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창작가들이 련차로 빨리 갈수 없다는것을 해아리시고 직승기를 내어 그들이 대흥단군에 빨리 갔다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대흥단 군당책임비서동무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당일군영웅으로 내세우는것입니다. 한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일군들의 인생의 길을 돌이켜보면 그 굽이굽이마다에 신념의 자욱이 뚜렷한 삶의 좌표가 새겨져있습니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삶의 좌표가 무엇을 지향했는가에 따라 어떤 일군은 영웅메달을 빛내이는것이고 어떤 일군은 조국앞에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못한채 인민의 버림을 받고 물러납니다. 대흥단 군당책임비서동무는 오직 인민을 위해 살아온 일군이기에 일부 사람들이 그를 때려고 했지만 인민들은 그를 더 따랐습니다. 대흥단 군당책임비서를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를 당일군의 본보기영화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모든 당일군들이 대흥단 군당책임비서의 일본새, 사업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늦어도 새년도 초봄에는 영화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강조하시고서야 천천히 수화기를 놓으시었다.

문제의 열쇠는 일군들에게 있다.

더우기 당일군들을 분발시켜야 한다. 당일군들을...

거듭 뇌이시는 그이의 사색은 줄기차게 이어지시었다. 그러자면 당일군들의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뒤에서 떠밀어주는 당일군이 아니라 앞에서 대중을 줄기차게 끌고나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고난의 행군》 대오의 선두에 서서 혁

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가는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하며 난관을 뚫고 걸린 문제를 푸는데 한몸 서슴없이 바치는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분발하여 뛰면 행정경제일군들이 분발하여 뛰게 되고 전군중이 분발하여 뛰게 된다.

당일군들이 발동되어 전국을 움직이고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켜 난관을 뚫고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원칙이며 투쟁기풍이다.

어려운 난국은 멀지 않아 타개될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마음속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고래치는 승리에 대한 그이의 확신에는 환희롭고 희망찬 력사적시대를 안아올 그 무엇이 태동하고있었다.

4

경우는 며칠후 밤이 이슬해서야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일을 안고온듯한 긍지에 넘친 미소가 어려있었다.

《수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래 그 할머니를 딸네 집에서 만나 함께 탄광으로 갔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정겨운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아닙니다. 베아령과 기계부속품 준비로 이들이 지나 딸네 집에 가니 그 할머니는 아들네집으로 급히 되돌아갔다는것이였습니다. 탄광에 있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기별이 왔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탄광에서 사고가 난게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탄광에 도착하여 알고보니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오게 하려는 아들의 〈연극〉 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참 흥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되돌아갔단 말이지요. 하하하.》

김정일동지께서는 못내 흥분되시여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렇습니다.》

《역시 어머니란 그 말은 사랑이란 말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는데 오만공수가 든다고 하여 오만이란 말이 붙었다고 하지만 실은 자식들을 키우는데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다 키워놓고도 인생말년까지 자식들때문에 걱정속에 사는게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는 어머니들의 사랑에는 사심이 없으며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늘 일군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일군들은 진실한 어머니가 되어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뜨겁고도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경우는 그이의 말씀의 심오한 뜻을 되새기며

승엄한 자세로 그이를 우러렀다.

당일군들은 참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말씀을 한두번만 들어온 그가 아니었다.

당일군들이 당세도를 쓰면 인민들이 당을 외면하게 된다고 늘 강조하시며 일군들의 사업에서 인민을 배반하는 자그마한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는 그이이시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였습니까. 할머니를 만나 보았습니까?》

《네, 딸의 말을 듣고 급히 탄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갱사무실이 텅 비여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분명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갱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바깥쪽을 들고 갱안에서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전 할머니를 붙잡고 〈할머니, 갱에서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의 눈이 화등잔만해지며 〈뭐 사고! 임잔 누구요. 지금 갱안에서 년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최후돌격전을 벌리고있는데 어데서 그런 말을 듣고 와서 헛대비는거요. 보아하니 갱사람같지 않구만.〉 하는것이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마음을 놓으며 〈그렇습니까. 그런걸 전… 할머니,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이나 저를 보며 눈을 슴벅이더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진 산골탄광에서 다시 만날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얼마나 반가와하는지…》

경우는 마음이 찢어터져서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허허, 순간의 번개불에 천지가 보이듯 잠깐 만났던 사람도 뜻이 통하면 오랜 지지였던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법이요. 할머니는 참 좋은 어머니요. 그래서 어떻게 되였습니까?》

경우는 그이의 물으심에 잠시 머뭇거렸다.

감격으로 눈물짓던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목이 꺾 메인것이였다.

…

《그게 무슨 말씀이시우?…》

할머니는 경위의 뜻밖의 말에 흠칫 몸을 떨었다.

《…며칠전 밤에 승용차를 몰고계시던분이… 할머니와 말씀을 나누시던분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경우는 어리둥절해있는 할머니에게 다시 말씀드리었다.

《뭐라고요. 차를 몰던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대구요?!》

할머니는 순간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려였다.

《…세상에 그런 일도 있수. 세상에 그런 일도… 어쩌면 좋수. 어쩌면… 배은망덕해도 유만 부동이지 우리 장군님을 알아뵈지 못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수. 어쩌면…》

《할머니, 진정하십시오. 그날밤 위대한 장군님

께서는 할머니를 바래드리고나서 수령님께서 만나셨던 그 태성할머니를 만난듯한 마음이라고,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힘이 부쩍부쩍 솟아오르고 일욕심이 더 난다고, 50년대 태성할머니에 이어 90년대 새로운 태성할머니가 나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장군님! 제가 뭐이라고… 췌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우리 운명을 지켜주시려고 눈비를 다 맞으시며 험한 길만 걸으시는 장군님을 알아뵈지도 못하고 고맙다는 인사말 한마디 올리지 못한 이 불미스러운 촌놈은이가 뭐길래 그렇게… 그렇게 높이 세워주십니까. 장군님!…》

할머니의 두볼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었다.

이윽고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갱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갱안은 삼시에 폭풍과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제가 갱안에 들어갔을 때 안에서는 힘찬 노래소리가 울리였습니다. 도간도간 고향소리도, 탄부들을 결사전으로 부르는 웨침소리도 들리였습니다. 그들은 침수된 갱안에서 인력으로 광차를 밀고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어미 미진된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안에 갱초급당비서동무도 있었습니다. 일은 그렇게 되였습니다. 갱이 무너지자 초급당비서동무는 년간계획을 수행하지 못한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그는 어머니의 호된 추궁을 받고 생각되는바가 많았습니다. 본이 아니게 당을 배반하고있다는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현장에서 탄부들과 일을 같이하면서 무너진 갱을 복구하기 위한 전투를 벌렸습니다. 온 갱이 떨쳐나섰습니다. 며칠이 걸려야 길을 열수 있다고 생각했던것이 하루반이 걸려 갱은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갱초급당비서동무는 맥을 놓고 주저앉았던 자기를 반성하며 어머니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아들병 위급, 치료중〉 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갱안에서 사상적병집을 뿌리뽑기 위한 〈치료전투〉를 벌렸습니다.

석탄은 광광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옆친데 덜친다고 몰주머니가 터지는 바람에 갱이 침수되었습니다. 탄부들이 주저하며 망설이고있을 때 초급당비서동무는 웨쳤습니다. 〈동무들, 오늘 우리가 위대한 장군님을 총폭탄정신으로 옹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것이겠소. 그것은 바로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가 말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모두 오늘의 결사전이 장군님을 옹위하는 투쟁이라는것을 명심합시다.〉 그리고는 광차에 어깨를 들이대였습니다. 그의 호소에 화답하며 탄부들이 따라섰습니다.》

두팔을 엇걸으시고 경위의 말을 듣고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천천히 거니시다가는 멈춰서시여 천정을 응시하기

도 하시었다.

...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깡안을 찌렁찌렁 울리며 부르는 그들의 노래 소리가 귀가에 메아리쳐왔다. 침수된 깡안에서 허리를 치는 감탕물을 헤치며 굴함없이 싸우는 그들의 모습이 화염에 싸인 불굴의 군상으로 안겨 오시었다. 그이께서는 급히 탁으로 가시여 연필을 쥐시고 일필휘지로 써나가지었다.

모든 지도일군들이 어렵고 힘든곳에 남먼저 뛰어드는 돌격의 기수,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진격의 나팔수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도일군들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부르며 동발목도 먼저 메고 깡막장에 들어가고 생눈길도 먼저 헤치며 포전으로 달려나가는 이신작적의 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이께서는 연필을 소리나게 탁 놓으시며 허리를 쭉 펴시었다.

《정말 장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 어깨를 들이밀줄 아는 그런 일군이 있는곳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당일군들이 그렇게 어려운 난관앞에서도 주저를 모르며 대중을 이끌고 맞받아 뚫고나간다면 지금의 난관은 반드시 극복될것이며 앞길에는 찬란한

길만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지금 서방의 일부 나라들이 우리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동에 달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꽤 지탱해내겠는가 떠들어대고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민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에 있는 돈밖에 볼줄 모릅니다. 돈이 모든것을 움직이고 지배한다는것이 그들의 움직일수 없는 생활관이며 가치관입니다. 그들의 경제방식은 돈입니다. 그들의 계산방법도 돈에 의한 산수적수치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과 인민의 뭉친 힘을 더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방법도 당과 인민의 힘이며 그 정신력입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일찌기 내놓으신 우리의 주체의 계산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수적루적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산출해낼수 없는 무변광대하며 무궁무진한것입니다. 바로 그 힘이 세계가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던 서해의 날바다를 가로막아 갑문을 일떠세우게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몇배 더 어려운 인간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안변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케 했습니다. 나는 앞날을 낙관합니다.

새해는 난국을 헤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승리의 길만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벽차오르는 흥분을 억제하시려는듯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

그이의 얼굴에는 새 시대를 승리로 향도할

태양과 같은 밝고 확신에 넘친 빛발이 넘쳐흐르고있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는 새해 정초에 전당 당일군회의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당의 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발동되어 전국을 움직이고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켜 난관을 뚫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원칙이며 자랑스러운 투쟁기풍입니다. 새해에 소집하는 이 회의는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력사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두손을 힘있게 쳐들어보이시었다.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솟구치었다.

《전당당일군회의!》

온몸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우적우적 뻗쳐오름을 억제할수 없었다.

경우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걱정에 넘친 눈길로 우려했다.

그이의 얼굴에는 태양과 같은 미소가 함뿍 어려있었다. 그이에 대한 믿음이 새삼스럽게 가슴속깊은곳에서 용암처럼 솟구쳐올랐다.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 세 세기를 이끌고계신다.

그이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고계시는 한 조선로동당은 불패의 당으로 백전백승만을 력사에 새겨갈것이다.

전환의 시대는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경우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승배의 눈물이였으며 령도자를 잘 받들지 못한 죄책의 눈물이기도 하였다.

《장군님!》

경우는 그이께로 한발자국 내짚었다.

그이의 품에 와락 안겨들고싶은 심정이였다.

새로운 힘과 열정에 넘치시여 빠른 걸음으로 거니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위의 앞에 우뚝 멈추어서시었다. 철의 의지가 넘치시는 그이의 안광은 그 시각 또하나의 새로운 환희로 빛발치시었다.

순간의 사색과 탐구로 열가지 스무가지 사업을 구상하시고 펼쳐나가는 그이이시였다.

《경우동무, 이렇게 합시다. 새해에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를 잘 짓는것입니다.

전당당일군회의가 끝나면 즉시 모든 당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며 뒤이어 전국의 농촌들에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중앙기관 일군들로 조직된 소조를 파견하자는것입니다.

목적은 어디 있는가. 우선 일군들이 잠에서 깨어나 정신적양양을 가져오자는데 있으며 아래에 내려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계발시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온 나라에 사상전을 벌려 분 위기를 일신시키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주자는데 있습니다.》

《장군님, 그렇게 하면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을것 같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경우는 큰숨을 힘껏 들이쉬었다.

무엇인가 환희롭고 희망찬것이 가슴에 콕 안겨 들면서 심신이 동 뻘울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창문결으로 다가가시여 문을 활짝 열어제끼시었다.

소담한 눈송이들이 그이의 품으로 날아들었다.

《자 보시오. 눈이 내리고있소. 눈이 내리고있단

말이요. 이것은 좋은 징조요. 부흥해질 징조란 말이요. 하하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두팔을 뒤로 가져가시고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이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어두운 밤하늘을 밀어내며 끝없이 울려퍼지었다.

경우는 북받치는 감격으로 하여 젖어오른 눈길로 그이를 따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소담한 함박눈은 우주공간을 뚫안 눈안개로 콕 메우며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위대한 그이의 령도로 전환의 새 력사가 시작될 이 땅을 축복하듯 하얀 눈은 송이송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에게 위대한 당이 있어라

석광희

당이어 내 붓을 들어
그대에게 축하를 드리건만
그 어떤 명구를 고르기 위해
구태여 애를 쓰지 않노라

화전의 언덕에서 시작되어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이날이때까지
내내 붉은기만을 휘날리며
승리와 영광을 수놓은 길

그 로정을 그대로 옮기면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주옥같은 시가 되고
불멸의 화폭이 되리니

진정 다함이 없어라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사회주의락원을 위해 쌓아올린 그대의 업적
그 무슨 말로 전할수 있을것이나

당이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거봉처럼 솟아오른 그대를 우러러
자랑에 부푸는 이 가슴

보노라 만리에 빛발치는

그대의 존엄
듣노라 우리의 한끝까지 울려가는
그대의 목소리

오, 그 존엄 그 목소리
오늘은 지구를 벗어나
무변광대한 우주를 떨치며
우리의 《광명성1》호가 돌고있나니

누구도 감히 맞서지 못하리
높이도 높이도 날아올라
위대한 장군님 령도따라
강성대국에로 나가는 조선의 위력을

이 행성도 저 우주도 거머쥐시는
사상과 신념, 의지의 강자이신
천하의 제일명장 진두에 모신
이 행운을 새겨안은 내 심장은 웨치노라

그 어떤 역만의 재부
억천의 생명파도 바꿀수 없고
그것 없이는 순간도 살수 없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

-아, 우리에게 위대한 당이 있어라!



위대한 스승의 손길로

세계적인 대문호로 이름떨친 작가 백인준 선생은 우리결을 떠나갔어도 그가 창작한 시와 가사, 가극과 영화문학, 희곡 등 다양한 종류의 문학예술작품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인준동무는 당에서 시를 쓰라면 시를 쓰고 가극혁명을 할 때에는 가극을 쓰고 영화혁명을 할 때에는 영화문학을 썼다고 하시면서 것처럼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작품을 쓴 작가는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동서고금을 둘러보아도 소설가는 소설로, 시인은 시로, 극작가는 희곡으로 알려졌지 백인준 선생처럼 시와 희곡, 가극과 영화문학 등 문학의 여러 형식에 정통하면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시와 가사도, 희곡과 가극, 영화문학도 명작으로 창작한 그런 작가는 세계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한것은 그가 남다른 천부의 재능을 지녔기때문만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의 남다른 창작적 열정과 재능을 귀중히 여기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끄시여 창조의 새 세계를 활짝 열어주시였기에 그의 다재다능은 활짝 꽃피어 세계적인 대문호로 이름떨칠수 있었던것이다.

그가 인생의 중년기에 이르러 창작의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새기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보살피심과 가르치심을 받으며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공연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으로, 연극으로 옮기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였다.

해방후부터 작가로서 문학예술부문의 일군으로 오래동안 사업해온 그였지만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나 무대에 재현한다는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있었다.

사실 항일혁명투사들과 력사가들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피바다》**, **《꽃피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성황당》**을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공연하시였다는 사실들은 알려지고 그 명작들의 내용들은 밝혀졌으나 그때까지 작품들이 영화와 무대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문학예술부문을 몸소 지도하기 시작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첫날부터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재현하는 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정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혁명문학예술은

조선인민의 가장 고귀한 사상문화적재부로, 우리 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로 되었으며 인류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사업이며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본보기로 하여 영화예술전반을 새로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람차고도 영예로운 사업이라고 규정하시고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와 력사 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가장 책임적이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임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가슴속에 새겨가는 백인준선생은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명철한 통찰력,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을 감명깊이 느끼면서 지금까지 작가의 한사람으로서, 문학예술부문의 한 일군으로서 자신이 가장 초보적인 원칙도 모르고 좋은 작품을 쓰고 문학예술을 발전시켜나가도록 사업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일한 자책감을 통절히 느끼게 되었다.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작가의 숭고한 임무를 자각한 백인준선생은 새로운 창작적흥분에 휩싸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56(1967)년,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며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영화화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백두산창작단을 창립하시고 백인준선생을 작가로 불러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뿐만아니라 그를 항상 몸가까이 부르시여 앞으로 중요한 창작과제도 능히 수행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한결음한결음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창작공연되던 당시 그 창조사업에 직접 참가하였거나 명작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을 찾아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작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그 원형과 당시 공연자료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정리케 하시였으며 영화에 옮길 대본작성으로부터 영화창조전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가 영화로 옮겨진데 이어 **《꽃피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영화로 옮겨짐으로써 인류문화사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위대한 산 모범을 가지게 되었으며 혁명하는 인민들이 자기의 투쟁에서 없어서는 안될 혁명적량식과 강력한 투쟁의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찬란히 계승발전되고 영화예술이 자기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던 이 보람찬 창조과정은 작가 백인준선생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제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적작가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5대혁명가극창조에 이어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을 무대에 재현하던 때였다.

원작의 종자를 바로잡기 위해 창조집단이 암중모색하고있었으나 그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옹계 밝혀내지 못해 모대기기만 하였다.

명작은 창작공연되던 그 당시만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력을 가진 작품이다. 그렇다면 명작의 종자도 오늘날이 아닌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위대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을터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듯 원작의 심오한 종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론쟁만 거듭하다보니 무대형상에서도 대가 바로 서지 못하였다.

창작가들의 고충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즉 사람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될 때에만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종자로 하고있다는것

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비로서 백인준선생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적인간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작품이라는 심오한 철리를 깨닫고 확고한 신심에 넘쳐 형상작업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 이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대형상을 지도하시기 위해 여러차례 극장에 나오시여 창작가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긍정인물들의 근로생활을 그릴데 대한 문제, 풍자극양상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할데 대한 문제 등 원작을 옹계 재현하는데서 나서는 형상문제해결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을 줄기차게 진행하는 보람찬 창조의 나날속에 작가 백인준선생은 당에서 요구하고 바라는것이 라면 어떤 종류의 문학예술작품도 명작으로 창작해내는 백전로장으로 자라났던것이다. 하기에 작가 백인준선생은 자기 생의 마지막순간에 언제나 위대한 스승의 자애로운 손길로 창작의 걸음마를 떼여주시고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는 충성의 송가를 창작완성하였다.

오늘 세상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속에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자애로운 스승의 한품에 안아 힘을 주시고 재능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갈피마다에 깃들어있는것이다.

김정일동지 만세

헤르쭘 뻬테르

김정일동지 그이는 새별
온갖 어둠을 뚫고 찬연히 빛나는 별
그 별빛 까르빠찌아를 넘어
두나이-찌강류역까지
우리의 앞길 등대처럼 밝혀주어라

김정일동지 그이는 붉은 기치
지배의 쇠사슬을 불사르는 투쟁의 기치
그 기치아래 뭉친 자주의 힘
온 세계에 붉은 노을 펼쳐가노라

김정일동지 그이는 투쟁과 승리의 상징

청춘조선 통일조선 인류의 봄의 상징
온 세계에 자주위업 실현되는 날
인류는 그이를 지구의 영웅으로 추대하리라

진보의 투사들이여
그대들 모두 향도의 별을 위하는 위성이 되어
그이의 기치 높이 들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심장으로 부르고 웨치라
김정일동지 만세를

(필자는 마자르사람임)

장군님께 드리는 헌시

신운호

해쫄는 정일봉 떠나시여 몇만리
노을 붉은 룡남산 내리시여 몇만리
이 조선 빛내오신 그 자옥마다
필승의 신념준 백두의 장군이시여

인민을 위하여 걸으신 천만리자옥
산천도 초목도 목메여 노래합니다
이 조선 받드신 그 로고 끝없어
누구나 따르는 인민의 장군이시여

장군님은 민족의 하늘이 낸 영웅
광풍도 불구름도 헤쳐 앞길 여시고
새 세기 강성대국 밝게 비치는
위대한 정의의 태양이십니다

내 이렇듯 심장으로 노래할수록
저도 모르게 통탄하게 되는 마음
세상엔 어쩐지 시어들도 많건만
위인을 칭송할만한 시어는 적고
더욱 내 아는 시어들은 너무도 무색함을

정녕 우리 장군님은 겸허하시다
자신에 대한 칭송과 찬양은
절대로 불허하시는분
그때문에 이 나라 시인들은
남모르게 안타까이 모대기는것이 아닌가

소박한 인민의 아들이 되시여
가장 평범한것을 좋아하시거니
그때문에 그때문에 더욱
우리의 존경 우리의 흠모는
그토록 더더욱 절절한것이리

우리 장군님은 친근하고 위대하시다
친절하고 뜨거운 포용력으로
수천만 전사들과 인민들을
한피줄 이은 살붙이로 키워주시며
정을 쏟아 거느리시는 친어버이
명장중의 천하제일 명장이시여라

오오, 사랑으로 군민을 묶어세우시고
사랑으로 조국을 이끌어가시고
사랑으로 만민을 고무하시는
그이는 우리의 위대한 최고령도자!

그 누구도 비길수 없고 따르지 못할
백두산의 담력
백두산의 배짱
백두산의 무적필승의 기상 안으시고
우리 로동당을 백승의 당으로
우리 군대를 신념의 강국
우리 나라를 불패의 강국으로!
이 행성우에 온 누리에
번쩍 추켜들어 존엄 떨쳐주시거니

우리 걸음마다 그 자옥 따라가옵니다
준마타고 구보로!
천지를 뒤흔들며 백전백승해 나아갑시다
받드는 한길에 충효의 초석이 되고
위하는 그 길에 위훈의 육탄이 되려니
김일성민족의 찬란한 해님이시여
우리모두의 자랑이시고 운명이신 친어버이이시여
강성부흥할 새 세기 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옥체 길이 만수무강하시라!

장군님만 우리러

류동호

그 모습은 백두산의 아침해돋이
그 사랑은 행복의 따사론 봄빛
장군님의 환하신 그 웃음안고
내 조국의 하루가 시작되여라

그 음성은 정일봉의 장엄한 우뢰
그 기상은 조선의 영원한 승리

장군님의 위대한 부름을 따라
강성대국 이 땅에 세워간다네

그 손길은 하늘땅을 움직인다네
그 걸음은 미래에 닿아있다네
찬눈비가 내리고 폭풍이 쳐도
장군님만 우리러 우리 산다네

내 조국의 미래를 키워주는 사랑의 품

세계에 그 이름 떨칠 주체의 강성대국을 눈앞에 바라보며 신심과 희망에 넘쳐 준마를 타고 구보로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씩씩한 기개가 어려서인가 나날이 질어가는 푸르른 록음속에 싱싱한 기운이 차넘치는 내 조국강산.

봄을 맞으며 피여났던 가로수의 햇순들이 어느덧 제나름의 크기로 한껏 자라 불어오는 훈풍에 가볍게 설렁이고 저 멀리 바라보이는 산줄기들도 푸른 옷을 새롭게 펼쳐입었다. 어디를 둘러보나 푸른 빛이 차고넘치고 천천만첩으로 활짝 피어난 각양각색의 꽃송이들에서 풍기는 꽃향기에 마음즐거워지는 내 나라의 푸른 계절이다.

한껏 푸른 물이 오른 산과 들의 모습에서 풍요한 열매로 주렁질 내 나라의 풍요한 가을,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며 랑만과 희열에 가슴부르는 우리들이다.

저기 웅단마당 펼쳐진 폭신한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놀며 덩구는 아이들의 모습이 바라보인다.

한창 솟아나는 새싹을 어찌할수 없는듯 서로 불안고 돌아가며 씨름을 하느라 돌아가는 소년들의 모습도 보이고 무슨 문제를 토론하는지 논쟁에 열이 오른 학생들의 모습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청맑은 소리로 부르는 노래소리도 바람결에 들려온다.

아무런 구김살없이 마음껏 뛰놀며 행복에 겨워 노래부르는 저 아이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어지는 우리의 생각.

행복이 뭣이냐고 물으면 《행복은 우리》라고 서슴없이 대답하는 저 아이들, 저애들은 과연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그 행복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그를 위해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치신 한량없는 로고와 심혈에 대해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나 알고있는지.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가난의 질곡속에서 배우고싶어도 배울수 없고 써도 채 군지 않은 가냘픈 어깨에 책가방대신 가난의 무거운 멍에를 메야만 했던 이 나라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정상이 너무나 가슴아프시여 유격근거지에 아동단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귀틀집 창가로 울려나오는 아이들의 랑랑한 글읽는 소리를 기쁨에 넘쳐 들으시며 해방된 제 나라, 제 땅에서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마음껏 배우며 뛰놀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그려보신 위대한 수령님.

그날의 그 사랑으로 평양에서 제일 좋은 자리 장대재언덕우에 아이들을 위한 큰 집-소년궁전을 세워주신 우리 수령님.

세상 부러운것 없이 행복속에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혁명하는 보람을 찾으시던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거니.

정녕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후대와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고결한 생애였고 수령님의 넓은 품은 온 나라 아이들이 안겨자라는 사랑과 행복의 요람이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한평생 지니셨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행복의 노래만을 부르며 앞날의 주인공, 혁명의 계승자로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다.

력사의 포연탄우를 한몸으로 막으시며 조국의 미래를 지켜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으로 사나운 광풍이 몰아칠수록 우리의 미래이고 행복인 어린이들을 더 따듯이, 더 뜨겁게 품어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 미쳐날뛰는 제국주의자들의 광풍속에서 우리 조국과 사회주의를 단신으로 수호하시기 위해 눈비에 젖은 야전복이 마를 사이 없이 온 한해 최전연에 계시면서도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서는 어느 한시도 아이들이 떠난적 없거니.

지난해 1월 2일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설명절을 쇠는 혁명가유자녀들을 만나보고싶다고 하시면서 설날 인민군부대시찰에서 쌓으신 피로도 푸시지 않으신채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또다시 아버지장군님을 학원에 모시게 된 원아들은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여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해사이에 몰라보게 자란 원아들의 튼튼한 모습을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학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원아들의 침실에 들리시였다.

밝고 따듯한 햇빛에 휩싸인 침실은 첫눈에도 아늑하고 정갈하고 시원해보이였다. 새로 놓은 산뜻하고 아담한 2층침대들, 차곡차곡 포개놓은 폭신한 담요들이며 눈부시게 흰 침대보들, 침대맞은켠에 시원히 트인 넓은 공간...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침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침실구조를 고치니 원아들이 좋아하는가고 교직원들에게 물으시였다.

교직원들은 원아들의 년령상 특성에 맞게 침실을 고쳐놓으니 아이들이 여간만 좋아하지 않는다

고 말씀드리었다.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침실을 잘 꾸렸습니다. 이렇게 2층침대를 놓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방이 넓어서 원아들이 마음껏 놀수 있어서 좋고 2층침대에서 자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동심에도 맞으니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일군들과 교직원들의 가슴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원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심정이 얼마나 지극하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저리도 기뻐하시는것일가 하는 생각에 젖어드는 눈굽을 어찌할수 없었다.

눈보라 사납게 몰아치던 한해전 설날 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침실에 들리시여 원아들의 생활을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침대가 폭신한가 몸소 앉아도 보시고 통로가 좁지 않은가 걸어도 보시며 방안을 오래도록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다가 교직원들에게 잠을 갈려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원아들은 없는가, 한창 뛰어다닐 나이들인데 좁은 통로로 다니기 불편해하지 않는가를 물으시었다.

잠을 몹시 갈개는 원아들이 간혹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침대를 량쪽에 놓다나니 방안이 좁아 아이들이 활동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현상태에서 그럴수밖에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심려어린 안색으로 다시금 침실을 둘러보시었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량쪽에 침대를 놓지 말고 한쪽에만 편걸시켜놓으며 그대신 2층침대를 만들어주면 될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다가 굴러떨어질 념려도 없을것이고 방안의 공간도 넓어져 호실에서 간단한 문화오락이나 모임도 할수 있으며 2층에 올라가 자고 싶어하는 동심에도 맞아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침실구조를 원아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고쳐주라고 말씀하시었다.

교직원들은 순간 경탄과 함께 원아들의 부모구실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러는 교직원들과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빠른 시일안에 모든 침실들에 2층침대를 놓아주어 원아들이 조금도 불편없이 생활하게 하자고 재삼 강조하시었다.

그후 학원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2층침대들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이처럼 또다시 침실에 들리시여 새로 놓

은 침대며 고쳐진 방구조를 세심히 보살펴주시니 정녕 그 사랑을 그 무엇에 비길수 있단 말인가!...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이런 걱정애 잠겨있는데 2층침대를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2층으로 오르내리는 자그마한 발디디개를 가리키시며 안색을 흐리시었다.

일군들이 영문을 몰라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원아들이 이런 발디디개를 짚고 2층침대로 오르내릴 때 헛디더 사고라도 나면 어찌겠는가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한창 장난질을 할 나이의 원아들인데 저런 자그마한 발디디개를 짚고 오르내리다가 잘못하면 다칠수 있습니다. 2층침대로 오르는 량쪽모서리에 편리한 사다리를 설치해주어야 하겠습니까.》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다시금 놀라움과 크나큰 감동에 휩싸였다.

사실 2층침대를 놓은지 몇달이 잘되지만 원아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오르내리고있기에 아직까지 누구도 발디디개의 위험성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었다. 그것은 원아들을 자애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머리칼 하나라도 다칠세라 극진히 아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만이 순간에 발견하실수 있는 위험개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며 원아들의 침구류 상태와 교체주기에 대해서까지 세세히 알아보시고 장난이 심한 나이의 원아들이기때문에 백포 같은것도 더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백포예비를 넉넉히 마련해주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혁명가유자녀들은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 나갈 핵심골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아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고 훌륭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떠나실 시간이 되었지만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침실을 선뜻 나서지 못하시었다.

아늑하고 정갈한 침실에서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며 무럭무럭 자라는 원아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가, 사다리가 달린 훌륭한 2층침대에서 밤마다 단꿈에 잠길 원아들의 고르로운 숨결소리를 들으시는가, 침실을 다시금 둘러보시며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봄날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 미소가 어리어 침실은 더 밝고 따스해진듯하였다.

사랑애 사랑이 겹쌓이는 원아들의 보금자리, 다심한 아버지손길이 낮이나 밤이나 떠날줄 모르며 추울세라 더울세라 다정히 쓰다듬어주고 기쁨과 행복만을 엮어주는 우리 아이들의 사랑의

집...

이 사랑, 이 은정을 어찌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에게만 돌려주시는것이라.

아직은 철없는 아이들이 울린 소박한 편지도 기쁘게 보아주시고 훌륭한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사랑의 친필서한까지 보내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우시고 하나의 기념비적 건축물을 구상하시여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아이들을 위한 집부터 먼저 짓도록 하시고 모든것을 후대들대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으로 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품은 온 나라 아이들을 다 품어 안아주고 그들의 자그마한 소원과 희망까지도 활짝 꽃피워주며 혁명의 역군으로 자래워주는 친아버지의 자애로운 품,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사랑과 행복의 요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장군님》이라 친근하게 정답게 부르며 따르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모시여 영원히 푸르청청한 우리의 미래여.

그 창창한 미래를 안고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은 영원토록 무궁번영할것이다.

나의 노래 나의 추억은

리영철

누구에게나

어머니의 노래가 있고

그 품속에 자라난 추억이 있듯이

정다운 그 노래 소중한 그 추억은

내 가슴속에도 가득차있어라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당중앙 집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 해

내 이 땅에 태어났거니

장군님 우리 땅을 이끄시기에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내 나라

보다 더 화목해진 내 조국에서

서른다섯해

나는 복받은 세월만을 살아온 행운아

추억하노라

학교를 다녀도

장군님 다녀가신 교실의 책상에 내 앉아

부러움을 모르고 배워온 그 나날들을

노래하노라

일을 해도

장군님의 편지를 벽에 모신 방에서

내 붓을 들고

창작의 열정을 바쳐가고있음을

진정

장군님 한품에

생의 젖줄기를 잇고 내 자랐기에

세상사람 그 누구도

받아안지 못하는 사랑과 믿음을

내 하루같이 누려온 서른다섯해

이제 사십년, 오십년... 흘러도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모시여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로

이 땅에 반드시 일떠설 강성대국에서

내 한생의 추억은 더 뜻깊어지리

아, 나의 노래 나의 추억은

오늘도 래일도

사랑과 믿음으로 나를 키워준

위대한 **김정일**동지!

어머니 조선로동당!

노래하노라 추억하노라

당이여 나의 어머니이시여

누구나 어머니의 노래가 있고

그 품속에 자라난 추억이 있어도

장군님 한품에 안겨

내 삶이 제일로 행복하구나

내 행복 영원하리라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

서둘러 붓을 들면

탐승길 굽이굽이
노래질 굽이굽이
어랑단기슭에서부터

가슴에 울리는 시정의 파도소리
아서라 첫걸음에 서둘러 붓을 들면
천하절승 황홀경 못볼수도 있으리

정동찬

오를수록 아름다워

끝인가 올라서니
또 시작이구나
걸음마다 새 절경이
붓을 쥐고 놓지 않네

다소곳이 머리숙인
각시바위 수집게 웃고
매바위는 내려치며
하늘가로 날아오를듯

벼랑끝의 책바위 옛선비 놓고갔나
칠보구경 떠난채 상기 아니 돌아오나
금풍에
책장 번져지는 소리 들리는듯

오르는 봉이마다 새 절경이요
겹겹이 펼쳐지는 일만경치라
또 한굽이 올라서니
머리흰 미술가
화판우에 붓방아만 쥔고있네

아, 시로도 말로도 그림으로도
다 그려낼수 없는 산이 칠보산인가

오르고 또 오르면
그 높이에 못오르랴만
칠보산아 내 조국의 자랑아
네 아름다움의 그 절정어야
이 세상 그 누가 오를수 있으랴

전승일

칠보산의 단풍

산에산에 타는 단풍
깊은 골에 흐르는 단풍
동서남북 바라보니
일만산이 불이로다

봄 여름 다 좋지만
단풍철이 제일 좋아
이 세상 천만 색깔 다 버리고
붉게만 타는 칠보산의 가을

단풍빛에 물들어
옥계수도 붉은 물
바위들도 붉은 바위
이 가슴에도 천만 잎새 물들어 붉은 물 들어

수수천년 홀로 타던 칠보산의 단풍
하늘땅바다에 명승길 열려열려
인민의 가슴속에 불붙네
온 나라에 타네

주광남

흐린 날에도

박달령 바람타고
휘-휘- 구름 밀려와
이젠 그만
경치구경 못하는줄 알았더니

칠보석이 빛을 뿜나
칠색령룡 서리였나
물이라 푸른 수림이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그 자태
그냥 그대로 기묘한 총암절벽

선바위는 앉지 않고
앉은바위 눕지 않는
제나름의 천태만상
제나름의 아름다움
애기를 품에 안은 모성바위

주광일

어머니의 미소어린 얼굴빛도 보일듯

아니할 걱정 내 하였구나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흐린 날은 흐린날대로
칠보산엔 세상에 내어놓는 제 모습이 있네
아 천하절경 칠보산엔 빛이 있네

가까이 가지 말아

최충웅

오느이 가는이
정을 주며 바라보네
내칠보 바위동네 동구길에서
얼싸안은 부부바위

레문암 지나지나
백년해로 축복받고

멀리 전장으로 떠나갔던 정든님이란다
고향땅을 지키며 님을 그리던 새각시란다

가까이 가지 말아
가까이 가지 말아
삼년석달 기다려 만난 저 부부
점찍해 떨어질라

조약대 정각에 올라

정동찬

오를적엔 조약대
천길로 아슬하더니
올라서니 또 천길
만물상 붕이붕이
하늘끝에 닿았구나

구름타고 올라볼가
바람타고 날아볼가
외칠보 황홀경에 취해
아 더치는 탄성에
내 가슴 열리네

승전봉을 다치면
칠보구슬 와르르 쏟아질듯
월락봉을 흔들면

칠보비단 천만폭이 드리워질듯

건들바람이니
좌- 설레는 숲의 메아리
절벽에 부딪쳐
내칠보 외칠보 명산이 머리들며
소리소리 치누나

아 칠보산아
창공을 채우는
너의 소리
너의 황홀
한가슴에 안고보니
이제 더는 다른 산 다른 명승
더 볼 생각 없노라

해칠보

문기창

동해바다물결우에 배 띄워라 노저어라
배타고 산수구경 이 아니 흥이런가
잔잔한 바다는 명주바다라
네우에 해칠보 그림같이 비졌구나

산에 나는 산새도 물속에 날고
물에 나는 물새도 산우에 나네
하늘중천 붉은 해도 물속에 내렸으니
해칠보물결아 흔들리지 말아라

어랑단 무수단 기암절벽 병풍 백리
천태만상 일만경치 바다속 백리
어화둥둥 노래하자 동해명승 해칠보
어화둥둥 자랑하자 내 나라의 해칠보

아 천봉만봉이 하늘끝에 닿아
그 아름다움 하늘가에 끝나는가 했더니
아니구나 동해바다속에
또하나 칠보명산 솟아있구나

탐승길에서

최영화

이끌저끌 구슬물소리 나를 부르네

이산저산 탐승길 걸을수록 즐겁네

옛적에는 오솔길에 돌뿌리 걸쳐여
 칠보경치 보는 마음 흠어들어
 길없던 명산에 굽이굽이 명승길이라

내 꿈을 걷는듯 신선되어 걸어가는듯
 칠보산아 네 아름다움 더해주는 탐승길
 아, 이내 넋을 앗아가는 명산의 길이라

칠보산 새 전설

정동찬

은하수 물가에 홀로 앉아
 칠보산 선남소식 그리던 선녀
 칠월칠석 견우직녀 만날적마다
 님의 얼굴 그리며 가슴앓았네
 타고타던 그 소원 좋은 세월이 풀어줬네
 날개옷 입고서야 내리던 길로
 무수단 달문지나 별이 올랐네
 님의 나라 《광명성》 첫 별이 떴네

이제는 날개옷 없어도 좋아
 칠보의 땅우에 칠보의 하늘우에
 별이 놓아준 다리가 생겼으니
 구만장천 그 다리 타고 내릴래

이 세월에 생긴 칠보의 새 전설
 하늘나라선녀가 이야기하네
 달나라견우직녀 부러워하네
 아 이 세상이 다 아네

정이월 눈칠보

최영화

꽃도 지고 단풍도 지고
 눈이 내렸네
 하늘도 정이월이 하중아
 기암절벽에 흰돌꽃 피웠네
 락락장송에 흰솔꽃 피웠네

바라보면
 이산저산에
 백학무리 내려앉은듯
 어깨거른 설봉들은

눈바다에 높이 이는 멀기인듯
 바람아 부디 불지 말아
 기암절벽의 눈꽃단장 형클어질라

칠보눈가루에 티를 날릴라
 새들아 깃을 치며 날지 말아
 락락장송의 백솔꽃잎 떨어질라

설경의 명산아 백설의 명산아
 꽃칠보도 좋고
 단풍칠보도 좋지만
 정이월 하늘가에
 눈칠보가 제일경이로다

아 칠보눈경치에 반해
 내 늙음을 잃노라
 오늘의 이 설경을 못보았다면
 내 여생의 한이 되었으리

아름다와지고 또 아름다와지라

박호범

아름다와지고 또 아름다와지라
 내 사랑하는 칠보산아
 칠보단장 늠이여 칠보산이더냐
 금은보화 빛을 뿌려 칠보산이더냐

먼먼 세월부터 아름다움을 지니고있었어도
 세월의 비바람에 묻히어 부대끼며
 칠보칠색의 빛이 없던 너
 좋은 세월 만나 빛을 뿌리며 솟았구나

내칠보 굽이굽이
 외칠보 굽이굽이
 사람들의 물결은 구름처럼 흐르고
 해칠보 백사장을
 동해의 푸른 물이 씻고 또 씻거니

로동당의 해빛으로
 이름을 찾고
 얼굴을 찾아
 이 땅의 6대명산 인민의 명산
 내 나라의 자랑으로 되었으니

후대들에게 물려줄 내 나라의 재부
 아름다와지고 또 아름다와지라
 내 사랑하는 동해명승 칠보산아
 그 많은 전설 그 깊은 역사를 전하며
 칠보칠색의 채운을 하늘가에 날리며
 길이길이 너 한껏 아름다움을 펼치라

(주체 88. 2. 10)

은방울꽃다발

은방울꽃은 나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좋아하시던 꽃중의 하나인 은방울꽃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어린 시절 뜻깊은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38(1949)년 이른봄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은방울꽃다발을 올려 기쁨을 드리신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알고있는 이야기이다.

5~6월에야 흰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은방울꽃이 어떻게 계절을 앞당겨 이른봄에 피어났을까?

당시 비행장에 위대한 수령님을 마중나갔던 일군들과 환영군중들은 어리신 장군님께서 향기 그윽한 은방울꽃다발을 올리시는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기들은 모두 종이꽃을 들고있는데 장군님께서 계절을 앞당겨 핀 은방울꽃다발을 수령님께 올리시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후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이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어느덧 전설이 창조되었는데 사람들은 장군님께서 세월을 주름잡는 축지법을 쓰신다고 하였다.

해방된지 얼마 안되는 어느해 초봄, 어리신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대성산에 가신적이 있었다.

수령님께서 장군님과 함께 경치좋은 대성산의 수림속을 걸으시면서 곱게 핀 꽃들과 갓 잎이 피어난 나무들을 둘러보시며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해 말씀하시였다.

그러다가 발밑에 피어난 은방울꽃을 보시더니 《은방울꽃이 얼마나 고우냐? 이 꽃은 곱기도 하지만 향기도 그윽해서 참 좋은 꽃이란다.》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 꽃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신 어리신 장군님께서 은방울꽃을 정히 따가지고 오시여 트락에 심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꽃나무둘레에 하얀 차들을 주어다가 동그랗게 퍼놓으시고 하루에도 몇번이나 물을 주며 가꾸시였다.

마침내 은방울꽃이 피어난 어느날 이른아침이었다.

수령님께서 어리신 장군님과 함께 정원을 돌아보시다가 새벽이슬을 머금고 곱게 핀 은방울꽃을 보시였다. 은방울꽃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띠우시고 말

씀하시였다.

《우리 정일이야 끝내 피웠구나. 이 은방울꽃은 언제 보나 좋거든. 아름답고 향기롭고!...》

수령님께서 이날 조반을 잡수시면서도 은방울꽃을 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하여 밥맛이 난다시며 매우 기뻐하시였다.

장군님께서 그후에도 해마다 아름다운 은방울꽃을 피워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시곤하였다.

그러던 주체38(1949)년 어느 이른봄날이었다.

이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외국방문을 마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는 날이었다.

이른아침부터 비행장은 먼길에서 돌아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그들은 손에손마다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종이로 만든 꽃다발이어서 향기가 풍기지 않았다.

아직 팔짜기와 산봉우리에 있는 얼음이 채 녹지 않은 이른봄이어서 꽃이 피지 않는 계절이니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날은 날씨까지 흐려 몹시 쌀쌀하였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그윽한 꽃향기가 풍겨왔다. 점점 짙어지는 향긋한 꽃내에 사람들은 영문을 알수 없어 사방을 두리번거리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비행장에 나오신 어리신 장군님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안겨왔다.

장군님의 손에는 은방울꽃다발이 들려있었다. 바로 향기는 그 은방울꽃에서 풍겨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환영나온 군중들을 둘러보시였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다발을 든 환영군중은 말그대로 꽃바다를 이루고있었다.

장군님께서 드신 은방울꽃다발에서 풍기는 향기는 온 비행장을 뒤덮어 마치도 환영군중들이 종이꽃이 아니라 생화를 들고나온것만 같이 느껴졌다.

장군님께서 흐린 하늘을 한동안 올려다보시더니 구름과 구름사이에 파란 하늘이 보이자 그리로 은방울꽃 한송이를 뜯어 힘껏 올리던지시였다.

그이께서 던진 꽃송이는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도 같이 썩 하고 하늘로 날아올라갔다.

그러자 하늘에서 번개불이 번쩍하더니 복소리 같은 우뢰소리가 울리였다.

이와 함께 바람통이 터졌는지 구름이 왁와 한

쪽으로 밀려갔다.

맑게 개인 하늘에선 해빛이 밝은 광채를 뿌리었다.

삼시에 누리는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이때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인 하늘에 은빛 날개를 번쩍이며 수령님께서 타신 비행기가 나타났다.

수령님께서 비행기에서 내리시자 만세의 웨침은 하늘땅을 뒤흔들며 더 세차게 터져올랐다.

수령님께서 손을 높이 들어 군중들에게 인사를 보내주시었다.

장군님께서 은방울꽃다발을 안고 수령님께로 달려가시었다.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시고 정성껏 마련한 꽃다발을 드리시었다.

《이게 누구냐?!》

수령님께서 어리신 장군님을 대견하게 내려다보시며 꽃다발을 받아안으시었다.

《내가 은방울꽃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은방울꽃다발을 마련했구나.》

수령님께서 크게 웃으시며 환영군중들을 향해 아름다운 은방울꽃다발을 흔드시었다.

그러자 은방울꽃향기가 하늘땅에 차넘치고 어디선가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방금전까지 쌓여있었던 눈무지가 스르르 녹아 시내물이 되어 흐르고 땅에서는 김이 뭉게뭉게서려올랐다.

수령님께서 꽃다발을 흔드시는 모습을 멀리

서 바라보시던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님께서 조용히 뜻깊은 미소를 지으시었다.

수령님을 위하시는 장군님의 불같은 마음이 은방울꽃다발로 되어 세상사람들앞에 빛을 뿌리고 향기를 뿜고있다고 생각하니 눈물겹도록 기쁘시었다.

수령님을 맞이한 이 나라 하늘땅은 장군님께서 피우신 은방울꽃의 그윽한 향기로 차넘치고있었다.

후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장군님께서 은방울꽃을 피우실 때 있던 이런 사실을 덧붙여 말하곤하였다.

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외국방문을 떠나신 날부터 두달 남짓한동안 눈속에 파묻혔던 꽃뿌리를 화분에 떠올리고 이 방 저 방 해빛을 따라 화분을 옮겨가시며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어 키웠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신통히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으로 돌아오시는 그날 꽃망울들이 갑자기 부풀어오르더니 활짝 피어났다는것이였다.

초봄에 움이 트기 시작하여 5~6월경에야 꽃이 피는 은방울꽃이 어떻게 두달만에 그것도 수령님께서 돌아오시는 바로 그날에 피어났을까?

수령님에 대한 장군님의 지극한 효성이 그토록 진한 향기를 풍기는 은방울꽃을 뜻깊은 날에 피어나게 하였다고 사람들은 지금도 말하고있다.

김우경

가사

대흥단 감자음식 천하에 별미라네

최창근

여보소 벗님네들 두리상에 둘러앉아

우리고장 감자음식 들어보소

수령님 달게 드신 언감자국수

추억도 많다네 빨찌산국수

에헤 에헤 에헤요

오는 정 가는 정 향기넘치는

대흥단 특산물 천하에 별미라네

여보소 벗님네들 그 어디에 비기리오

장군님과 함께 나는 군감자맛을

그 사랑 빚어서 송편떡이요

그 은정 달여서 농마엿가락

에헤 에헤 에헤요

감자음식 만찬은 내고장 풍습

대흥단 장수식품 천하에 별미라네

여보소 벗님네들 감자농사 이끄시는

장군님 높으신 뜻 꽃피워가세

농사도 가공도 장훈을 불러

강성대국건설에서 큰몫을 하세

에헤 에헤 에헤요

흰쌀 내는 별방도 부러워하는

대흥단 감자음식 천하에 별미라네

보천보에서 외 1편

리찬영

지금은
맑고 높푸른 하늘
꽃물결 흐르는 거리

하지만
검은 구름 드리웠던
그때 그날처럼
어버이수령님
오늘에도
신들메를 푸시지 않으시고
가림 천기슭에 그냥 서계시네

이제는
쌍안경은 내리워도 되시련만
군모를 벗어드신채
근엄하신 안광으로
더 멀리만 바라보시네

아, 바라보시는곳은 어데일가
그 길로만 억세게 걸어가리라
우리 장군님 진두에서 이끄시는
붉은기 높이 들고 나가는 길로

꺼지지 않은 보천보해볼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인민의 환희와 감격 안을수록
억만금 재부보다
천만 가슴 더 울렁이게 하는
저 신들메 신들메...

지금은
맑고 높푸른 하늘
꽃물결 흐르는 거리

하지만 총진격의 길을 결속하는
전투와 승리의 길이 앞에 있어
우리들 가슴가슴엔
저 신들메가 더 뜨겁게 새겨지나니

언제나 **김정일**장군님 높이 모시고
영원히 따르는 한길에서
더 억세게만 걸어가리라고
우리들도 신들메를
더 든든히 조이노라

백발지옥

한자옥 또 한자옥
마음속으로 세여보며
나는 걷는다

황철나무 지휘처로부터
놈들의 총구가 번뜩이는
주재소 저 포대까지는
겨우 백 발자욱

아, 어버이수령님
이 위험천만한 지점까지
선평 나서시였으니
그래서 더더욱 수령님 생각
뜨겁게 젖어오는 백 발자욱

한자옥 또 한자옥
세여보는 마음속에
문득 가슴치는 뜨거운

우리의 장군님
결연히 나서시였던 판문점
오늘의 첨예한 대결장에 대한 생각

이처럼
이처럼 준엄한 결전장에
어제는 우리 수령님 한몸 내대시여
내 조국을 찾아주시고
오늘은 우리 장군님 한몸 내대시여
내 조국을 지켜주시니
한자옥 한자옥
심장으로 세여보는 결사의 백 발자욱

내 조국을 어떻게 찾았으며
우리의 행복,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수호되는가를
다시금 절감하는 백 발자욱

세어보고 또 세어보며
 잠간이면 가닿는 거리건만
 수령님 넘고 넘어오신
 결전의 언덕들이 밝혀오고
 장군님 헤쳐오신 전선길이 어려와
 마음속에 뜨거운 자욱자욱

한자욱 한자욱
 이 한몸 방패로 먼저 내대고
 보답의 한생을 다 걸어도 못다걸을
 먼길이 앞에 있어
 한자욱 한자욱
 맹세로 불타는 신념의 백 발자욱...

당원이 서있는곳이면 외 2편

한창우

깨어진 벽돌 한장 없었다
 끊어진 철근 한토막 없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락원의 구내길을 찾으셨던 그때에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전쟁의 그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열명당원들의 세포회의장을 찾으셨던 그때
 적기의 폭격에 숨죽은 공장구내에는
 재가루만 날리고있었다

변변한 한대의 기대도
 용선로도 없었던
 엄혹한 시련의 그 나날
 수령님께서는 단 하나
 당원들의 심장을 믿으시였다

믿으시였다
 그 심장들에선
 붉은 쇠물이 폭포치고
 수류탄이 쏟아지리라는것을
 양수기가 무어져 돌아가리라는것을

오, 당원이 서있는곳이면
 하늘이 무너져내리고
 땅이 꺼져내려도
 드팀없이 드팀없이
 당정책이 관철되리라는것을
 수령님께서 굳게 믿으시기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거니

하기에
 인민의 신념
 조선로동계급의 배심이 당당한
 락원의 그 목소리가
 오늘도 우리 가슴 울리고있나니

오 당원
 당원이 서있는곳이면
 오늘도 어디서나 울리고있나니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기고
 불가능이란 말자체를 모르며
 기적을 안아오는 창조의 메아리가

통일의 축포도 내가 소리라

얼마나 감격에 넘쳐 터치였던가
 경축의 꽃바다 파도쳐 설레이던
 불야성 이룬 대동강변에서
 축포를 쏘고쏘던 최전방의 이 병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모셔
 천만 장병들의 열망 다 꽃피우고
김일성민족의 소원 다 이룬 그밤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담아 터치던 축포
 천발이던가 만발이던가

장군님 따라 엄혹한 시련의 광풍을 이겨온
 조선의 밝은 웃음 만리창공에 닿은듯

전선길 천만리에 울리고울린
 병사들의 꽃다발이 하나로 피어난듯
 하늘도 온통 신비로운 꽃천지
 땅도 온통 눈부신 불꽃바다의 절경

오 축포 축포가 올랐다
 한걸의 야전복을 입으시고
 만걸 역경을 다 헤치시며
 사회주의 우리 집을 지켜주신 그 고마움
 땅우에 피운 꽃으로는 모자라
 하늘가득 피워드린 감사의 꽃다발...

쏘자 전우들이여
 그날에 다 터치지 못했던 병사의 열망을

오늘도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했다
그 보고를 앞당겨드릴
천만 병사의 통일의지를 담아 한발
그 길우에 나의 피 방울방울
승리의 꽃보라로 뿌릴 맹세를 담아 또 한발

우리 장군님
온 민족의 통일의지를 한몸에 지니시고
그날을 향해 걷고 걸으시는
바람찬 전선길 더는 걷지 않으시게
한발 또 한발...

병사의 마음속에 맹세의 축포 재우고 재웠나니

췌!
이것은 번뜩이는 총구와 포신들에서
결사의 맹세로 날아오른 천만 심장들이
승리의 환호를 안아올 기다림의 명령

오 위대한 장군님 우러러
통일경축의 축포도 내가 쏘리니
분렬을 끝장낸 마지막세대
통일조선의 첫세대의 그 환희 그 랑만이
벌써 내 말속에 통일축포로 터져오른다
천발만발 끝없이 터져오른다

분계선 감나무밑에서

순찰의 발걸음 잠시 멈추고
내 지금 서있노라
민족분렬의 분기점
비무장지대의 옛마을 트랙에
쇠줄로 감긴 한그루 감나무앞에

그 몇몇해 감꽃은 피고 또 지고
그 몇몇해 감이 익고 또 떨어지여
떠나간 주인을 불러보며
애타게 기다렸더나

쇠줄로 감았던 장독밑에서
감나무 한그루 자라고자라
장독을 조여뒀던 그 쇠줄이
지금은 감나무를 조이고있다

기구한 운명의 감나무여
바로 예가 아니냐
남북이 갈라져 장장 반세기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초가집 감나무트락에
상봉의 꿈을 안고 달려오는곳이

사흘이면 돌아온다고
고무신을 사온다고
서울로 떠나갔던 나의 할아버지
손자가 총을 메고
초소에 서있는 오늘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그 사연이
감나무아지마다 어려있구나

만나고싶은 그 마음
안기고싶은 그 마음에도

민족분렬의 모진 아픔이
원한의 사슬처럼 감겨있나니

이 지구상에 이런 감나무 다시 없듯이
이보다 더 큰 분렬의 고통
이보다 더 참혹한 비극이
이 세상 그 어디 또 있으랴

말하라 감나무여
조이여 풀어뜯는
원한의 쇠줄을 끊어줄 손길
구원의 그 손길
너는 기다려 그 몇몇해이더나

가고싶고 오고싶고
만나고싶은 통일념원에
심장의 피가 끓고
으드득 으드득
총가목을 거머쥐는 손탁안에서
분노가 우는 원한의 군사분계선

너는 말해주나
저 감나무에 감긴 쇠줄을
세월의 눈비로 끊을수 없고
말과 글로도 끊을수 없고
눈물과 한숨으로는 더욱 끊을수 없음을

그렇다 너는 말해주는구나
오직 장군님의 통일의지를
불로 터치고
번개로 터칠
병사의 총대로만 끊을수 있음을

명산풍경의 참신한 시적탐구를 두고

김창조

최근 우리 창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산수련시 《내 나라의 명산-칠보산》은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명승 칠보산에 대한 참신한 시적형상으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론성이 강한 정치적성격을 띠는 시와 교훈적인 의의를 가지는 시도 내놓아야 하며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풍경시도 내놓아야 한다. 시에서 인간생활을 떠나 순수 자연을 찬미하는것은 백해무익하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거기에 비친 인간세계를 깊이있게 드러내는것은 좋은것이다.》

련시는 풍경시문학의 체모를 갖추고 칠보산의 자연풍경에 대한 시적탐구를 깊이있게 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련시를 읽을수록 우리 조국의 명산중의 하나인 칠보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안겨오는것만 같다.

어랑단기슭에 넘치는 파도소리마냥 탐승길 첫 시작부터 시정은 가슴을 울린다.

련시에서는 구체적인 화폭이 서정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펼쳐져 황홀경에 휩싸이게 한다.

걸음마다 새 절경이 그야말로 시인으로 하여금 무엇부터 어떻게 그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 여기저기 펼쳐져있어 명산의 절승경개 하나 하나가 서로서로 제 모습을 자랑하는듯싶다.

다소곳이 머리숙이고 수집계 옷는것만 같은 각시바위, 금방이라도 날개를 펼치며 날아오를것만 같은 매바위, 가을바람에 책장 번져지는 소리 들려오는듯한 벼랑끝의 책바위.

오를수록 겹겹이 펼쳐지는 새 절경에 취한 나머지 화관의 구도도 잡지 못하고 붓방아만 짚고 있는 머리 흰 미술가의 형상은 칠보산의 아름다운 풍경의 극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다.

한굽이 돌아들면 옥계수도 바위도 붉게만 물들이는 단풍이 반겨맞고 또 한굽이 돌아들면 모성 바위며 부부바위가 다가든다.

조약대에 올라서니 만물상의 봉이들이 하늘끝에 닿아 그 어느 봉우리들이든 다치면 칠보구슬이 쏟아지고 칠보비단이 드리워질듯하다.

산은 산대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바다는 또 제나름의 특유한 모습을 보여준다.

봄, 여름도 좋고 단풍든 가을도 좋지만 정이월의 눈칠보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동하고 선명한 풍경의 화폭을 타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절경우에서 부럼없는 생활을 향유하는 우리 인민의 행복상이 자연스럽게 안겨온다.

칠보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단편적이면서도 세 부적으로 그리고 시대상이 안겨오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시는 읽을수록 칠보산의 그 모든 절승경개를 실지로 모두 부감하는 탐승객이 된것만 같다. 하여 마음이 상쾌해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더욱 뜨겁게 가지게 된다.

우선 시를 읽고나면 끝없이 아름다운 칠보산절경의 화폭속에서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마음쓰시며 칠보산을 새롭게 꾸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이 우렁이 안겨온다.

시 《탐승길에서》(최영화), 《칠보산 새 전설》(정동찬), 《아름다와지고 또 아름다와지라》(박호범) 등의 시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뜨거운 사랑에 대한 찬양의 감정이 풍경화폭의 서정속에서 은근히 울려나오고 있다.

이팔저팔 구슬물소리 나를 부르네
이산저산 탐승길 걸을수록 즐겁네

옛적에는 오솔길에 돌뿌리 걸쳐여
칠보경치 보는 마음 흠어져더니

길없던 명산에 굽이굽이 명승길이라
내 꿈속을 걷는듯 신선되여 걸어가는데

칠보산아 네 아름다움 더해주는 탐승길
아, 이내 녀을 앗아가는 명신의 길이로다

-시 《탐승길에서》-

그 옛날같으면 같이 없어 돌뿌리에 걸쳐여 경치구경이 흠어지던 칠보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만가지 경치를 한눈에 그리고 아무런 불편도 없이 볼수 있는 탐승길이 생겼으니 어찌 보이고 들리는 모든것이 즐겁고 기쁘지 않으랴. 그로 하여 칠보산의 절경은 볼수록, 오를수록 더욱 아름답게만 느껴지는것이다.

탐승길에서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숭고한 감정은 인민을 위해 칠보산을 꾸려주신 우리 장군

님의 위대성을 정치성이 생경한 문장이나 열렬하고 격조높은 시적표현이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내고있다.

시 《칠보산 새 전설》에서는 선녀들만이 오르고 내리던 칠보산에 우리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선남선녀들이 오르고있는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을 걱정애 넘친 서정으로 노래하고있다. 하여 시는 인민이 명승, 인민의 탐승길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송축과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심이 풍경화폭속에서 뜨겁게 울리고있다.

날개옷이 없어도 이제는 칠보산 선남도 만나게 되었다는 《하늘나라 선녀》가 전하는 칠보의 새 전설은 참말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인민의 무한한 행복의 세계를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하기에 시 《아름다와지고 또 아름다와지라》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전설, 사랑의 역사를 전하며 내 나라의 명산으로 길이길이 아름다움을 한껏 펼치라는 사상주제적내용이 격조높이 토로되고있다.

먼먼 세월부터 아름다움을 지니고있었어도
세월의 비바람에 묻히여 부대끼며
칠보칠색의 빛이 없던 너
좋은 세월 만나 빛을 뿌리며 솟았구나

...

로동당의 해빛으로
이름을 찾고
얼굴을 찾아
이 땅의 6대명산 인민의 명산
내 나라의 자랑으로 되었으니

후대들에게 물려줄 내 나라의 재부
아름다와지고 또 아름다와지라
내 사랑하는 동해명승 칠보산아

...

진정 애국, 애족, 애민의 리념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모든 기쁨과 행복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태고부터 아름다움을 지니고있었어도 빛이 없었던 칠보산이 인민의 명산, 내 나라의 자랑으로 높이 솟아 아름다움을 펼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시에서는 련시의 총체적인 사상이 명쾌하게 밝혀지고있을뿐아니라 절승의 칠보산과 더불어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 새 역사를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며 끝없이 아름다와지라는 정서적호소로 승화된것으로 하여 시의 사상예술적내용을 보다 풍

부히 하고 인식교양적의의를 비상이 높이고있다.

다음으로 련시에서는 풍경화폭을 통하여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는 언어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민족적정서가 짙게 흘러나오고있다.

거의 모든 시들에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과 기질이 풍경화폭의 구체적인 형상에서 깊이 있고 풍부하게, 진실하고 생동하게 우러나오고있다.

특히 시 《가까이 가지 말아》(최충웅)에서 부부바위에 대한 시적형상은 예로부터 정의롭고 의리를 귀중히 여기며 조국강토를 지켜 한몸 바쳐온 우리 인민의 애국적감정, 민족적 풍습과 기질, 부부간의 깊은 정을 한껏 느끼게 하고있다. 시에서 활용된 《바위동네》, 《동구길》, 《부부바위》, 《백년해로》, 《정든님》, 《새각시》 등의 어휘들은 우리 인민에게 친숙해진 언어표현들로서 민족적인 정서를 잘 살리고있다.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정서와 근면성, 용감성을 지닌 민족으로서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보게 된다.

시 《오를수록 아름다워》(전승일)에서의 《각시바위》, 《매바위》, 《책바위》, 《옛선비》, 《금풍》 등을 비롯하여 시전반에서 찾아볼수 있는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언어표현들이 다 그러하다.

그 모든 언어표현들이 감칠맛을 돋우고 화폭속에 시대정신이 결합되어 시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다같이 보장하고있다.

련시에서는 자연풍경을 형상해내는데서 새롭고 특색있는 탐구도 보여주고있다.

시 《해칠보》(문기창)에서는 잔잔한 바다수면위에 비낀 해칠보의 그림같은 풍경을 특색있게 형상하였다.

...

잔잔한 바다는 명주바다라
네우에 해칠보 그림같이 비졌구나

산에 나는 산새도 물속에 날고
물에 나는 물새도 산우에 나네
하늘중천 붉은 해도 물속에 내렸으니
해칠보 물결아 흔들리지 말아라

어량단 무수단 기암절벽 병풍 백리
천태만상 일만경치 바다속 백리

...

시에서는 풍경도 물속에 있고 서정적주인공도 바다우 풍경의 중심에 있다. 이것은 종전의 풍경시들에서 볼수 없었던 이채로운 풍경회화이다. 바다물면우에 비낀 풍경에 대한 회화로 하여 시는 형상창조에서 특색있는 탐구를 보여주고있다.

시 《칠보산 새 전설》에서 《〈광명성〉 첫별》이라는 표현은 또 얼마나 발견있는 표현인가. 풍경시에 대한 파악과 깊은 탐구가 없이 나올수 없는 표현이다. 풍경시의 격에 어울리게 자연의 대상인 별로 상징화하면서도 그 의미를 대뜸 짐작하게 하고있다.

런시적구성을 갖춘것도 좋은것이라고 본다.

런시는 전반적으로 볼 때 순차적서정구조의 형식으로 기승전결을 보장하고있다.

《서둘러 붓을 들면》(정동찬)에서 시적정황이 제시되고 《오를수록 아름다워》, 《칠보산의 단풍》(주광남) 등의 시들에서 서정이 발생되면서 서정발전의 디딤돌로 되게 꼭 맞물려있다.

《흐린날에도》(주광일), 《가까이 가지 말아》, 《조약대 정각에 올라》(정동찬), 《해칠보》 등의 시들에서 칠보산의 개개의 풍경에 대한 아름다움이 구체적으로 노래되면서 서정이 승화되고있다.

《탐승길에서》, 《칠보산 새 전설》, 《정이월 눈칠보》(최영화)에서는 명승에 대한 환희와 걱정이 사상적내용과 함께 융합되어 웅심깊게 토로되며 전반적런시의 절정을 조성하고있다.

마지막시 《아름다와지고 또 아름다와지라》는 런시의 사상적내용을 밝히는것과 함께 시의 절구로 되어 시적계기에서 조성되기 시작한 아름다움

의 감정을 끌어올려 시의 정수적인 사상감정을 여운있게 울려주고있다.

런시는 풍경을 형상함에 있어서 고정된 자리에서의 정적인 풍경형상이 아니라 부단한 이동이 계속되는 탐승과정에서의 동적인 풍경형상으로 마치 칠보산을 한바퀴 돌아보는것처럼 립체감이 나게 형상함으로써 칠보산의 자연풍경을 현실감이 나게 그려냈다.

총체적으로 런시에서는 내 나라의 명산 칠보산이 어떻게 아름답고 또 빛나는가를 생동한 풍경화폭속에서 웅심깊게 구가하고있다.

런시는 칠보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참신한 시적탐구로 하여 정서적견인력이 강한 작품으로 되었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걷고 걸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을 빛내시며 오늘도 강성대국건설의 진두에서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을 마련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세상에 다시 솟아 빛나는 칠보산과 함께 우리 조국의 산천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와질것인가.

그속에서 보다 그윽히 노래될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는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성하게 장식할것이다.

명언해설

《사 랑 이 있 어 야 증 오 가 있 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은 조국과 인민,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원쑤를 미워할수 있다는 깊은 뜻을 담고있다.

사랑과 증오는 서로 상반되면서도 밀접히 연관되어있는 사상감정이다.

일반적으로 사랑이 어떤 대상을 귀중히 여기며 사소한 가식도 없이 진심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감정이라면 증오는 사랑하는 대상을 침해하는것을 미워하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것을 무한히 사랑하며 그것을 해치려드는것을 끝없이 미워하게 된다.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심정이 없다면 그것을 해치려드는것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날수 없다.

사랑이 열렬하면 열렬한것만큼 그것을 침해하는것에 대한 증오심과 격분이 강해진다.

사랑중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다. 자기 조국과 인민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원쑤에 대한 증오심이 나올수 없다.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할 때만이 원쑤를 끝없이 증오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리수복영웅은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였기때문에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적화구를 가슴으로 막아 부대의 승리를 보장하는 영웅적위훈을 세울수 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더욱 소중히 키워 사회주의조국을 압살하려는 원쑤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한다.

장군님과 산천

정예남

그이의 뒤를 따른것은

정적이 드리운
기나긴 복도...
그이께서 걸으시는
복도의 폭은 너무도 좁았다
마치도 신천의
어느 한 골목길인듯

여울져 흐르는
신천의 시내물처럼
복도는 길었고
강물을 막아선 동쪽처럼
층계는 휘여들고...

그이께서
복도가 아닌 마을길을
애국의 넋이 살아있는 신천땅을
혼자 걸으시지 않으셨다

아득히 흘러간 학생시절
모시고 오셨던 수령님과
오늘도 함께 걸으시는가
수령님 못잊으시던 신천사람들을
여기서 다시 보신다

명절에는 연 올리고
가을이면 밤송이를 주으며
फल을 웃음으로 깨치던 아이들이
저 벽면에 사진이 되고
신천의 피의 교훈 잊지 말자는
구호가 되였는가
미제원쑤의 총창에 찢리면서도

수령님 만세를 부른 그 애국자들이
지금도 원쑤와 싸우고있다

이 땅에 세월은 흘렀건만
아직도 사진속에
동생을 업은 그날의 소녀가
이렇게 원한을 품은 신천이
원쑤들이 매장한 흙속에
허리를 못펴고있거니...

그이께서는 혼자 걸으시지 않았다
몇명의 수원들만 뒤따른것이 아니었다
신천을 못잊으시던
아버이수령님과 함께 걸으셨고
분노한 온 조선과 함께 걸으셨다

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 혁명무력의 전부이시기에
그이의 뒤를 따른것은
미제를 징벌할
조선인민군 룡해공군 대오가 아니었던가

오오, 그날 그이를 따라
박물관의 기나긴 복도로는
승리로 신천의 원한을 갚을
멸적의 땅크부대가 굴러갔다
이 좁은 복도로
우리의 용감한 매들이 날았다
천만의 일당백
철의 대오가 굽이쳐갔다

만나주시다

흘러가던 구름도
눈물을 휘뿌리고
한여름에 퍼붓는 소나기도
복수의 날창으로 꽃핀다는 련꽃봉앞에
새벽부터 그날의 아이가 서있었다
머리흰 반백이 되어...

잔디마저 날을 세운
한치 땅밑에도 그날의 아이
꽃이 웃는 땅우에도 그날의 아이
장군님을 기다려
점도록 서있는 주상원강사

화약창고에서 살아남은 그만이
꽃다발을 안고 기다려야 하는가

그이께서 오신줄 알았다면
백둘어린이들도, 사백어머니들도
땅을 차고 일어섰겠건만
아, 교양마당 하나 사이두고
장군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고
그 말 한마디 왜 못하는가

피묻은 창문넘어
복수를 우리에게 부탁하며
미제를 향해 불사신으로 일어서던 그들이
땅 한겹이 무엇이라고
우리 여기 있다는 말 한마디 왜 못하는가

장군님의 품에 안긴
그날의 아이
그는 울고싶었다
하지만 목이 메여 울지 못했다

이미 아이적에 눈물이 말라버린
오늘의 강사
그이품에 흘러야 할
뜨거운 눈물이
그만 아이적 말이 되었다
《아버지!-》

아이적 더운 숨결처럼
그이의 가슴에 마쳐오는 그 목소리
우리 장군님께선
련꽃봉앞에서만 들으시는가

밤나무에 매미 우는 여름에도
끓는 하늘을 열कु는
원한의 찬 기운이 오늘도 내뿜기는
방공호의 작은 피창으로부터

그이께선 떠나신다
오실 때처럼 소문없이
가실 때도 소문없이
하건만
가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알았다

련꽃봉의 그 마음을
한가슴에 안고
주상원, 움직이는 증오
살아있는 그날의 아이는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서리 내렸던가
이 한순간에 반백이 된듯

아, 련꽃봉에 오신 장군님
강사를 한품에 안아주실 때
그이께선 련꽃봉의
그 모든 아이들과 어머니들
신천의 그 모든 무고한 인민들을
다 만나주시었다

아버지

그이는 그 목소리 들으시는가
《아버지!-》

콩크리트담벽을 달구는 화염우에
미제침략자가 덧엮은 총구밑에서
소년, 그가 기여나온 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부르던 아버지-

원췌에게 부모를 다 잃은 그가
성에깁 들길에 나섰던 그날로부터
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몸은 행복의 요람에 안겨자랐어도
마음은 그 몇백몇천번
불러불러 아버지-

아, 아버지란
그 한마디는 짧아도
그 한마디를 부르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반세기
머리에 서리내린 한생이
무겁게 실려있었더라!

오늘도 여기 계시다

머나먼 전선길을
또다시 이어가시는 그이
함께 가고픈 신천사람들의 마음처럼
승용차의 차바퀴엔
흙, 신천의 흙이 묻어있었다

그날의 아이,
오늘의 강사도 따라서고
하얀 식탁보위에
날마다 차레지는 더운 우유가
우리 삶의 전부인줄로 알고있는
유치원 철부지들도 달려가고...

이 길이 아니던가
평양에서 내려오고
온 나라에서 찾아오는
움직이는 복수의 교실
신천견학버스들이 줄지은
길가의 우리 집-

내 어릴적부터 그 배스를 세여보며
섬세기를 배운 그 마음도
이해따라 더 찾아오는 온 나라의 마음들도
모두 따라서는 이 길로
그이는 떠나가시였다
이렇게 전선길 이어가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선
신천땅을 떠나지 않으셨다
련꽃봉앞에서 아버지가 되시여
강사를 품에 안고 찍으신 사진
그속에 남기신 거룩한 모습이어

우리의 장군님께선
신천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 소박한 한장의 사진속에
자신의 모습 영원히 두고가셨거니

사람들이여, 잊지 마시라
승리만이 신천의 복수이고
미제원췌와는 끝까지 싸워
기어이 이겨야 한다는 철리를
조선의 신념으로 새겨주시며
언제나 신천땅에
우리의 장군님 계신다는것을...

행복에 대한 시

채동규

오, 나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노라
다른곳도 아닌 신천박물관에서
바로 행복에 대한 시를 쓰리라고는

그러나 어찌하랴
진렬장에 놓여있는
《복》자를 새긴 베개 하나
아프도록 내 눈가에 비껴드는것을

아마도 갓 결혼의 성례를 치른
신혼부부의 베개이리라
사랑의 꽃정으로 밤이 짧던
새살림의 꿈무지개 구만리로 비끼우던

아니면 순박하고 근면한
농민부부의 가산일수도 있으리라
제 나라 제 땅에서 마음껏 농사지으며
만가지 복 다 누리며 살아보자고
송진내 싱그러운 장농속에 장만해두었던

내 타는 눈길 휘둘러
이 베개의 주인들을 찾노라
살인마들이 배를 갈라 태아까지 탕쳐죽인
저 임신부인가

미제가 소꼬리에 매여달아 사지를 찢어죽인
저 모범농민인가

우리 집에도 있노라
《복》자를 수놓은 저런 베개
하나 그우에 평온과 안식이 깃든적 있던가
미제의 새 전쟁 광증으로 하여
나는 선잠을 깨여 분노의 시도 썼고
자리를 차며 적위대훈련장으로 달려갔다

아, 조선인민의 모든 불행의 장본인
침략자미제가 이 땅에 있는 한
참다운 행복 영원한 평화란 있을수 없음을
만천하에 증언하는
피묻든 베개
불길에 그슬린 베개여!

행복이란 곧 승리라는 말이거늘
행복의 원췌 평화의 교란자들을
지구상에서 깡그리 소탕한 그날
내 잠들지 못한 신천평흔들의 머리말에
베개를 편히 교여주고
행복에 대한 시를 자장가마냥 읊어주리라!

덕천풍경

박해란

북창역에 잠시 머물렀던 열차는 종착역인 덕천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였다. 가락맞게 울리는 열차의 동음은 그곳으로 현실체험을 떠나는 나의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생소한 고장에 가서 때 좋은 소설감을 찾아볼 수 있을까?)

초행길이어서인지 작품에 대한 근심이 덜어지지 않는다. 내 어깨우에 지워진 무거운 창작과제의 짐까지 견어시고 달리는 열차의 차칸에 앉아 있느라니 한번도 가보지 못한 덕천땅이 내나름대로 안겨왔다. 이름 그대로 그곳엔 언덕과 내가 많았던데...

나의 생각을 확인해주기라도 하는듯 차창밖으로는 대동강의 지류가 철길을 따라 연연히 흐르고있었다. 소한추위에도 얼지 않은 대동강의 푸른 물줄기를 바라보느라니 문득 덕천도 먼 고장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자 머리속에 피곳 《덕천이 멀다하게》라는 성구가 떠올랐다. 정작 덕천땅을 가까이하고보니 그 의미가 묘연해졌다.

내결에서는 아까부터 몸매 다부진 늙은이가 덕천자랑으로 차칸안의 화제를 이끌어가고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 성구의 유래를 물었다. 반백의 머리를 바투 깎아서인지 나이보다 젊어보이는 아바이는 나의 물음에 허허 웃더니 청높은 목소리로 입을 여는것이였다.

《글쎄 옛날에야 우리 덕천이 정말 볼데 없었지요. 명산으로 꼽을만한 풍치도 없고 특산물 하나 변변한것이 없었지요. 오죽하면 외지로 시집간 새각시가 제 새서방을 데리고 친정집나들이를 오다가 되돌아갔겠소.》

누군가 그 이야기의 뜻을 물었다.

《글쎄 덕천땅을 코앞에 두고 다리섬을 하던 새서방이 새각시더러 하는 말이 <이제 처가집에 가면 소반다리 부러지도록 사위상을 차려달래야겠다.> 고 하는게 아니겠소.

새각시는 깜짝 놀랐지요. 잔치상에 닭 한마리 올려놓지 못했던 친정집에서 소반다리 부러지도록 차릴것이 있겠느냐고. 생각끝에 새각시는 푸념을 하기 시작했지요. 덕천까지 가자면 아직도 온 길보다 더 먼데 다리가 아파 더는 가지 못하겠노라고말이요. 잔치날에는 가마 탄 새각시가 너무 고와 덕천이 멀었던지 가까웠던지 짐작할수 없었던 새서방은 그의 말을 곧이듣고 <덕천이 멀다하게란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면서 덕천

쪽을 멀거니 쳐다보기만 했지요. 그리고는 입맛을 켜쩍 다시다가 새각시와 함께 오던 길을 되돌아가고말았다우.》

차칸이 들썩하게 웃음소리가 울려퍼졌다.

내 맞은편의자에 앉아있는 푸른색 목도리를 감은 서른살안팎의 녀인만이 차분히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아바이는 말을 이었다.

《제고장을 떠난 사람도 쉬이 발을 들여놓지 않던 덕천땅이 인제는 몰라보게 달라졌수다. 전쟁때까지만 해도 자그마한 달구지수리소밖에 없던 우리 고장에 전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크고작은 공장은 물론 수력발전소까지 지어주셨지요. 이처럼 수령님의 사랑이 자욱자욱 깃들어있는 우리 공장에 지난해에는 우리 장군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겠소. 흰눈을 맞으시면서말이요.》

모두가 승업한 생각에 잠겨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감개에 잠긴 차칸안을 둘러보았다. 푸른색목소리를 감은 녀인은 여전히 생각에 빠진채 차창밖을 바라보고있었다. 녀성적인 호기심이 나를 부촉했다.

《어디에서 떠난 길이나요? 집에 애들이랑 있겠는데...》

《풍서에서요. 집엔 총각애가 있구요.》

《량강도 풍서말이에요?》

그는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일뿐이였다.

《그 먼데서요? 긴요한 출장용무라도...》

나는 살림살이와 아이들을 매번 남편에게 맡기고 취재길을 떠나군하는 나의 처지를 생각하며 녀인에게 물었다.

《아이, 저야 뭐...》

녀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우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리고는 또다시 차창밖으로 하염없는 눈길을 보내는것이였다.

녀인은 그 어떤 회오에 모대기는양 얼굴에는 무거운 표정이 어려있었다. 심중의 문을 꼭 닫아매고 차창밖에 온 넋을 쏟고있는 녀인의 모습은 나에게 모성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혹시 풍서땅에 두고온 아들생각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것일까? 나는 상념의 한끝을 멀리 풍서땅에 매여놓고 마음을 적시고있는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정든 집을 떠나 열차에 몸을 싣고 나면 생각이 깊어지는 때가 종종 있는것이다.

차칸안에서는 여전히 덕천아바이가 분위기를

돈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12월 자기네 공장을 찾아주셨던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자 차칸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흥성이었다. 주물직장의 어느 작업반장은 간밤에 장군님을 꿈속에서 뵈었는데 글세 아침에 정말로 그이께서 주물직장에 들어서시더라는것이였다.

《야, 거 참 신통한데.》

누군가의 탄성에 이어 애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장군님께서 조립직장에 들리셨을 때에는 눈이 내리던 하늘에서 해가 솟아올라 천정유리로 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게 아니겠습니까.

해빛이 밝게 흘러드는 직장구내에 가없이 펼쳐진 기계바다를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이 공장로동계급들이 어려운 행군을 하면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기대들을 손상됨이 없이 그대로 보존하고있는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 기계바다에서 기계의 교향곡이 울려나올 때 공장을 찾아주시겠다고 하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흥분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덕천아바이가 꼬리를 달았다. 지금은 공장에 기대공도 모자라고 기능공들도 많이 부족하지만 자기네공장을 강성대국건설의 첫 돌격선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모두가 떨쳐나섰다는것이다. 년로보장자들이 공장으로 나오고 집에 들어갔던 가정부인들이 다시 기대를 잡았다고 자랑보파리를 풀어놓는 아바이의 말이였다.

화제에도 끼여들지 않고 내내 말없이 생각에 골몰해있던 풍서녀인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마음속에 고여있던 격정이 심중의 문을 열고 솟구쳐오른듯하다. 도대체 그의 심중을 그러잡고있는 사연은 무엇일까? 직업적인 호기심으로 그에게 눈길을 돌렸으나 말문을 열수 없었다.

하늘에서 흰눈송이들이 소리없이 내려와 창유리에 차분히 달라붙는다. 하얀 눈꽃이 내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들의 공장에 가셨던 날에도 눈이 내렸었다지. 그이께서 다녀가신후 공장은 어떻게 변모되고있을가.··· 마음은 조금해졌다. 덕천으로 달리는 마음들을 싣고 열차는 드디어 종착역에 다달았다.

《붕-》

기적소리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파란색 목도리를 감은 녀인도 상념에서 벗어난듯싶다. 어느새 승강대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흠에 내려서기 시작했다. 맨나중예야 자리에서 일어난 녀인은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천천히 무릎우에 올려놓았던 려행용손가방을 들더니 승강대로 향했다. 나도 그의 뒤를 따라 승강대에 나섰다. 녀인이

승강구를 내릴 때였다. 역홀에 물켜서있던 여러 문명의 사람들이 승강구로 달음쳐왔다.

《언니!》

자주빋 솜옷에 흰 목도리를 두른 얼굴이 가름한 처녀가 풍서녀인을 얼싸안으며 그의 손에 꽃한송이 들려주었다. 마중나온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

나는 뜻밖의 광경에 영문을 알수 없어 그저 녀인을 쳐다보고만있었다. 그러니 이 녀인은 상념의 실오리를 여기 덕천땅에 풀어놓고있었던것이 아닌가.

그리웁끝에 오는 상봉이란 얼마나 반가운것인가.

《순희, 난 네 편지를 받고 온밤 울었어. 아버지 장군님을 기대에 모셨던 내가 막 부럽기도 하구 또 기대를 너에게 맡기고 홀 떠났던 내가 민망스럽기도 해서말이다.》

《아이참, 언니두··· 기능공으로 손꼽히던 언니가 다시 우리 기대에 돌아왔으니 장군님께서도 아시면 무척 기뻐하실거예요.》

행복감에 잠겨 웃음짓는 녀인의 눈에는 이쁨할 수 없는 공지가 어려있었다.

《반장동지.》

녀인은 작업복차림의 아바이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애녀석들은 어드메 말기고 왔나? 애들근심은 말아. 이제 추위가 지나거들랑 이사집을 실어오자꾸나.》

《반장동지, 이사집은 벌써 다 싸놓았어요. 애아버지가 이사집을 싣구 애들이랑 함께 인차 도착할거예요. 덕천사람만 고향 가고 풍서내기는 뭐 덕천땅을 멀다하니 바라만보고 있어야 하겠는가고 하면서 오히려 제쪽에서 더 극성을 부리는게 아니겠어요.》

윤패한 웃음소리가 눈발속으로 흩어져갔다.

《그 사람 정말 팬찮으이.》

《야, 아저씨가 언닐 풍서땅에 모셔갈 땐 막 미웠었는데 인젠 꽃수레에 태워 마중해드려야겠네.》

또다시 터져오르는 즐거운 웃음소리.

덕천사람들의 반가운 상봉을 바라보느라니 문득 차칸에서 초면의 덕천아바이가 하던 덕천새각시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러나 꽃속에 묻힌 이 녀인은 가마 타고 외지에 시집갔던 그 덕천새각시와 얼마나 대조적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오셨던 공장으로 다시 돌아와 처녀시절에 잡았던 그 기대와 함께 영원히 고향을 꽃피워가려는 소중한 꿈을 안은 녀인, 아니, 은 가족과 함께 덕천땅으로 달려온 그들이야말로 우리 시대 전형이고 앞으로 내 작품의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나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들의 공장에 오시여 이
공장이 강성대국건설의 첩후를 담당했다고 하신
그 크나큰 믿음을 안고 온 공장이 펼쳐나선 모
습이 내 눈앞에 새롭게 안겨오는듯싶었다.

나는 후더워지는 마음으로 역구내를 나섰다.
젊은패들이 방금 기차에서 내린 청년을 목마에
태우고 개찰구로 나가고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고향친구가 장군님 다녀가신 공장으로 배치되어
오는길인지 어찌 알랴. 역구내에 펼쳐진 풍경이
나의 머리속에 《덕천이 멀다하계》라는 성구를
되새겨준다.

오랜 세월 내려오며 굳어진 이 말이 낡은 사회
의 유물로 되어버린 오늘의 덕천땅, 참으로 덕천
은 먼 고장이 아닐뿐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가까운 고장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나의 현실체험은 벽차고 뜨겁게 시작되고있었
다.

나는 가슴그들먹이 차오르는 창작적충동을 안
고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역구내를 떠났다.

덕천에서

산중의 작은 역을 지나며

한정현

수려한 경치에 취해서가 아니다
내 이리도 차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것은
렬차가 잠시 지나는 깊은 산속 감시초소
기다린듯 어김없이
정시통과기발을 곧추 쳐들고
조각처럼 서있는 그 모습에
마음이 몽클 젖는구나

단정한 정모밀에 백발이 희숙한
내 아버지별이 되는 사람
전쟁도 치르고
복구건설의 재가루도 헤쳐온
우리의 로세대

비오고 눈이 와도
그 언제나 한모습 변함이 있었으랴
깊은 밤 이른새벽
어느 한시인들 변함이 있었으랴

이제는 쓴다고 해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을 세대이건만
오늘도 묵묵히 초소를 지켜가는 그 마음을
나는 정시로 달리는 이 렬차와 함께 느낀다

눈사태 돌사태가 없었으랴
한몸에 힘겨운 순간이 없었으랴
허나 조국이 맡겨준 궤도의 한 구간을
목숨처럼 지켜가는 그 진정을

고르로운 렬차의 동음으로 느끼노라

그 진정에 받들려
렬차는 달리고있어라
조국의 동맥이 이어지고있어라
이제라도 성큼 내려서서
수고한다는 한마디 인사라도
머리속여 하고싶어라

이 땅에 뻗어간 궤도의 끝까지
이런 초소 몇백몇천일지 내 모른다
허나 내 아노니 다름아닌 저 세대가
일생을 방석우에 앉혀 존경해야 할 세대
조국을 피로 지키고 땀으로 빛내인 세대

이제는 우리, 바로 우리 세대가
그 모든 초소와 일터들에 서야 하리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위훈의 일터
남모르게 한생이 흘러가는
그런곳에서도 조국에 자신을 다 바쳐야 하리

아, 이제는 내 눈가에 보이지 않아도
그 모습, 그 마음을 안고가노라
이름없는 산중의 작은 역뿐이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남모르는 초소에도
바로 조국을 받드는 충신들이 있어야 함을
충성의 한길로만 가야 할 내 삶의 궤도를
깨우치며 가노라

《일꾼들이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며 군중을 아량있게 대해주고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군중의 오늘의 생활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돌봐줄 때 모든 사람들이 당을 진심으로 믿고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게 되며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게 됩니다.》

김정일

실화문학

해 살

꽃피는 고목

강성묵은 당비서의 사업을 인계받은 이 며칠사이에도 줄곧 떠나지 않는 하나의 생각에 움해있었다.

10여년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보살핌속에서 일해오다가 새 초소를 맡고보니 마치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는것과 같은 마음이였다.

생소한 과학연구기관에서 내가 과연 그이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일을 제대로 해낼것인가 하는 근심과 걱정이 앞섰다.

이런 심정속에서 강하게 울려오는것은 인간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당일군의 자격이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이였다.

(인간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자. 그이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과학자들의 심장마다에 심어주어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환희와 희망에 넘쳐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자.)

성묵의 마음속다짐은 날과 달이 바뀔수록 더욱 굳어져갔다.

그는 과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료해하고 그다음에 해당한 대책을 세우려 마음먹었다.

사람을 안다는것은 속마음을 안다는것이다.

성묵은 어느 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당회의에 나가기 앞서 사전에 연구소의 여러 당원들과 만나 담화를 하였다.

그런데 웬일인가.

그가 만난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그곳 책임일군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저 《차집다》, 《고집이 세다》, 《아래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것이였다. 무슨 똑똑한 근거가 없는 그런 결함을 가지고 한 인간을 전면부정할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곳 연구소는 얼마전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체적인 섬유에 의한 비날론방적연구사업을 끝내고 그를 여러 공장에 도입하고 생산을 정상화한 집단이 아닌가.

성묵은 어제 연구소 책임일군과 나눈 이야기를 다시 더듬어보았다.

박승록

《동무는 나이도 많은데 이번 연구사업에서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초급당비서는 집단의 연구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나야 별로... 난 공밥먹고 헛살았지요.》

축하를 받은 그는 어쭙은 웃음을 띠였다.

《원 별말씀을... 실천이 곧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부문을 전혀 모르는 유치원생입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주십시오.》

《만능가가 된다는것은 힘든 일이지요. 80여개 학문단위를 어떻게 다 알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사업방법이지요.》

그는 일을 시작한 당비서에게 신심을 주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굳어진 생각을 내비친것인지 딱히 알수 없는 소리를 했다.

《내가 꼭 명심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줄 알았으면 미리 생각해둘걸 그랬습니다. 하긴 그랬다 해도 설익은 사람의 말이 무슨 참고가 되겠습니까. 차차로 알게 될겁니다.》

성묵은 그에게서 유익한 말을 들으려고 여러모로 애써보았으나 별로 신통한 말을 얻어들을수가 없었다. 어찌보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탈선시키지 않으려고 원심을 쓰는것 같았다.

성묵은 그와 헤어지면서 《방법》이라는 말을 되새겨보았다. 그 말에 무슨 뜻이 담겨져있는것만 같았다. 성묵은 원래 의문이 생기면 조금증때문에 안절부절을 못하는 성미이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부비서에게 그 일군에 대해 물었다.

부비서는 말하기를 그는 수준높은 과학자이지만 아직 학위를 받지 못한데다가 이젠 늙어서 열성도 식어지고있기때문에 사업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였다.

성묵은 과학연구라는 흥미진진하고 매혹적인 그 사업보다도 그 세계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1년만 있으면 예순살이 되는 이름없는 로학자와의 사업으로부터 시작된셈이다.

그는 도대체 어떤 리유로 나라의 한 과학연구소를 맡고도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

기 위해 높은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일하지 못하는가? 당에서는 자기를 조선로동당원으로 받아들이고 연구소 책임일군으로까지 내세워주었는데 사업에서 왜 열정이 없는가?

사업과정에 나타난 이런저런 결함을 가지고 그의 정치생활경위와 결부시켜 의심하고 그 의심이 새끼를 쳐서 색안경을 끼고본것은 아닐까.

의심이 병이라는 말과 같이 이것은 돌격을 앞둔 전호에서 전우의 성분을 묻는것과 같은 우둔한것이 아닌가.

성목은 믿음이 없는곳에선 숨을 쉬기도 바쁘다는것을 통절히 느끼고있었다.

하루는 성목이가 그곳 연구소 중간공장의 생산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나간 일이 있었다. 그때 실험실 문전에서 한 연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령감이야 남을 생각이나 하는가. 남을 위해 해놓은 일이 뭐야.》

성목은 못들은척하고 공장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현장에서 사업을 료해하는 과정에 일부 사람들에게 주책이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지방에서 연구소가 새로 옮겨온 조건에서 이곳 책임일군들은 당면한 연구과제들 때문에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날 성목은 사무실로 돌아와 주책실태를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주책건설을 시작할것을 결심하였다. 그것은 연구소안에서 주책문제로 책임일군들의 사업권위까지 잃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협의회에서는 책임일군들로부터 아래일군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반대해나섰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책은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연구기관은 힘이 없으니 국가에서 보장받도록 하자고 했다.

성목은 하는수없이 다음날 시비의 초점으로 되고있는 그 연구소 책임일군을 불러 오늘 다시 주책건설문제를 가지고 협의회를 하겠으니 용기를 내어 말아하겠다고 지지해나서라고 일렀다. 그리고 건설을 시작하면 자기가 힘껏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두번째 협의회에서는 예견한대로 그가 말아나서는통에 자체로 주책건설을 하기로 략착되었다.

사람들속에는 《저 령감이 둔갑을 했나》, 《둔갑이 아니라 환장을 했지.》 하는 축들도 있었다.

하지만 성목은 내친 길읍이니 얹어지든 깨여지든 밀어붙판이라고 생각하였다.

건설사업이 시작되어 손에 설던 일도 점점 익숙해지고 각 연구소들에서 지원로력도 보내주어 주책은 1년반만에 완공되었다.

주책분배가 상정되었을 때 다수의 의견은 여러 연구소들에서 건설에 동원된 로력공수에 따라 하자는것이였으나 성목은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주책건설을 말아나서고 건설을 위해 애도

많이 써온 이 연구소에 과반수를 주는것이 어떻겠는가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일이 있은후부터 각 연구소들에서 주책건설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그 책임일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음식에서 서서히 녹는 얼음과 같은것이였다.

내밀성이 없는 그가 늑도록 틀고앉아있기때문에 우리 나라 방직공업발전에 지장을 주고있다는 찬공기는 아직 그대로 떠돌고있었다. 그에게는 《믿는다》는 백마디의 말보다 실천속에서 열정을 되찾게 하며 위로와 설복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것이 필요하였다.

연구사업 40년에 책임일군 28년을 한 그가 아직 학위도 없는것을 성목으로서는 스쳐버릴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유엔기구에서 조직하는 연구토론회에 파견할 대표단성원을 선발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성목은 그곳 연구소 책임일군을 적임자로 선정하고 대표단성원의 한사람으로 문건을 제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을 료해하시고 그를 이팔리아와 도이쉴란드, 유고슬라비아에 파견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대표단성원으로 발표받고 나온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책의 눈물이 어려있었다. 그는 나이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목새길줄도 알았으나 이날만은 좀처럼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신임이란 이처럼 귀중한것이 아닌가!)

성목은 이런 생각을 하며 창문밖을 내다보았다. 저쪽 건물에 가리어 그늘졌던 청사에 어느덧 햇빛이 비쳐들고있었다.

려행준비사업으로 분주히 뛰어다니던 그가 떠나기 하루를 앞두고 당비서를 찾아왔다.

《비서동무, 오늘 시간을 좀 낼수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으로 자본주의나라에도 나가게 되니 지나간 일들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성목은 웃으며 대답하였다.

《나야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만 동무야 준비사업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지 않습니까. 이번 에 가서 일을 잘하고 오십시오. 그때 들겠습니다.》

《비서동무, 내가 고맙다는 인사나 하자고 온것이 아닙니다.》

소장은 부득부득 자기 인생행로에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하는것이였다.

형들이 농사를 하면서 한푼두푼 모아준 돈을 가지고 서울에 나가 공부하던 일로부터 8. 15광복과 함께 또다시 항학열에 들떠서 서울로 다시 나갔다가 반동의 아성으로 전변된 그곳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던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눈곱을 적시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는 것 이었다. 이기간 미국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암담한 세상을 뼈속으로 절감한 그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대의 서울입성과 때를 같이 하여 의용군에 나가 싸웠다.

성목은 그의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끝났을 때 조용히 이런 말을 하였다.

《소장동무가 인민들이 조국해방의 기쁨을 안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를 때 서울로 나간것은 큰 실책이었으나 지금이야 조선로동당원이고 간부인데 그런 짐이야 벌써 벗어놓아야 할것이겠지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갈번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그 짐을 벗어놓고 떠나십시오.》

성목은 일어나 그의 손을 잡고 흔들어주었다. 그가 밝은 얼굴로 나가는걸 보니 이젠 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목은 혼자 방안을 거닐며 생각하였다.

그가 학위도 없이 국제과학연구토론회에 가게 된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을 생각하니 잠시나마 이젠 풀렸구나 하고 생각한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자기 전문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굴리었다.

성목은 그 일군이 대표단사업을 훌륭히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외국여행이야기끝에 자기의 의향을 비쳐보았다. 동무가 새로운 연구과제를 하나 맡아 수행하고 학위문증을 쓰는것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는 성수가 나서 동의하였다. 그가 이렇게 나오자 성목은 하루 폭 쉬우고 다음날에 하려던 말을 내친김에 하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전에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입히시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섬유를 가지고 인조털가죽을 만들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말아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현조건에서 주체원료에 기초하는 우리식 방직공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비서동무, 해보겠습니다. 누구든 그걸 꼭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령님 탄생기념일이 다가오는 데...》

그는 려행의 피로를 느끼고있었지만 쉬라는 말보다 더 달갑게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섬유에 의한 인조털가죽생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의 방에는 전등불이 꺼질줄 몰랐다. 연구사들이 다 퇴근한 후에도 그는 시험생산기대에서 나온 섬유를 염색하고 인조털가죽을 빚질도 하며 새로운 털외투감을 실험하고있었다. 그는 연구결과를 여러 건직공장에 도입하느라고 먼 길을 결집같이 다녀오곤하였다. 하여 몇달사이에 100벌의 털외투감이 마련되었다.

성목은 새로운 인조털가죽외투감 100벌을 마련한 정형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올리면서 이번

에 시험생산한 첫 인조털가죽으로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외투를 해입히도록 배려하여주실것을 제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소박한 제의를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나라 섬유로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인조털가죽연구에서 성공하고 그 시제품을 혁명영화 창조성원들에게 보내줄수 있도록 한 이곳 연구소에 감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었다.

다음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다. 주석단에 앉은 연구소 책임일군의 얼굴은 삶의 희열에 상기되어있었다. 결의토론을 할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창고고안식으로 연구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것을 죄스럽게 여기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의 하루를 1년땀잡이로 살면서 우리 나라 섬유로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 한몫바쳐 새로운 인조털가죽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날론섬유로 질좋은 고급양복천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다그쳐나갈 심장의 맹세를 다지었다.

성목은 그의 성장을 보면서 백마디의 말보다 실천을 통해 교양하는것이 몇갑절 우월하다는것을 절실하게 느끼고있었다. 이날처럼 자기 사업에 대한 보람을 느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후 강성목은 이곳 연구소의 실력있는 과학자들을 새로운 섬유를 생산하는 연구사업에 망라시키고 그 연구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 토의한대로 10여개의 경공업부문 공장들에 《2월17일과학자돌격대》를 파견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2월17일과학자돌격대》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기술자, 노동자들과 협력하여 부닥치는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3년만에 여러가지 새로운 섬유를 생산하는데서 성공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 높은 연단에 이들을 내세워 위대한 수령님께 과학연구성과를 보고올리도록 하시였으며 그후에는 친히 과학자들에게 표창장과 선물, 명예칭호와 훈장들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표창장과 선물, 훈장과 학위를 수여받고 가슴을 번쩍이며 당위원회에 찾아온 연구소 책임일군과 연구사들속에는 고향을 남조선에 둔 적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신임에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못하고 서있었다.

성목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이 순간 성목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주며 진심으로 도와줄데 대하여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였다. 그러고보니 귀중한 사람들이 늙

어가는것이 참으로 아쉬웠다.

예순살을 눈앞에 두었거나 예순이 넘은 나이들이 아닌가.

그들은 한사람같이 새로운 연구과제를 받아안을 열망으로 불타고있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모두 건강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부탁은 이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당비서의 이 말을 당의 높은 신임에 보답할 나이를 무한정 늘여야 한다는 당부로 받아들였다.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난 어느날 밤이었다.

성묵이 집에서 책을 읽고있다가 문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 걸어나갔다. 웬 낮모를 처녀가 복도에 서있었다.

《밤중에 버릇없이 찾아와서 안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그는 연구소 책임일군의 딸이었다.

울고난 얼굴빛을 보면 문가에서 몇마디 하고갈 사연이 아닌것 같았다.

성묵을 따라 방안에 들어와앉은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기는 31살인데 년년생인 아래동생 3명이 다 출가할 나이가 되었으나 이날까지 한집안에 얼어붙어있다는것이였다.

그 리유인즉 아버지의 고집때문이라는것이다. 오로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청혼해온 대상을 쫓아버린 일로 해서 어머니와 싸우고있는것을 보다못해 뛰쳐나왔다는것이다.

처녀는 초면인 당비서앞에서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힘든 말을 또박또박 다하였다.

성묵은 자신이 그 일군의 집에 나이찬 처녀가 네명이나 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그 자책때문에 줄곧 처녀의 말을 듣고만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그러는것 같소?》

《그전에 청혼해왔던 젊은 사람들이 제 딸을 모욕한것을 이제 와서 분풀이하느니라.》

《모욕?... 분풀이라니?》

처녀는 인차 그 대답은 못하고 망설이고있었다.

성묵은 처녀가 말을 안해도 알만하였다. 어떤 아버지의 딸인가를 알아보고 청혼자들이 물려났을것이다. 그것이 그 일군의 가슴에 맺혀있었을것이 아닌가.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은 우쭐해졌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우쭐할데가 따로 있지 딸들의 일생문제를 놓고 그러면 어쩔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습니다. 이번에 모처럼 만난 청년까지 물려서면 제 문제만 아니라 동생들앞에 언니로서 면목이 서지 못합니다.》

《알겠소. 가장이 세도를 쓰니 당비서인들 어찌겠소만 우리 힘을 합쳐 안팎에서 공격해봅시다.》

처녀와의 대화는 이렇게 끝났다.

다음날 아침 성묵은 그 일군이 일하는 연구소

를 찾아가려다가 일부러 전화를 걸어 그를 불렀다.

한시간 남짓해서 그 일군이 방안으로 들어서자 성묵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따지고들었다.

《동문 무슨 배짱으로 자식들의 운명을 망탕 처리합니까?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당조직에선 나라에서 대학공부까지 시킨 새 세대들의 마음에 그들을 던지거나 고통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 묵인할수 없습니다. 이건 가정윤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성묵은 열을 올려 잘라 말하고는 변명할 틈을 주지 않고 그를 돌려보냈다.

딸들의 출가문제를 놓고 당비서에게서 설복 절반, 위협 절반을 받은 그 일군은 일주일후에 딸을, 한달후에는 둘째딸을 출가시켰다. 이런 간격을 두고 셋째, 넷째 딸도 다 출가시켰다.

1년후에는 출가한 딸자식들이 귀동자들을 업고와서 할아버지의 품이 모자라도록 손자, 손녀들을 안겨주었다.

당비서가 그를 만날 때마다 건강이 어떤가고 물어보면 의례히 그는 모든 병을 다 뺐으니 이젠 앓아눕긴 코집이 틀렸다고 웃곤하였다.

그자신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이 고목에도 꽃을 피웠다고 말하고있었다.

사람의 혈통

어느날 저녁무렵이였다.

성묵이 강냉이가공연구소에서 일을 보고 돌아와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인차 손기척소리와 함께 과학서기가 얼굴을 숙이고 조용히 들어섰다.

과학서기는 몹시 흥분되어있었으나 말없이 자기 발등만 내려다보고있었다.

《웬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비서의 질문을 받고도 과학서기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리였다.

《찾아왔으면 용건을 말해야지 그렇게 서만있겠습니까?》

성묵은 일어나 과학서기를 의자에 앉히고 기다렸다. 당비서를 찾아와서 무언으로 서있다가 입을 여는 사람이 종종 있었기때문이다.

잠시후 과학서기는 마음을 진정하듯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사연인즉 이러하였다.

강냉이를 변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하루빨리 관철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학사 3명에게 여러해동안 현지에서 고심하여온 한 녀성과학자의 연구결과를 학술적으로 뒤받침해주도록 분공을 주었었다. 과학서기는 그 학사 3명중의 한사람이였다.

당적분공을 받은 김진구과학서기는 녀성과학자에게 붙어 분초를 다투며 그를 도와주었다. 현지

에 나가 연구결과를 보기도 하고 실험실에서 변성도를 분석도 해보았다. 지어 자기 집에도 간단한 시험장을 꾸려놓고 파고들었지만 그 녀성과 학자가 주장하는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만 얻어졌다.

오늘저녁에 그 진척정형을 놓고 담화하는 기회에 연구소 책임일군에게 연구결과를 사실그대로 보고하였더니 그는 분석표는 보지도 않고 갑자기 돌변해서 동무는 야심가다, 무슨 목적으로 집에 까지 가지고 들어가 도적고양이모양으로 실험하는가, 변속실연구사의 강냉이변성연구결과를 반대하자는게 아닌가 하면서 욕질하였다. 나중에는 《본래 뽕뽕한 대상이니 할수 없지.》 하고 가슴에 못을 박아주더라는것이였다.

그늘진 그의 얼굴빛은 분함과 억울함이 내비쳐 더욱 컴컴해보이였다. 거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목새길수 없는 고뇌가 비껴있었다. 하지만 당장 무슨 말로 그 고뇌의 빛을 가셔줄수 있단 말인가.

성묵은 크게 걱정할것이 없으니 마음을 폭 놓고 돌아가라고 그에게 타일렀다.

김진구과학서기가 나간 뒤에 성묵은 나이든 과학자의 깨끗한 양심을 짓밟으며 눈물까지 흘리게 한 그 일군의 처사가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아 그날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성묵은 사람을 마구잡이로 다루는 그 일군의 작풍을 바로잡아주어야 할 절박감을 느끼며 책을 읽고있었다.

성묵은 그 일군이 집단에서 한사람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이해를 바로하고있지 못하다는것을 포착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일군들에게 개별담화를 할 때 상대가 한사람이라고 해서 별치 않게 여기는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한사람뒤에 열사람, 백사람, 천사람이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김진구과학서기는 열사람, 백사람, 천사람 속에 있는 한사람이다. 그의 말 한마디가 열사람, 백사람, 천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것을 그 일군은 모르고있는것이다. 과학서기의 얼굴에 비낀 그들은 누가 던진것인가. 그 그들이 그 한사람에게 국한된것인가, 아니라고 성묵은 단정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사람이다 해도 본인의 현행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계시지만 그 집행에서 그이의 사상과 의도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것은 타협할수 없었다.

이튿날 성묵은 그 일군과 마주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은후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말해주었다.

아직 나이도 사업경험도 어린 그 일군은 당비서의 사리정연한 분석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생각

이 깊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과학서기를 돌려보내고 욕하는 자기 성미를 두고, 입총질이 센 자기의 설익은 작풍을 두고 후회하고있던중이였다. 지금은 자신이 후회한것조차 얼마나 범속하고 조폭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을 깨닫고있었다. 그는 실지 연구사업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한쪽 말만 듣고 다른쪽의 입을 틀어막고 납득시키려고 한 자신을 보았다. 더우기 그는 사람들을 믿어 주고 아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해빛이 자기와 같은 일군에 의하여 가리워져 사람들의 얼굴에 그늘을 던져주고있다고 생각하니 몸둘 곳을 찾을길이 없었다.

《비서동지, 제가 과학서기를 다시 만나 잘못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들을 다 종합해보고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일하겠습니다.》

성묵은 그의 결심을 지지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으로 과학서기문제가 다 풀린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과학서기의 가슴속에 박힌 못을 뽑아주자면 시급히 강냉이변성연구에서 그가 도달한 주장을 심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변속실연구사를 도와나섰는가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에게 새로운 연구과제를 주어 움직이게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자기자신을 피롭히고있는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얼마후 과학심의회에서는 김진구연구사의 주장대로 연구방향을 돌려야 한다는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것이 변속실연구사가 오래동안 고심해온 문제를 풀어주었다. 그것뿐이 아니였다.

김진구연구사에 대한 변속실연구사의 오해를 풀어주었고 일군들의 의심을 풀어주었다.

그날로 성묵은 과학행정일군들과 토론하고 지금까지 분담되어있지 않던 천연비석에 대한 연구과제를 김진구과학서기에게 맡겨지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68(1979)년 5월 10일에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어있는 천연비석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활용할데 대하여 과업을 주시였던것이다.

성묵은 이 연구과제를 맡은 김진구연구사를 자주 만나곤하였다. 책상을 마주하고 앉기보다 실험실에서 트락에서 혹은 휴게실에서, 현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했다. 인간적으로 가까와질수록 자연스럽게 그의 진심을 파헤쳐볼수 있었다.

알고보니 김진구연구사에게는 광옥이라는 수재형의 아들이 있었다. 그도 아버지와 같은 심리적 고충을 어려서부터 안고살았다 한다.

어느해인가 광옥이가 중학교과정을 마치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추천받았었다. 그러나 광옥이는 인민군대에 입대할것을 결의했다.

인민군대에 입대한 광옥은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여 조선로동당에 입당하고 금년에는 제대되면서 대학추천을 받고 돌아온다는것이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성묵은 기쁨의 웃음을 웃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속에서 그는 광욱의 대학입학을 돌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성묵은 제대군인들의 입학시험이 끝났을 때 대학당위원회로 찾아가 광욱의 아버지, 어머니가 가슴조이고있을 문제를 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도 본인들에게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사이 김진구연구사는 지방의 여러곳에 나가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도입하여 수많은 과학기술문제들을 새롭게 확증하고 국가에 실로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되었다.

여러 회의들에서 김진구연구사의 연구성과가 높이 평가되고 강연회 뒤끝에도 긍정자료로 통보되었다.

이런 때 성묵은 당위원회에 찾아온 김진구과학서기로부터 뜻밖의 제기를 받았다.

《비서동지, 천연비석연구도입은 제가 시작했을 뿐이지 그 성과야 여러 사람의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만 너무 내세웁니다. 저야 평생 죄를 씻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그 죄를 씻을수 있는 길을 열어준것만으로도 저는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묵은 한동안 고개만 끄덕이며 말이 없었다. 놀란 모습이라 할가 아니면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라 할가 어찌 보면 반성하는 모습같기도 하였다.

《비서동지, 전 이번에 천연비석연구도입에 망라된 8명의 연구사들중에서 3명의 연구사에게 학사학위론문을 씌웠으면 합니다. 강부석, 리명선, 동분상 동무들이 그럴만한 연구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구사들에 대한 평가도 잘해주면 기쁘겠습니다. 전 이것을 바랍니다.》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만있던 성묵은 과학서기의 목소리가 더는 울리지 않자 침묵을 깨었다.

《의견을 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작해야 할 좋은 제기입니다. 더우기 사심이 없는 소행을 놓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연구도입성과도 컸지만 과학자집단의 공기가 맑아지는것이 더없이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성묵은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그런데 자신은 평생 죄를 씻어야 할 사람이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형이 지은 죄를 녀두에 둔것 같은데 그것이 동무의 죄로야 될수 없지 않습니까? 이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위로하는 말도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당에서는 너그럽게 보지만 그래도 한피줄기니 죄야 죄지요.》

《당정책을 잘 아는 사람이 문제를 그렇게 세운다는것이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간의 혈통은 사상이라는 피줄기입니다. 자신이 의심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인간의 혈통은 사상이라는 피줄기입니다. 락동강까지 갔다는 동무야 그때도 혁명을 했고 지금도 혁명을 하는 것이지 다른 그 무엇을 하겠습니까.》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형이나 동생이 죄를 지었으면 그런놈이 나쁜놈이지 당을 위해 충실히 일하며 당을 따라오는 사람에게야 무슨 죄가 있으며 그런 사람들을 무엇때문에 차별하며 경계하겠는가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김진구동무는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성묵은 잠간 말을 끊고 굳어진 생각을 한순간에 뒤집을수 없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있었다. 사람의 사상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지만 그것으로 다 알았다고 말할수 없다. 사람의 속마음은 대중할수 없으리만큼 깊고깊은것이 아닌가.

《이만합시다. 우린 오늘 서로 유익한 말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하고싶은것은 3년세월 포탄맛을 본 사람답게 두려움없이 앞으로만 나가라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비서동지, 전 지금까지 매질을 줄이거나 피하기에 습관된 사람이지만 이제는 매질이 그림습니다.》

김진구과학서기는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매질을 그리워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담화를 통해서 성묵이가 그에게서 새롭게 발견한것이다. 사심이 없고 정직하며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만 여겨온 생각에 또하나 첨가된 생각이 이것이었다.

김진구는 천연비석연구도입에서 큰일을 해놓고도 매질을 그리워하고있는것이다.

(매질, 매질...)

성묵은 혼자 같은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아름다운 과제를 안겨주는것이 그에겐 매질이다. 성묵은 그를 락원기계공장(당시)에 내보내여 대형산소분리기계제작사업에 참가시켜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사람들에 대한 당의 믿음을 심장으로 느끼도록 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사람을 알고야 그 심장을 울릴수 있다.)

성묵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전화를 걸어 행정책임일군과 의논하였다.

김진구연구사가 락원기계공장으로 떠난지 여러달이 지난 설명절에 성묵은 부비서를 데리고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

방에서는 아들딸들이 모여앉아 소리가 나지 않는 텔레비존을 보고있었다. 설을 쇠려 김진구연구사가 왔겠는데 그가 보이지 않았다.

《여보, 당비서동지가 오셨어요.》

안해가 맞은편 방문을 열며 하는 말이다.

성묵이가 가족들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그 방으로 들어섰다. 방바닥에 엎디어 수학공식을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던 김진구연구사가 일어나 반가

이 인사하였다.

《비서동지,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도 내내 건강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앉았다. 방바닥에는 술한 수자를 휘갈겨쓴 종이장들이 한가득 널려있었다. 김진구연구사는 그것들을 간중그리느라 앉은 걸음을 하며 돌아갔다.

설을 쇠려 아침차로 집에 들어선 그였으나 가족들과 섭쓸리지도 못하고 문헌조사를 하고 실험수치를 계산하고있었다.

이때 그의 아들이 담배와 재떨이를 들고 들어와 당비서앞에 놓았다.

《음, 네가 광옥이냐?》

성묵은 대학생복을 입은 청년을 대견스럽게 쳐다보았다.

《네!》

광옥은 제대군인답게 차렷자세를 하며 웃고있었다.

《광옥이에겐 아버지모색이 없구나.》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건 마음쓰는 모색이겠지. 안그런가?》

모두 소리없이 웃었다.

《내려가 텔레비존을 봐라.》

성묵은 광옥이를 아래방으로 내려보내고 김진구연구사와 마주앉았다.

《텔레비존이 고장났으면 한다하는 연구사가 고쳐야지 그렇게 활동사진만 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묵은 김진구연구사를 쉬우게 하고싶어 이런 지청구로 에둘렀다.

《내가 책을 보니까 아이들이 록음을 내지 않고 보는것 같습니다.》

《그랬됐구만.》

성묵은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는 김진구연구사가 락원기계공장에서 하고있는 일을 알아보고 부비서를 떨거놓고 인차 일어섰다.

《오늘은 명절인데 폭 쉬어야 하겠습니까.》

성묵이 문을 열고 나서는데 부엌에서 설음식을 차리던 안주인이 나와 서분해하며 막어나섰다.

《비서동지, 설날에 오셨다가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머니, 이제 내가 가보아야 할 집이 많아서... 후에 또 오겠습니다. 우리 부비서가 내 몫까지 다 할껍니다.》

성묵은 계단을 내리며 따라나온 일가의 얼굴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다.

그후 김진구연구사는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던 원료대신에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공기중의 습기와 탄산가스를 비롯한 불순물을 흡착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산소분리기에 도입하였다.

성묵은 그 창조물의 무게를 알고있었다.

그것이 비록 몇톤짜리라 해도 몇만톤짜리보다 더한 무게를 가지고있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진구연구사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어 그에게 친히 선물을 보내주시고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배려하여주시였으며 과학자아파트의 입사증을 수여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쓴맛을 본 사람이 단맛을 아는 법이다.

김진구연구사의 얼굴에 비졌던 질은 그들과 고뇌의 빛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오랜 기간 음지에서 추위를 느껴온 그는 양지바른곳에서 해바라기하는 사람처럼 따뜻함을 한껏 느끼고있었다.

성묵은 김진구연구사가 누구나 다 받을수 없는 그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고 의기양양해서 일하는것을 보면서 가슴깊이 새기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오직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체득한후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실천투쟁속에서 검열하는 길은 령도자의 사상을 피줄기로 하는 사람의 혈통을 새로이 창조하는 길이라는 확신이였다.

그 길을 헛디딤 없이 걷는것으로 하여 비록 몸은 고되여도 그는 언제나 마음이 개운하였다.

세계상식

시간에 대한 각이한 견해

문학가-《시간은 곧 금싸래기이다.》

교육자-《시간은 곧 지식이다.》

과학자-《시간은 곧 지혜이며 능률이다.》

경제학자-《시간은 곧 속도이며 재부이다.》

철학자-《시간은 곧 진리의 어머니이다.》

력사학자-《시간은 곧 공정한 법관이다.》

의학자-《시간은 곧 생명이다.》

로동자-《시간은 곧 재부이다.》

기업가-《시간은 곧 돈이다.》

총명한자-시간을 리용한다.

암둔한자-시간을 기다린다.

게으른자-시간을 잃는다.

뜻있는자-시간을 쟁취한다.

무의미한자-시간을 포기한다.

향학열이 높은자-시간을 앞당긴다.

한가한자-시간을 랑비한다.

보금자리

엄성영

일요일이었다.

이른아침부터 책상을 마주하고있는 나는 원고 지우에 《보금자리》라는 제목만 큼직하게 써놓았을 뿐 그냥 붓방아를 찧고있었다.

어제저녁 텔레비존화면을 통하여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나 커서 서둘러 붓을 들었건만 왜서인지 글이 나가지 않는다.

나는 만년필을 놓고 방안을 휘둘러보았다. 나의 눈길은 원탁우에 놓인 화분에서 멎었다. 활짝 피어난 한뼘기의 효성화가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창문으로 비쳐드는 아침해빛에 효성화가 한결 더 푸르싱싱해 보였다.

거기로 다가가 꽃잎을 어루쓸어보던 나는 화분에 물을 주고나서 창문을 열어제꼈다. 시원한 대기에 정신이 거뜨해졌다.

창문으로 불어드는 한줄기 바람에 책상우의 원고지들이 후르르 날려 방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인민학교에 다니는 막내딸애가 방에 들어왔다가 널려진 원고지들을 주어모았다. 그러던 딸애는 원고지의 글자를 들여다보며 나에게 물었다.

《보금자리?! 아버지, 보금자리란게 뭐나요?》

보금자리.

나는 어린 딸애가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한마디로 설명해주기 어려웠다.

《보금자리》란 두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새의 둥지를 가리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형상적인 어휘로서 《행복하게 사는곳》을 비겨서 이르는말이다.

아이들에게 새둥지라고 하면 인차 표상이 떠오르겠지만 오늘날에 와서 《보금자리》란 말은 보다 형상적의미로 쓰이고있는만큼...

《호호... 사는곳이면 사는곳이지 비긴다는건 무슨 소리예요?》

나의 설명에 딸애가 알쏭달쏭한듯 머리를 갸웃한채 내 얼굴만 말뚱말뚱 쳐다본다.

《그래 그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곳을 보금자리라고 한단다.》

딸애는 그제서야 머리를 끄덕이며 앵두볼에 보조개를 지었다.

안해가 조용히 딸애를 불러내어 뭐라고 소곤소곤하더니 어디론가 나간다. 내가 원고지를 마주하면 의례히 정숙을 지켜주려고 원심을 쓰는 안해였다.

시계초침소리만 가락맞게 울리는 방안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느라니 생각이 깊어진다.

누구나 그러하지만 나는 매일 보도시간을 기다

린다. 신문을 봐도 그렇고 방송을 들어도 그렇다. 저녁 8시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텔레비존화면 앞에 마주앉곤한다.

요즘은 보느니 듣느니 모두 가슴뜨거운 소식들 뿐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홍단으로 진출하는 개성애국피복공장 21명 처녀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 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친필을 보내주신데 이어 룡라도관리국 처녀들과 숙천농업대학을 졸업한 처녀들이 대홍단으로 집단진출할것을 탄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거기에 평양가방공장에서 일하던 처녀 누구, 재정성에서 일하던 처녀 누구누구... 개별적인 처녀들까지 꼽자면 그 수가 헤아릴수 없이 많다.

모두 얼마나 기특한 처녀들인가! 하나같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만 한 처녀들이다.

사람들은 처녀시절을 가리켜 꽃시절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꽃을 사랑하는것은 그 모양보다도 꽃이 풍기는 향기때문이다. 벌과 나비를 부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그윽한 향기-

사람들이 처녀시절을 꽃시절이라고 하는것도 처녀들의 아름다운 자태나 용모보다도 그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높은 리상과 희망때문이 아니겠는가.

종다리 우짖는 봄날, 파아란 하늘에 몽게몽게 피어나는 흰구름처럼 행복한 래일에 대한 희망으로 한껏 가슴부푸는 시절, 그러면서도 그 누가 자기 마음속 창문을 열고 들여다볼것만 같아 숨저어하며 절로 얼굴 붉히는 시절, 그런 시절이 처녀시절이다. 그러한 처녀들이 지금 앞을 다투어 대홍단으로 달려가는것이다. 푸르른 꿈과 희망을 안고 대홍단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정하는것이다.

산설고 물설은 낮선고장, 바람세찬 북변의 대지에 도시처녀들과 벌방처녀들이 서슴없이 삶의 보금자리를 퍼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나이와 성격, 태어난 고장과 취미는 서로 달라도 하나의 생각, 하나의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정든 고향을 뒤에 두고 대홍단으로 달려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갑자기 초인종소리가 울렸다. 그제야 생각에서 깨어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색을 방해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민망스럽게 여기며- 《마침 있었구만!》

내가 문을 열자 대학동창인 김동무가 얼굴에

화기를 띄우며 방안에 들어섰다. 대학을 함께 졸업한 후 어느 연구기관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는 그는 대학시절의 우정을 잊지 않고 서로 찾아오고 찾아오며 가정의 크고작은 일도 터놓고 의논하곤 하는 무렵없는 사이였다. 내리내리 딸만 셋인 그는 장기질군이였다. 나와 둘이 마주앉기만 하면 하루해가 언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승벽내기였다.

《왜, 또 장기수를 배우러 왔나?》

은근히 시카스르는 나의 말에 김동무는 빙그레 웃기만 했다. 어느때같으면 《허, 이 친구 봐라. <많이 배우겠습니다.> 해야지.》 하고는 제 집처럼 장문을 열고 장기판을 꺼내 방한복판에 퍼놓고 수를 배워준다며 야단법석일텐데 오늘은 별로 점잔을 췌다.

《그렇게. 배우러 왔네.》

김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방복판에 눌러앉았다. 상대가 이렇게 성근하게 나오니 오히려 시카스는 내가 멋적어졌다.

《실은 임자의 조언을 듣고싶어 찾아왔네.》

《뭔데 그리 심각해서 그러나? 허허...》

《웃지 말라구. 이건 룡담이 아니네.》

김동무는 심중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네 우리 딸딸을 알지.》

《송희말인가?》

식당에서 접대원으로 일하는 송희는 부지런하고 봉사성이 높아 손님들속에서 소문이 자자한 처녀이다. 거기마다 인물이 환하고 마음씨 또한 착하고 고와 못총각들의 가슴을 태우는 처녀이다.

《그애가 대흥단으로 갈 결심을 했네.》

《대흥단으로?!》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저도 모르게 호성화애로 눈길을 가져갔다.

송희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용단을 내렸을가. 그 어떤 힘에 이끌려 대흥단에 자기 보급자리를 정하려는것일까?

김동무가 내 속생각을 넘겨다본듯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신문과 방송, 텔레비전화면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격동적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송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쪽잠으로 피곤을 푸시고 췌기밥으로 끼니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것을 장군님의 자식된 도리로 생각했다는것,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기 위해 대흥단으로 진출하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결심을 했다는것이다.

나는 가슴이 뻘어올랐다. 그것이 어찌 송희 하

나의 심정뿐이랴.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곳에 자기를 세울줄 아는 온 나라 처녀들의 그 소행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강성대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는 길에 한줌의 밑거름이 되려는 처녀들의 그 심정이야말로 얼마나 가룩한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나?》

김동무가 정색하여 물었다.

《난 송희를 믿네. 우리 함께 축복해주자구.》

나는 흥분된 심정을 억제할수 없어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태양이 눈부시다. 그 눈부신 태양의 빛발아래 피어난 아름다운 꽃송이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네만 평양에서 태어나 언제 한번 부모결을 떠나본적 없는 그애가 계절조처럼 되돌아오지 않겠는지 그게 걱정이네.》

《걱정말라구. 장군님의 딸, 백두산의 딸이 되려는 송희의 그 마음이 꼭 열매를 맺을거네.》

나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개성애국피복공장 처녀들이 올린 편지를 보시고 보내주신 사랑의 친필이 떠올랐다.

《대흥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살기 좋은 고장-대흥단, 백두산3대장군의 빛나는 업적이 깃들어있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눈앞에 바라보이는 력사의 땅 대흥단.

오늘 온 나라 처녀들이 대흥단으로 가는것은 결코 대흥단이 땅이 좋고 기후가 좋아 살기 좋아서가 아니다.

이 땅우에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정든 부모형제가 있는 고향을 뒤에 두고 대흥단으로 달려가는 처녀들.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조국이 부르고 땅이 바라는곳에 인생의 좌표를 찍는 처녀들, 시대의 거세찬 숨결에 자기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르시는곳에 삶의 보급자리를 펴는 처녀들, 바로 이런 미더운 처녀들이 있어 이 땅우에는 강성부흥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대흥단은 나날이 더욱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되어가는것이다.

나는 감자농사를 본때있게 지어놓은 송희네가 혁명의 성지가 바라보이는 백두삼천리벌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모시는 그날을 눈앞에 보는것만 같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더듬는데 김동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냥 가려나?》

《내 장기수는 후날 배워주지.》

어느새 계단을 총총히 내려가는 김동무를 따라가며 나는 말했다.

《송희가 대흥단으로 떠나는 날 꼭 알리라구.》

과학자, 기술자들의 성격형상창조를 두고

박성국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인 발사로 주체조선의 막강한 위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준마를 타고 구보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과학기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활짝 열어놓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킬수 있고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으며 나라의 군사력도 강화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올해 정초에 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데 이어 또다시 과학원합동분원을 찾으시여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과학기술을 힘있는 추동력으로 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까.》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보다 더 훌륭히 창작하여 그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언제나 혁명적인 문학창작성으로 받들여온 우리 작가들은 더욱 분발하여 강성대국건설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을 반영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실현도 인민생활을 추켜세우는 사업도 강성대국건설의 열쇠도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끊임없이 베풀어주고계신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국의 부흥발전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의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힘과 열정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마땅히 시대의 거세찬 흐름에 발을 맞추어 자기들의 작품에 과학연구성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행복으로 여기며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형들을 적극 찾아내어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의 전형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인간들이다.

그러므로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과학중시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적성으로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지식인의 전형으로 그리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꽃피워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고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번영을 이룩하여 우리 조국을 세계만방에 빛내이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인 사업이다. 때문에 문학작품에 형상되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과학중시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충성과 효성을 다하여 장군님을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받들려는 불타는 마음을 확고한 신념과 깨끗한 양심, 순결한 도덕의리로 간직한 성격으로 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 작가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1980년대에 창작된 장편소설 《야금기지》(허춘식), 중편소설 《한 연구사에 대한 추억》(김동렬), 1990년대에 창작된 장편소설 《높은 목표》(박찬은), 장편소설 《믿음》(김정길), 장편실화소설 《삶의 향로》(주유훈)를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들에서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성격을 창조하였다.

장편소설 《야금기지》의 주인공 강기석, 장편

소설 《높은 목표》의 주인공 신석, 정신애, 장편 소설 《믿음》의 주인공 최주식, 중편소설 《한 연구사에 대한 추억》의 주인공 류문식, 장편실화 소설 《삶의 항로》의 주인공 리승기를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전사의 가장 큰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시대의 참된 지식인의 전형들이었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과학자의 생명으로, 과학적신념과 량심으로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적인 과학연구성과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충성다해 받들어온 과학자, 기술자들의 모범으로 우리 문학의 형상속에서 빛나고 있다.

올해 조선문학 1호에 실린 단편소설 《대령강의 풍경》(엄성영), 단편소설 《두번째 불무지》(정철호)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성격을 형상한 작품들이다. 작품의 주인공들인 박인석, 임송주의 성격에는 우리 당의 일관한 과학중시사상이 구현되어있으며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려는 숭고한 과학적신념과 깨끗한 량심이 체현되어있다.

단편소설 《대령강의 풍경》, 《두번째 불무지》는 과학자의 신념과 량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과학중시사상을 비교적 깊이있고 생동한 성격형상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한 작가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들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의 성격에서 주도적인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다. 이것은 주인공들의 확고한 과학적신념과 깨끗한 량심으로 되어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게 한다.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국토관리사업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자연개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며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것은 우리 시대의 혁명적인생관이다. 이것이 두 작품의 주인공들인 박인석, 임송주의 성격에 구현되어있다. 조국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는 자그마한 빈구석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박인석의 사상적립장과 과학적신념, 보다 아름답고 휘황한 조국의 래일에 대한 확신과 자랑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임송주의 고결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의 기초에는 우리 시대 과학자들이 지녀야 할 당과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이 놓여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두 단편소설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자기의 성실한 량심을 바쳐가는 과학자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시대정신이 구현된 강행군시기의 전형을 창조하려고 노력한 작가들의 사상미학적

의도가 뚜렷한 작품들이라고 보아진다.

현시기 과학자, 기술자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들의 숭고한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데 달려있다. 때문에 우리의 문학작품에 형상되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이 숭고한 과학적신념과 량심으로, 깨끗한 도덕의리로 체질화된 성격으로 되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부강조국의 래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나가는 주체적립장이 확고한 성격으로 그리는것이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의 전형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과학연구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현실에 맞게 풀어나가는 주체적립장이 확고한것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하나의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도 당이 바라고 의도하는대로 풀어나가며 한건의 발명을 하고 연구성과를 내놓아도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과학적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며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는것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다.

장편소설 《높은 목표》의 주인공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 세대 청년과학자, 기술자로서 주체적인 기계공업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연구사업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 힘과 기술을 깡그리 다 바치는 주체형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형이다. 이들의 과학연구성과속에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 애국적헌신성이 깃들어있으며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와 설비에 의거하여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이바지하려는 확고부동한 주체의 신념과 의지가 어려 있다.

장편소설 《믿음》의 주인공 최주식 역시 해방 후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 세대 기술자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천톤급 배무이제작완성과업을 이 세상 가장 큰 사랑과 믿음으로 가슴깊이 간직하고 충성과 의리를 다해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투쟁한다. 천톤급이상의 배를 우리의 힘과 기술, 자재와 설비로 제작완성하는것은 참으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지만 이것이 어버이수

령님의 뜻이고 우리 나라 조선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라는것을 기술자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로 자각한 주인공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추호의 동요없이 파감히 뚫고나간다. 그는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소극성에 사로잡혀 조선업의 주체적발전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과 배무이제작을 파괴하려는 계급적원썹들의 책동을 투철한 혁명적원칙성과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짓부시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재와 설비로 천톤급 배를 제작완성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천톤급 배를 기어이 제작완성하는 최주식의 성격형상은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실천적인 창작경험을 주고있다.

단편소설 《대령강의 풍경》의 주인공 박인석, 단편소설 《두번째 불무지》의 주인공 임송주의 성격형상에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부강조국의 래일에 대한 굳은 확신과 뜨거운 사랑이 깊이있게 일반화되어있다.

단편소설 《대령강의 풍경》의 주인공 박인석은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충심으로 불타는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간고분투하여 새로운 오수정화방법을 연구한다. 그는 이미전에 공업시험소 연구사로 있었으며 지금은 방직연구소 실장으로 일하는 오영민이 연구완성하였던 오수정화에 쓰이는 첨가제가 경제적효과성이 적고 값비싸다는것을 알고는 그것을 흔하고 값죽은 첨가제로 바꾸기 위한 연구사업에 수년간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 끝내 새로운것을 연구한다. 그러나 자기가 연구한 첨가제가 천의 염색의 질을 높이는데도 중요하게 쓰인다는것을 알고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로 누구나 공인하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새로운 첨가제에 의한 오수정화방법연구를 시작한다.

그는 아무리 가치있는 연구성과라고 해도 그것이 국가에 큰 이익을 주지 못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사업에 자그마한 빈구석이 있다면 참다운 연구성과로 될수 없다는 투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으로 다른 연구사가 포기하였던 탄재에 의한 오수정화방법을 기어이 연구완성하며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더욱 분발하여 투쟁한다. 작품은 박인석의 성격을 통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연구에 자기의 사심없는 량심과 지성, 높은 기술과 열정을 다 바치는 과학자의 깨끗한 마음, 충심으로 조국을 받들려는 참다운 인생관에 기초한 그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게 된다.

이 작품에 결함이 없는것은 아니다. 작품에서 주인공의 내부적체험세계에 대한 묘사가 부족하고 주인공의 성격을 주로 다른 인물들의 시점에서 보여주면서 행동의 결과만을 제시하고 대사나 지문으로 처리한것이라든가 주인공의 외형을 초라한 느낌을 주게 묘사한것은 미감상 좋지 않으며 긍정적성격형상에 손상을 준다. 작가의 미학적리상에 의하여 창조된 주인공들은 사상정신세계에서나 외형에서 숭고하고 아름다울수록 좋다.

단편소설 《두번째 불무지》에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공의 비결은 조국의 래일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투쟁하는데 있다는것을 주인공 임송주와 최동림의 대조되는 성격을 통하여 밝히고있다. 조국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과학연구사업에 자기의 모든것 지어는 청춘의 사랑까지도 다 바치려는 고결한 과학적 신념과 량심을 간직한 임송주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웃음으로 뚫고나가며 끝내 연구사업에서 성공한다. 그러나 자기의 명석한 두뇌와 완강한 의지만을 믿고 공명과 명예를 바라며 세계적인 유압식동발연구를 시작한 최동림은 실패만을 거듭한다. 최동림은 자기만을 위한 연구를 하였기때문에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에 동요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며 나중에는 임송주의 순결한 사랑을 배척하는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한 최동림이 임송주의 고결한 과학적 신념과 량심을 찬양하는 신문 기사를 읽고서야 강한 정신적충격속에 자기만을 위한 울타리에서 벗어나 시대를 안고 분발하며 생명을 내대고 봉락된 막장에 들어가 실패의 원인을 알아내어 성공도 하고 사랑도 다시 찾게 된다.

작품의 주인공 임송주의 성격에는 우리 당의 혁명적인생관이 체현되어있으며 부강조국의 래일을 락관하는 뜨거운 심장을 지닐 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할수 있다는 사상이 깊이있게 구현되어있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형상하는 문학작품에서는 과학기술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야 하며 작품의 중심에는 시대정신을 투철하게 체현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확고한 성격을 가지고 서있어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역할을 깊이있게 반영하는것이다.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며 내세워주고 우대하여주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역할을 작품에 잘 형상하여야 한다. 그래야 과학기술을 나라의 흥망과 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

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일관한 과학기술중시사상이 형상을 통해 뚜렷이 부각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과학연구사업에서 발휘되는 고상한 집단주의정신과 온 나라에 차넘치는 과학중시의 기풍을 깊이있게 일반화하는것이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과학연구 성과와 경험을 허심하게 교환하고 널리 일반화하는 기풍을 세우고 연구를 강화해나가고있으며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합심하여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수많이 내놓고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게 문학작품들에서 사회주의과학기술발전의 집단주의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하며 오늘날 과학기술발전에 집중되고있는 우리 인민의 적극적인 관심성에 기초한 과학중시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과학연구사업이 고도의 정신적노력과 육체적노력의 전부, 지어는 목숨도 바쳐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창조의 세계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개인의 공명과 명예, 일신의 리익만을 추구하며 고립무원하게 혼자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교양되고 높은 과학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지식인들의 대집단이 있으며 어느 분야에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위해 투쟁하는 연구집단과 기술집단이 충분히 마련되어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지 않고 어느 한 분야의 연구사업이나 기술개조사업에 한두사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달라붙어 아글타글하는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회주의사회의 과학연구사업에서의 집단주의적성격이 잘 살아날수 없게 된다.

과학연구사업에서의 집단주의적성격을 잘 그리

는것과 함께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생산에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어느 부문, 어느 분야에서나 저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해주고 내세우기 위하여 적극 관심하는 사회적이풍을 반영하여야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우리 인민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열의를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재부중에서 가장 큰 재부라고 하시며 온갖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를 아낌없이 다 베풀어주시였으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과학기술을 강력한 추동력으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올해 또다시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크나큰 정치적인임과 배려를 안겨주시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위와 역할을 영광의 높이에 올려 세워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의 해로 빛내이는데서 과학기술이 가지는 크나큰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성격을 창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오늘의 세계는 그에 맞는 과학기술을 소유한 성격형상을 요구한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선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작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할것이다.

가 사

발사준비 끝!

량 룰

이 땅을 삼키려는 침략의 무리
우리 어찌 추호인들 용서할소나
멸적의 포신들 만장탄하고
원썹의 숨통을 겨냥하였다
아 장군님 명령 기다려
일당백포병들 발사준비 끝!

구천에 사무친 민족의 원한
무자비한 포화로 결산하리라
우리 운명 해치려는 온갖 원썹들

이 행성 어데 있건 징벌하리라
아 장군님 명령 기다려
일당백포병들 발사준비 끝!

장군님 키워주신 무적의 포병
맞설자 당할자 세상에 없다
전쟁 없는 이 땅우의 마지막포성
통일의 만세높이 우리 터치리
아 장군님 명령 기다려
일당백포병들 발사준비 끝!

리

리준호

이날아침, 탄광병원 외과의사 최남운은 도병원에 가있는 안해로부터 전화편락을 받았다.

탄광병원일군 전원이 참가한 의사협의회장소에 직일외과가 급히 와서 알려주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등뒤에 느끼며 회의실에서 나왔다.

전화기가 놓인 직일실로 가는 그의 낮은 약간 붉어져있었다.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자신이 담당한 환자를 놓고 진행되는 심각한 협의회마당에서 사업문제도 아닌 《안해의 전화》로 하여 못시선을 모으게 된 몇적은 불쾌감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화기를 마무하는 순간 그의 가슴은 어떤 급하고 절박한것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두근거렸다. 그는 왼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송수화기를 들었다. 먼저 입을 여는것마저 주저되었다.

《당신이에요?》

전화기로는 처음듣게 되는 음성이어서 그런지 안해의 목소리가 남의것처럼 귀찮다. 응대하기 바쁘게 어조가 높고 빠른 말이 다시 날아왔다.

《옥미가 회복기에 들어선걸 알고계시지요?》

《알고있소.》

《오늘새벽엔 그애가 나를 알아보며 〈엄마, 밥.〉 하지 않겠어요.》

바싹 긴장해있던 남운은 송수화기를 쥔 손의 맥을 풀며 모두숨을 쉬었다.

《여보, 왜 말이 없으세요?》

무슨 말을 하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참.》

《듣고있소. 좀 조용조용 말하오.》

남운은 한참만에 입밖으로 튀어나온 자기의 여성이 똑하고 뽕뽕한데 스스로도 놀라왔다.

불안과 우려 속에서 뜻밖에 찾아든 회소식에 감정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슴을 누르던 손으로 뽕뽕한 턱을 받친 그는 수화구에 공명된 안해의 들뜬 목소리에서 전혀 다른것을 감득하고있었다.

어제밤에 딸애를 담당해서 치료하고있는 그곳 병원에서 소식이 왔었다. 그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믿어지지않고 않아 밤새 잠을 못잤었다. 그랬던 것이 혹시 몇시간여만에 딸애한테서 다른 증상이 생겨 안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온것이 아닌가 했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송화구를 막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긴장했던 속이 진정되질 않는다. 수화구에서 안해의 부름소리가 그냥 새어나오자 그의

좁은 미간에 허물자리처럼 주름이 깊숙이 패인다.

《여보, 전화를 끊읍시다. 알고있으면 뻘치 뻘 또 그러오.》

하고 그는 송수화기를 놓아버렸다.

빠른 걸음으로 회의실의 자기자리로 돌아와 앉았으나 귀에 수화구가 그냥 매달려있는것처럼 안해의 목소리가 고막을 간지럽힌다. 결사사람들까지 그 소리를 듣는것 같아서 낮이 다 뜨뜻이 달아오른다. 그것을 꺼버리기라도 하련듯 그는 손가락잡에 뽕뽕한 턱을 끼우고 사정없이 비틀었다.

그의 시선이 박혀있는 앞상우에는 지금 온 탄광마음이 관심하는 중환자의 병력서가 놓여있고 병원일군들은 주치의사인 그에게 치료 정형과 전망을 심중히 묻고있었다. 그런데 환자상태를 말해주는 두툽한 병력서의 혈압기재란과 절망적인 고도폭선이 그려진 체온그래프지우에 《딸의 회복》이라는 다른쪽 극단의 《사변》이 날아와 그의 시야에 비껴들고있었다. 거기에 방금 전화를 통해 상상된 가볍다고밖에 볼수 없는 안해의 들뜨고 탁 풀린 표정이 얼터져린다.

안해의 심리는 짐작된다. 그러나 어제밤에 그곳 의사들이 알려왔는데 아침부터 무슨 전화질이 란말인가.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하여 있는지 모른단 말인가?...

일주일전 어슴새벽에 그는 도병원으로 떠나는 안해를 배웅하려고 역으로 나갔었다.

중병에 걸린 어린딸을 안고 앞서 걷던 남운은 이따금 걸음발을 늦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안해가 자꾸 뒤떨어졌던것이다. 안해는 거의 분별을 잃은 상태였다. 목도리마저 딸애한테 감아주고는 세밀에 이르러 한창 독을 쓰는 흑한에서슴없이 맨 얼굴을 내대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따라오는것이였다.

올해 세살나는 그의 막내딸이 병에 걸려 탄광병원에 입원한것은 10여일전, 딸애의 병은 미치 손쓸 사이 없이 급진적으로 악화되었다. 감기로 생각했던것이 무슨 병이 합병되었는지 상태가 위험계선에 이르러 의식까지 잃는 정도였다. 큰병원으로의 파송을 더는 미룰수 없다는 소아과 담당의사의 말을 듣고 어지간히 놀란 그는 딸애가 있는 입원실로 급히 갔었다.

그는 딸이 병원에 입원한 이래 처음으로 혈불이가 아니라 환자라는 관념을 가지고 주의깊게 몸상태를 진찰해보고 남몰래 한숨을 내쉬었다.

《괜히 여기서 시간만 허비한것 같아요.》

하고 안해는 후회 절반, 원망 절반의 뜻을 내비쳤다. 자기가 건강한데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병원신세를 저본적이 없는 이 녀자는 남편이란 사람을 모든 병에 능통한 《거인》으로 믿고있었던것 같았다. 소아과에서랑 도병원으로의 파송을 몇번 권고했으나 의사인 애아버지를 곁에 두고 가긴 어디로 가느냐고 되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겼으니말이었다.

그런데 애아버지인 그는 어떠했던가?

남윤은 안해의 말에서 자기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여실히 느끼게 되자 안해와 앓는 딸앞에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무척 바재이다가 힘든 소리를 꺼냈다.

《혼자 가주오. 당신도 아다싶이...》

안해는 놀라게 그를 쳐다보았다.

《너무해요!...》 하면서 울음이라도 터질듯 입귀를 실룩거리는것이였다.

남윤은 한대 얻어맞은것처럼 속이 얼얼했다. 안해의 모습을 처음보듯 여겨보았다. 마가를 풀포기처럼 윤기를 잃은 머리칼, 작아진 얼굴에 점점이 살아난 갈색의 반점들... 앓는 딸을 혼자서 불안고 겪은 고충이 그 모습에 다 드러나있었다.

하지만 어찌할수 없는 사정이 아니었던가?

40여일전에 월말생산으로 들끓던 이곳 탄광의 XX갱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한 권양기운전공처녀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실려왔었다.

의상성쇼크상태에 빠진 환자는 너무 심하게 다친데다 창상으로 피를 많이 흘린탓에 맥박도 혈압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다.

탄광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응급대책을 세우는 한편 긴급의사협의회를 열었다. 응급대책으로 일단 위기에서 구원된 환자를 두고 심각히 제기된 문제는 다리를 자르느냐 마느냐하는것이였다.

협의회분위기는 팽팽해졌다. 오른쪽다리 거의 전부가 형체없이 짓이겨진 상처를 놓고 그 누구도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으며 그것을 최종목적으로 환자를 말겠다고 자신있게 나서지는 의사도 없었다. 그 정도로 상처는 심했다.

다리를 자르지 않는것은 환자의 생명자체를 놓고 모험하는 길이나 다름없었고 근육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다싶이한 그것을 잘라버리고 치료하는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한 길이였다. 그러나 간과할수 없는 사실이 의사들의 가슴을 압박했다.

나이는 19살, 삶이 봄아지랑이같은 꽃나이, 불의의 정황속에서 서슴없이 자기 몸을 내대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아름답고 기특한 처녀, 그래도 잘라야 한다면?...

큰병원으로 후송하자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의식도 차리지 못한 환자를 어떻게 떠나보낸단 말인가. 그리고 탄광병원에서 치

료해내지 못한다면 자기의 팔다리를 떼어서라도 처녀를 회복시켜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당부하던 탄부들이 얼마나 실망할텐가...

숨도 크게 못쉬며 앉아서 실현가능성여부를 뽕혹하게 따지고있던 남윤은 어느 순간에 의자를 밀어버리고 일어났는지 자신도 알수 없었다.

그리하여 최남윤을 주치의사로 하는 치료조가 무어졌다.

고열, 최저상태의 혈압, 그것을 상대로 한 림상전투와 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약물치료, 잠도 휴식도 깡그리 잊은 힘겨운 치료전의 결과 난문제로 나섰던 중독산물에 의한 전신흡수의 위험은 어느 정도 제거되였다. 겨우 혈액순환만 보장될 정도로 빼만 앙상히 남았던 환자의 다리 다리 전면적에 살을 떼여붙이는 1차피부이식수술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하지만 안도감을 가질수 없었다. 새 피부를 이식받은 상처에서 예측할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날수 있었다. 그러면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남윤은 처음 환자를 맡아안았을 때부터 침식을 환자곁에서 하면서 순간순간의 증상을 놓침없이 관찰하며 치료대책을 세워나가고있었다.

그것이 딸애에게 관심을 돌릴수 없었던 까닭이며 또한 안해와 동행할수 없는 전제조건이였다.

역에 나와서 딸애를 넘겨주며 그는 다시한번 안해의 마음을 흔들어보았다.

《리해해주오. 당신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춘심환자를 위해 피와 살을 바치었소. 이제 와서 주치의사인 내가 어떤 다른 사정에 의해 환자한테서 한발자국이라도 멀어진다면 탄광마을 사람들앞에 무슨 면목으로 나서겠소.》

바람이 뽕얇게 눈가루를 말아올리며 덮쳐들었다. 그것을 막느라 품에 안은 아이한테 허리를 굽혔던 안해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어찌겠나요. 거기에도 유능한 의사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남윤은 안해와 딸애에 대한 미안하고 죄스러운 감을 금할수 없었다.

한참만에 안해는 눈물이 그렁한 낮을 그의 가슴에 묻으며 젖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애들과 당신이 걱정될뿐이에요. 제가 없으면 당신이 자기 몸을 더 혹사하실진 뻔하지요. 제발 몸을 돌보세요. 제물이 있구야 환자두 살릴게 아니겠어요.》

남윤은 안해를 태운 렬차가 먼 산굽이를 돌며 마지막적소리를 남길 때까지 눈사람처럼 까딱 안했다...

협의회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주치의사인 최남윤의 빈틈없는 치료계획을 듣고 환자에 대해서 락관했다. 기본들이 떠서 회의실을 나서는데 나이많은 원장이 해퍼진 하늘을 바라보며 실눈을 짓고 《어- 여름

이 거꾸로 오르나부다.》 해서 웃음과문을 일으켰다.

유독 최남윤이만이 웃지 않고 총총히 의무실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책상뒤편에서 담배를 꺼내 불어물었다.

그는 무엇인가 깨름하고 미적지근한 감정속에 빠져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격려와 선망의 눈길을 보내는것이였으나 그 자신만은 불안했다. 협의회에서 한 자기의 발언자체에도 어딘가 인위적이고 불철저한 감이 들었다.

그는 전화에서 받은 안해의 인상을 쉬이 지워버릴수 없었다. 안해의 웃는 얼굴과 환자의 이지러진 표정이 자꾸 엇갈리면서 이게 그 무슨 불길한 일의 전조는 아닐가 하는 황당한 억측까지 해보게 되는것이였다. 안해가 전화를 통하여 자기가 말아고심하는 환자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물어왔다면 그런 생각까지는 하게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는 안해의 처사가 불만스러웠고 더없이 섭섭했다. 환자에게 살까지 떼여주었던 안해가 아니었던가....

오춘심환자의 첫 피부이식수술때였다.

그날 남윤은 수술장문이 터지게 모여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명도 똑바로 기억하지 못했었다. 명백한것은 평상시 무심히 스쳤던 사람들, 평범하게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었던가 하는것을 가슴 뼈근히 체험한것이였다. 흥분때문에 수술칼을 쥔 손이 자꾸 떨렸다. 자그마한 수술대우에서 이름도 직업도 각이한 사람들의 얼굴이 수없이 엇갈리였다. 그 무수한 사람들속에서 안해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는 하마트면 자기 안해를 환자와 이웃에 사는 마음씨 고운 한 녀인으로 스쳐버릴번했다.

수술보조를 서던 간호원이 팔굽으로 그의 옆구리를 쳤다. 남윤은 언행에서 실수를 모르는 이녀자가 긴장한 수술장에서 무슨 군동작일가 하는 의문에 눈살이 꺾끗해서 얼굴을 들었다.

그는 뒤머리칼을 단단히 쥔, 그래서 동그스름한 얼굴뿔꼭이 더욱 선명한 웬 녀인이 자기를 향해 의미있게 미소하며 수술대우에 오르는것을 보았다. 순간 깜짝 놀랐다. 자기 안해였던것이다.

수술칼을 쥔 손이 허공에서 굳어졌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했소?》

하고 속으로 물었다.

《어서요!》

수술대에 누우면서 안해는 그렇게 한마디 했으나 《난 뭐 오지 못할텐가요?》 하고 반문하는듯했다.

결혼후 안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그 순간처럼 강렬하게 느껴본적이 없었다는것은 그후에 돌이켜본 느낌이다.

남윤은 생활과정에 아이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해한테서 큰것을 바라게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자기의 사색속에 가정생활문제가 끼여들지 않고 아이들이 탈없이 무럭무럭 자라 집안밖에서 남다른 귀여움을 받기 시작하자 거기에 안해의 수고를 국한시켜 만족해하는것이 어느덧 습관으로 굳어져버렸다.

《옥미 엄마같은 내인이 없지. 집도 잘 거둬, 남편공대두 잘해...》

엇그젠 우리 손주녀석이 길에서 넘어져 징징우는걸 제 집에 데려다가 손발도 씻어주고 밥까지 먹여보냈다네.》

어쩌다 동네 늙은이들한테서 그런 기사를 귀결에라도 얻어들으면 그 행복하고 흡족한 기분이 며칠씩 가곤하였다.

누구나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절엔 표현이 모자랄 지경으로 불같은 언약을 한다.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고이 지켜가는 사람이 생활속에 몇이나 될것인지?... 생활은 약속과 언약으로만 되는것이 아니어서 애초의 불같은 감정이 생활이라는 밑바닥에 가라앉게 되면 열이 식어지고 리상이 억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세파에 부대끼며 주춤거리며 퇴보하는 때도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리상의 범위는 한가정 또는 국한된 생활권안으로 좁혀지게 된다.

남윤은 바로 그런 생활의 법칙을 낱알이 깨닫고있었다. 그렇다고 그에 실망을 느끼거나 고민을 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겨를이 없었다. 그는 늘 바쁘게 살았다. 자기 사업에 대한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헌신성, 그것으로 그는 그런 공백을 메꾸어왔었다. 그런데... 안해의 미거는 바람없는 수면처럼 고요하던 그의 가슴에 회오리와도 같은 선풍을 끼쳐왔다. 그것은 분명 새롭고 소중한 감정이였다.

총각시절 귀엽게 생긴 안해를 정신없이 따라다니며 맛보았던 현훈증과도 같은 흥분이 온몸에 퍼졌다.

국부마취한 부위에서 사랑하는 안해의 살점이 수술칼에 물어올라오던 그 순간 남윤은 가슴이 섬벅하는 이상한 아픔과 함께 집에 들어가면 안해를 꼭 포옹해주리라 마음다졌다.

그처럼 사랑스럽고 더없이 훌륭하게 생각했던 안해였다. 그런데...

《...선생! 옥미가 더하대요?》

그 소리에 남윤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저어하듯 조심스러운 물음이었다. 그는 시선을 들었다.

가무스레한 얼굴에 늘 웃음기가 어려있는 중년의 녀인, 함께 치료조에 망라되어있는 입원실간호원 한승희였다. 비감을 안은듯한 그 녀자의 표정에서 자기 모양을 돌이켜본 남윤은 부러 우선 우선한 태도를 취했다.

《아, 아닙니다. 좀 나았답니다. 어제밤에 도병

원에서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요?! 야! 그런걸 난...》

그 녀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환성을 올리며 손벽을 쳤다. 좀 떨렸던 남운은 그의 심중에 이해되자 속이 푸근히 가라앉았다.

환자치료에서나 생활에서 극성스러운데가 있는 이악한 녀자이다. 앞 못보는 남편과 10여년을 살면서도 얼굴에 그늘 한점 드러내지 않은것은 물론이고 남을 돕는 일이라면 얼음길을 맨발로 걸으면서도 웃을수 있는 녀자, 남운의 딸이 병원에 있는 전기간 그를 대신해서 각근히 돌봐주고 함께 근심해준 녀자였다. 그런 그였기에 딸의 소식을 무심하게 들리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왜 그리 상심한 빛이예요. 결사람까지 놀라게...》

남운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씩씩히 웃어버렸다.

그다음 곧 표정을 바꾸어 하루 지시를 기다리는 준의와 간호원인 그 녀자에게 오늘 담당환자치료에서 지켜야 할 몇가지 사항을 짚막하게 이야기하였다.

남운은 그들이 나가자 얼마 타지 않은 담배불을 비벼끄고 의자에서 몸을 비스듬히 돌린채 피로가 물린 머리를 등받이에 기댔다.

그는 오늘 자신이 세운 엄격한 생활질서를 어기고있었다.

그는 아침시간에 담배를 피우는것을 사업에서나 생활활동에서 매우 유해로운것으로 보고 그것을 금했으며 의자에서 몸자세를 흐트리는것은 일종의 방종한 표현으로 간주했다.

의무탁은 출입문과 정면으로 대체되어있다. 병보러 온 사람의 의무실문을 여는것과 동시에 의사를 마주보게 된다. 그는 이때 자기의 몸자세가 제때뚱하거나 모로 틀어져있는 경우 아픔을 하소연하러 들어온 병자의 심리가 어떠한것인가를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의무실에서 자세를 바로하는것을 환자에 대한 의사의 도덕으로 지켜왔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한가지 생각에만 빠져있었다.

그의 시선이 머물러있는곳은 성에가 하얗게 진 창유리에다 빨간 꽃잎을 한들거리고있는 제라늄 화분이였다.

그는 이 방의 녀인들이 아침저녁으로 물주며 애지중지 가꾸는 저 꽃에 대해서 좀 이질적인 견해를 갖고있었다.

어느해 겨울인가 외과의무실로 오는 난방관이 터져서 이틀동안 방에 랭기가 휩쓴적이 있었다. 난방관수리에 급급해서 화분파우엔 주의를 돌리지 못했던 이 방의 주인들은 며칠후에야 꽃잎이 데쳐진것처럼 후줄근해진 창가의 제라늄을 발견하고 못내 아쉬워했었다. 결사람들은 그저 아쉬워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남운은 화분에 피는 꽃

의 연약성에다 그 비슷한 생활현상을 빗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었다.

저 꽃을 지금 당장 쌀쌀한 바깥에 내다놓으면 어떻게 될것인가. 그러면 자기를 지켜서 차거운 얼음버께를 뒤집어쓰고있는 창유리에 그 아름다운 자태를 더는 뽐내지 못할것이다.

제라늄은 화분에서만 눈에 뜨이는 꽃이다.

남운은 꽃은 절로 피는것이 진짜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조건이 마련되고 속성이 고운 다음에야 무엇인들 아름답게 피어나지 못하랴.

인간의 본래의 속성도 아름다움이다. 환경이 좋으면 곡절을 겪지 않고도 그 아름다움이 얼마든지 빛을 낼수 있는것이다. 안해의 행위는 편하고 좋은 조건에서 발휘된 미저이다.

남운은 그렇게 결론지었다. 그후에 《딸의 급병》이라는 악환경이 조성되자 온 정신이 그리로 쏠려 남의 불행을 안중에도 두지 않은것이다.

사람이 자기 불행에 넋을 앗기우면 다 그렇게 되는것일까?

그는 때없이 담당환자인 오춘심의 소행을 생각해본다. 오춘심의 병력서를 작성할 때 그는 탄광로동안전과에서 보내온 《사고보고서》를 보았었다. 거기에는 처녀가 다리를 상하기까지의 정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있었다.

권양기운전공인 오춘심은 사생으로 탄차를 끌어올리던 도중 카프링(축이울손)의 편결대가 꺾여져나가는 불의의 정황에 맞닥들렀다. 재빨리 비상제동끈을 잡아당겼으나 끈의 탄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춘심은 카프링을 제압하게 되어있는 제동장치에 나트가 풀려서 틈이 벌어지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쇠바줄에 매달린 탄차는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사생명에서는 탄부들이 일을 하고있었다. 그대로 두면 몸서리치는 집단사고다! 카프링의 회전이 더 빨라지기전에 기계를 멈춰세워야 했다. 그런데 그런 정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기계실 안에는 동발목 한대가 있었다. 춘심은 늘어진 비상제동끈을 팔에 감아쥐고 어깨에 의지한 동발목을 카프링밑에 들이밀었다. 지주목이 없는 동발목은 힘을 쓰지 못했다. 게다가 기계기초는 매끄러운 세멘트바닥이었다. 하지만 처녀는 기계를 멈춰세웠다. 그 어리고 연약한 처녀가 무슨 힘으로 전동축과 완전히 분리되었던 제동장치를 멈추었는지 선뜻 믿을수가 없었다. 처녀는 초인간적인 힘으로, 다리가 바퀴밑으로 미끄러져들어가 그대로 《지주목》이 되는것도 모르고 자기의 온몸을 내대었던것이다. 제동장치와 동발목사이에 끼운 다리는 압좌당하면서 발목에서부터 대축으로 절창, 다리근육 형체없이 짓이겨짐...

남운은 병력서를 작성하면서 속으로 울었다.

처녀가 의식을 회복하던 때 있던 일은 그보다 더 눈물나고 감동적인것이였다.

한밤중이었다.

환자가 병원에 실려온후 10여일동안이나 밤낮 없는 소생전투를 벌려온 남운은 몸을 쓰러뜨릴것 처럼 물려드는 피곤을 가까스로 참으며 환자의 침상을 떠나지 않고있었다. 그밤엔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일이 닥칠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표정없던 환자의 얼굴에서 아픔을 하소연하는것 같은 미세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던것이다.

자정이 넘어서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다.

남운은 기쁜 나머지 소리라도 지르고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팔을 침대가늑에 버티고 환자를 정신없이 들여다보았다. 무겁게 내리덮였던 눈시울이 벗겨지는것은 흡사 엷은 무대막이 서서히 걷히는 모양을 방불케 했다. 크고 고운 눈이었다. 남운은 신비한 세계를 보는듯했다. 생사의 계선에서도 눈빛만은 생동하게 살아있은것이다. 누가 말했던가! 눈은 깨끗한 정신의 우주라고...

환자의 눈동자가 천천히 남운의 얼굴에 와 멎었다. 거뭇게 마른 입술이 아직 생을 믿지 못하고 다물려있는것이 안타깝다. 한참만ैया 그 입술에 실오리같은 틈이 생겼다. 드디어 환자가 말을 시작하려는것이였다. 가느다란 소리가 입술로 새어나왔으나 무슨 소린지 분간할수 없었다. 남운은 바짝 귀를 강구었다. 아득한 공간을 사이에 둔듯한 목소리.

남운은 드디어 알아들었다.

《사람들...이... 무사...하나요?...》

남운은 눈앞이 흐려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직 젊고 인생경험도 풍부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사경에 처했던 사람이 의식을 회복한 첫순간에 터치는 말은 그 인간의 생각이나 념원, 생의 의의가 집약된 말일것이라고 믿어마지 않는다. 거기엔 꾸밈이나 억지가 끼울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는 그때를 돌이켜보며 춘심이결에 자기를 슬며시 세워본적이 있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가 하고...

이틀전에 진행한 2차피부이식수술때에는 다른 면에서 그를 놀라게 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로 장사진을 쳤던 1차이식수술때에 환자의 친척이나 병원일군들은 수술장에 들어설 엄두도 못냈었다. 의료집단은 2차이식수술을 앞두고 이번만은 소문없이 의료일군들의 살점만으로 한차례의 이식수술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승희간호원이 앞 못보는 자기의 남편인 김정호를 데리고 수술장에 나타났다. 그것은 성한 사람 백이나 천의 출현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아닐수 없었다.

《남운선생, 저이가 기어코 데려다달라고 해서...》

남을 위한 일에서 생각을 앞세우거나 주저를 모르던 한승희였지만 이때만은 당황한 빛을 숨기

지 못했다.

김정호는 10여년전에 당의 호소를 받들고 탄광으로 제대되어와서 막장일을 하던중 불발되었던 퇴관에 맞아서 두눈을 잃은 사람이였다. 그 당시 처녀였던 한승희는 그의 담당간호원이었다고 한다.

탄광을 위해 자기의 두눈을 서슴없이 바친 사람, 어떻게 그에게 칼을 댈수 있으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살에만은 칼을 댈수 없었다.

수술장밖에서 안의 동정을 엿듣던 김정호가 문을 열고 들어선것은 그때였다.

《...선생!》

그는 문가에 서서 남운을 불렀다.

남운은 성큼 걸어가서 그를 불안았다. 이마가 번듯한 미남형의 얼굴에서 어글어글한 큰 눈을 순간적으로 상상해보며 그의 몸을 흔들었다.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김정호는 아무 말 없이 남운의 팔을 더듬어잡고 한결로 잡아끌었다.

두사람은 다리침을 하느라고 들여놓은 의자에서로 마주앉았다.

김정호는 남운의 손을 제 무릎우에 끌어당겼다. 화끈 단 손이었다. 어찌나 짝 쥐는것인지 질척하게 땀이 다 느껴지였다.

《남운선생, 난 나자신의 체험으로써 인간이 육체적불구가 되었을 때 그 좌절감에서 오는 정신적고통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쓴것인지 압니다. 저 춘심이라는 처녀한테 그런 고통을 맛보게 하여서는 안되지요. 얼마나 기특한 처녀입니까! 제발 좀 떠들지 말아주시오. 살 한점 쩌다구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그냥 돌아가면 난 잠을 못잡니다.》

남운은 거절할 용의를 잃었다.

인간은 정으로 엮힌 존재이다. 정으로 살고 정으로 통하는것이 인간생활이라고 하지만 매 인간이 남에게 줄수 있는 정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남운은 그날 김정호의 허벅다리에서 피부를 떼여내면서 이 사람은 한생을 암흑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행을 겪고있으면서도 어찌면 남의 불행에 이처럼 민감할수 있을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보면 성정이 어진 한갓 아이어머니에 불과한 자기 안해를 그런 사람의 세계와 대등한 위치에 놓고본다는것은 어딘가 어울리기 않는 생각일지 모른다.

내가 안해에게서 너무 큰것을, 기대할수 없는것을 바라고있는게 아닐가?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아이도 무탈하고 모든것이 예전 그대로였더라면 이처럼 불만스러운 회상이 없을것이 아닌가. 내가 중환자를 맡아나서고 잇달아 딸의 급병이라는 가정적인 불행이 겹친것은 그야말로 공교로운 운명의 희롱이 아닐가?

그랬었다. 운명의 공교로움을 야속해하며 탓한 적이 있었다. 언제인가는 그것을 놓고 모순에 빠진 적도 있지 않았던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제풀에 흠칫 놀라며 자리를 고쳐앉았다. 한쪽에 놓인 병력서문치를 끄당겨놓으며 시간가는줄 모르고 지내 움해있는 자신을 책하는듯했으나 실은 어떤 끈끈한 감정의 침습을 피하려는 심리의식이 작용한때문이었다.

그는 병력서를 뒤지던 손으로 의무탁을 누르며 일어났다.

한겨울의 게으른 해벌이 벌써 창유리에 붙은 성애를 녹이고있었다.

기분을 전환해야 했다. 회복기에 들어선 딸의 소식, 그것이 그의 감정을 차지할수 없단말인가?

딸애의 병이 절망적이라는 소식이 왔다면 그도 절망했을것이다. 아니었기에 안심이 되었으며 안심할수 없는 자기 환자한테 더 마음이 씩여지는 것이었다.

남운은 늦은 저녁에 집에 갔다. 아버지를 기다리다 지쳐 너털청한 방에 저녁도 못먹고 쪼그리고있을 두 딸을 생각하며 성급하게 문을 연 것이었으나 방안엔 다른 광경이 펼쳐져있었다. 애들은 이불우에 두툼한 담요를 덮고 나란히 누워 자고있었다. 그는 깨끗이 정돈된 방안을 이상한 눈길로 살피고 부엌을 유심히 내려다봤다. 가마뚜껑우에 이런 글쑤지가 놓여있었다.

《남운선생, 애들은 저녁을 해먹었어요. 제가와보니 인민반 아주머니들이 집이랑 거두고 애들 빨래까지 해놔더군요. 한승희.》

그는 잘 해득이 안되는 글쑤를 마주했을 때처럼 글쑤지를 눈앞에 바투 대고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할일이 없게 된 그는 애들의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았다.

올해 인민학교 1학년생인 암전한 만딸은 자는 모양이 곱다. 덜통하고 벌찬 둘째딸은 모포밑으로 쑥 빠져나온 다리를 제 언니의 배우에 가로지르고 썹썹 코소리까지 내며 자고있다. 둘째가 거의 침범해버린 가운데공간에 납작하고 자그마한 빈 베개가 놓여있다. 막내가 옥미의 베개이다.

며칠전 일이었다.

그날 남운은 자기를 기다리다 못해 병원까지 찾아나온 두 딸을 이끌고 집으로 오고있었다.

오늘같이 늦은 저녁이었다.

아버지의 저녁회진이 끝나기를 고대하며 의무실의자에 기대앉아 까닥까닥 졸던 애들이 밖에 나서자마자 잠기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그의 목직한 팔을 갈라전체 뽐박질했다.

《난 아버지가 해주는 가마치가 참 맛있어.》

《음- 먹새같은거.》

《혁이 할머니가 왜 아버지보구 인사했나? 선생

님한테처럼.》

《아버지도 선생이니까. 〈의사선생〉.》

《행, 언넌 몰라. 판사람한테 인사 안했어.》

《건 아버지가 병을 잘 고치니까.》

《근데 왜 옥민 못고치구 떴네 보낸?》

《응, 그건 아버지가 외과의사이기때문이야. 그렇지요? 아버지.》

딸들은 집까지 오는 동안 쉴새없이 조잘댔다.

집안을 거두고 애들에게 밥까지 해먹이고나니 밤이 이속해졌다. 어느때같으면 이미 뿔아떨어졌을 애들이 그날은 좀처럼 잠에 들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 엄마랑 옥미랑 보고싶어요.》

눈알이 말뚱해 누워있던 만딸 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난 옥미가 막 보구파. 이제부터 올리지 않을래. 간식이랑 나눠먹으면서.》

《아버지, 옥미가 언제 오나?》

《인차 올게다.》

《정말?》

《응, 어서 자거라.》

《야! 좋다.》

둘째 향미가 손벽을 치며 일어났다. 무슨 생각이 나서인지 이불장을 열고 거기에서 옥미의 베개를 안아내리는 것이었다.

《언니야, 옥미가 오면 이제부터 여기서 자라구 하자.》

하며 향미는 자기 베개를 밀고 가운데자리에다 막내이의 베개를 쓰다듬어놓았다.

순간 남운은 왜서인지 속이 후두두 떨렸다...

그날부터 남운은 막내딸의 젖내 풍기는 그 납작한 베개에 눈길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사실 막내딸의 소생을 거의 바랄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가 보기에는 도병원으로의 파송이 일정에 올랐을 때 딸애의 병은 림상권내를 벗어나있었다. 그러면서도 파송에 응하게 된다는 두가지를 생각해서였다.

하나는 딸애를 담당했던 함께 일하는 의사들의 애바른 성의를 물리칠수 없는 사정에서였고 다른 하나는 만일 여기에서 일이 틀어져가는 경우 중환자를 안고 모대기는 자기에게 덮쳐들 정신적 타격이 두려워서였다. 그것은 사업을 위해서는 옳은 처사일지 몰라도 《아버지의 랑심》에는 무섭게 저촉되는 것이었다.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하여 그는 거의 실신상태에 있는 딸을 안해의 품에 맡겨버린 바람부는 역흡에서 어떤 막연한 기대감에 발을 붙이고 거기에 매여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혹시 알겠는가? 《운명에 맡겨보자》하는...

만일 의사가 생명이 경각에 이른 환자를 향해 그런 숙명적인 관념을 방편으로 삼고 메스를 든다면 돌이킬수 없는 후파를 초래할수 있을것이

다.

하지만 그는 그때 생명을 책임진 의사가 아니라 자식의 구원을 바라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그렇게 떠나보냈던 막내딸이었다. 그런데 그애가 정말 그 운명적인 계선에서 벗어났단 말인가?!...

남운은 자는 애들을 남겨두고 다시 병원에 나왔다.

입원실에는 춘심이 혼자만이 있었다. 춘심의 부모, 친척들과 면회자들로 하여 조용한 시간이 따로없던 방에 그만이 외롭게 누워있는것이였다.

늘 딸의 곁에 지켜앉아있다가 남운이 들어서면 허리가 휘도록 겁석겁석하며 마주 달려나오곤하던 춘심의 아버지는 며칠째 보이지 않고있다. 딸처럼 눈이 크고 어지게 생긴 허우대 큰 사람이다. 며칠전에 그 어진 사람이 성을 냈던적이 있었다.

《선생은 내 딸을 위해서 밤잠두 잇구 정성을 다하는데 그 딸의 애비인 난 선생의 막내딸이 도 병원예까지 후송된걸 모르고있었구려. 너무하웨다. 좀 알려라도 주면 못쓴답디까. 난 그래 선생의 집안일을 걱정이나마 못해본단 말이요?》

순박한 사람이 흥분하면 건잡지 못한다는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것이다. 남운은 낮이 달아오르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진 그 의리심깊은 사나이를 어떻게 진정시켰으면 좋을지 모를 난감한 처지에 빠졌었다...

잠에 든 모양인지 춘심은 기척이 없다. 마분지로 불빛가리우개를 해썩은 조명등이 침대주위에 무거운 빛을 던져주고있다.

그는 틀에 고정하여놓은 춘심의 다리가 놓인곳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약물치료를 하느라고 걸썩 감싼 붕대를 조심스럽게 벗겼다. 형태가 어느정도 잡힌 벌거죽죽한 종아리가 드러났다. 2차에 걸쳐 피부이식한 부위이다.

그는 주의깊게 여겨보았다. 아직은 많은것이 의심스럽지만 새 피부가 자기 활동을 시작한것이 알린다. 한창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고있을것이다. 남의 피부를 자기의 피부로 되게 하는 과정, 즉 자기 아닌 남을 자기로 받아들이는 그 진통과정을 생리학에서는 면역계통에 의한 항원항체반응이라고 한다. 그 진통이 순조롭게 끝나면 상피조직이 살아나 새 살로 되는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화농이 생기고 나중엔 살이 썩게 된다...

《선생님.》

하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춘심이가 머릿만 비스듬히 돌리고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잠에 들었던 눈빛이 아니었다.

《자지 않고있었구나.》

춘심은 할숙한 낮에 연한 미소를 그리며 수궁한다.

《눈만 감고있었어요.》

《잠이 안오지?》

만신창이 된 다리의 피부결층을 수술칼로 긁어낼 때조차 신음 한번 지르지 않았던 맵짠 처녀인지라 침상에 엮매여있는것을 지겨워하기 시작한것이 알린다.

《선생님생각에 잠이 안왔어요.》

《무슨 소리냐?》

《선생님은 오늘 뭔가 좀 달라요. 우선 발소리가 이상했어요. 선생님의 발소리 발뒤축이 살살 쓸리는 조급한 소리가 나는것이 정상인데 오늘은 뚜거덕 뚜거덕하는 느린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음악에서 말하면 한음계 낮은... 또 선생님이 의무실에서 예까지 오시는 시간은 2분인데 오늘 다섯번 오신중에 네번은 30초를 초과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색도 썩 좋지 못해요. 혹시 욕미가 더하다는?...》

남운은 놀랐다.

환자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의사의 모든것을 그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보고있었다. 남운은 자기가 되려 환자의 관심 속에 있다는 유별난 느낌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선생님, 왜 말씀 없나요? 하긴 나 같은것한테 터놓았대야 무슨 소용이 있겠다구...》

《됐다. 넌 생각을 지내 많이 하는게 탈이다. 그러니 상처가 빨리 낫지 않지. 환자는 오직 자기 병을 고칠 그 한가지 생각만을 해야 돼.》

이에 춘심은 투정질하듯 머리를 흔든다. 그러더니 표정이 풍부한 눈에 말간 눈물방울을 떠올린다.

《이젠... 저때문에 병원에서 밤패지 마세요. 식사랑 집에 들어가 하시구... 아이참, 앉으세요. 선생님, 다리아프시겠는데 여기... 여기 의자가...》

《됐다 됐어. 몸을 움직이지 말아.》

그래도 춘심은 머리맡에 있는 의자를 어떻게 하든 제 손으로 당겨놓고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힘없는 팔을 의자에 뻗친채 거두지 않는다.

그 단순하고 별첨은 행위에 남운은 눈곱이 찢어졌다. 그는 나긋하고 헐거분한 춘심의 손을 떼여놓으며 코물을 훑 들어켰다.

《원, 고집쟁이!》

《고집없으면 춘심이 아니지요.》

춘심은 새뭇이 웃으며 식은 눈물을 손가락으로 짖어낸다.

《춘심인 이자 욕미에 대해 물었지. 그애가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연락이 왔다.》

그 말에 춘심은 예상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게 정말이예요?》

가뜩이나 큰눈을 더 크게 뜨고 믿기 어려운데 남운을 똑바로 올려다본다.

《절 위안하느라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허허, 무슨 소릴 하니. 사실이다.》

《그래요?! 야! 난 좀전에 선생님이 대답을 피

하시는것 같아 욕미 상태가 그닥 좋지 못한줄로 짐작했어요. 선생님두 참, 진작 그 얘기부터 하지 않구... 그 소식이 오길 내가 얼마나 고대했대구요, 얼마나!... 됐어요. 선생님, 이젠 됐어요! 야, 욕미가 완쾌되어 오겠군요. 욕미가 오는 날 난 일어나 앉기라두 해알텐데. 그애를 꼭 안아보게!...》

춘심이는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모른다. 큰눈에 새롭게 고이는 눈물은 그 기쁨이 흘러 넘쳐난 것이 아닌가싶다.

순간 남운은 섬광과도 같이 뇌리를 스치는 한 생각에 몸이 딱 굳어졌다. 방금까지 혈관속에 흐르던 따뜻한 피가 싹 빠져나간듯한 싸늘한 느낌에 눈앞이 아득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어쩔수 없이 떠오른 생각이었지만 항시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있던것이였다.

...한달음에 오가던 집까지의 거리가 것처럼 멀어보이기는 처음이였다. 속이 후리후리하고 눈앞에 별찌 같은것이 아물거려서 발이 땅을 딛고있는지조차 믿을수 없다. 겨우 집까지 와서 구들에 올라앉은 후에야 그는 벽에 기대서 맥을 놓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수 없었다. 안해가 흔들어서야 간신히 눈을 떴다. 앞에 저녁상이 놓여있었다. 별식이였다. 고기도 있고 한겨울에 보기드문 생신한 썩갯도 있었다. 그런데 구미가 닿는것이 없었다. 달갑잖게 보는 안해를 대하기가 먼구해서 억지로 수저를 들었다. 벽쪽으로 돌아앉아서 먼눈을 팔고있던 안해가 참지 못하고 대들었다.

《꼭 그렇게 해야 했어요?》

남운은 수긋하고 빈 수저만 쥐었다 놓았다 했다. 타발을 해도 좋고 욕을 해도 먹어준다 하는 태도였다.

《이 말만은 하지 말자고 했는데... 해야겠어요. 요즘 당신 몸상태가 어떤지 알기나 해요. 자기 몸도 좀 생각해야지요.》

남운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만하오!》

그는 피줄이 파랗게 두드러진 자기의 주먹이 어느 순간에 밥상 한귀퉁이를 내리쳤는지 몰랐다.

멀시하듯 안해를 노려보았으나 자신이 무엇에 대고 분노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다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조차 않았었다.

다음날 그는 침상에 누워있는 어린 딸곁에 갔다.

《욕미야!...》

그는 새처럼 팔딱거리는 조그만 가슴을 조심히 흔들었다. 딸애는 눈을 뜰 기력도 없는듯했다. 초점이 없는 흐리멍덩한 눈동자가 겨우 눈거죽을 비집고 자기한테 열심히 머리를 기울인 아버지를 덤덤히 올려다볼뿐이였다. 모든것을 초탈한

그런 사람의 눈빛이였다. 그 눈에 다시금 아빠, 엄마를 알아보며 방긋거릴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는것이 의학상식밖의 일이 아닐가 하는 예감이 들자 세상에 나서 이제 겨우 세해를 산 어린것한테 죄되는 일만 하여온 아버지의 후회가 가슴벽을 두드렸다. 갓 낳았을 때 세번째도 딸이라고 기분이 없어하던 생각도 났다. 그래 그런지 막내가 두툼이 지난 오늘까지 만딸이나 둘째처럼 그렇게 애정을 기울여본적이 별로 없는듯했다. 앓아서 병원에 온 다음에도 환자에게만 정신이 팔려서 언제 한번 따뜻한 손으로 이마를 짚어주고 약물 한방울 떠넣어주지 못했다. 그것이 죄로, 후회로 남아 사랑에 주린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대고있었다.

사경에 처한 환자를 위해서는 것처럼 의로웠던것, 마음만은 더없이 개운하고 떳떳했던것이 딸 애앞에서는 여지없이 부정당하고 죄의식으로까지 마쳐오자 마음을 어디에 지탱하고 위안받아야 할지 알 길이 없었다.

욕미야, 나를 탓해라, 아버지가 미쳐 주지 못했던 사랑을 한생을 바쳐서라도 다 줄수 있게 제발 어려운 고비를 넘겨다오!

그는 갈피를 잡을수 없는 자기의 심리를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남운은 그후 그때를 돌이켜보기 두려워했다.

그 찌뚱지 못한 감정이 다시는 가슴에 스며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밤 오춘심의 눈물겨운 진정이 속갈피에 은밀히 숨어있던 그것을 다시금 흔들어깨운것이다. 그 감정의 지배를 받게되자 그는 춘심이와 더 마주앉아있을수 없었다....

의무실에 돌아온 그는 눈을 좀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는다. 그는 한참 뒤채기다가 종시 일어나앉았다. 책꽂이에서 두툼한 《림상사전》을 꺼내들었다. 글줄은 뜻없이 눈에 밟혀오고 머리속에 새겨지는것은 다른 형상이였다.

이제 다시는 순결한 춘심이앞에 스스럼없이 다가가 아픔을 물어보고 투정을 받아주고 웃음을 짓는 자기를 못보리라는 예감...

그는 한줄도 읽지 못한 책을 덮었다.

그릴수 없다. 그런 생각은 버리자, 모든것이 예전처럼 흐를것이다.

그는 다시 누웠다. 이번에는 불을 끄고 외투를 머리까지 뒤집어썼다. 허리를 꼬부리고 턱을 가슴팍에 짖 끌어다붙이였다. 헛되인 노력이였다.

청하는 잠은 오지 않고 무엇인가 애매하고 몽롱한것, 애써 잊고 멀리하러던것이 점점 뚜렷한 형태를 띠며 다가와서 몸에 감겨드는듯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장승처럼 버티고 섰다.

딸의 침상곁에 우두커니 서있던 자기의 모양이 다시 떠오른다. 그다음 막내딸의 빈 베개를 보며 앉아있던 며칠전의 불안한 그밤의 일이 겹쳐

진다.

그날 그는 두 딸곁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쪽잠에 들었었다. 가위눌린 꿈에서 한참 허덕이다가 깨어나니 이마에 식은땀이 죽 흘렀다.

다시 잠들수 없게 한 꿈이었다.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막내딸, 안해의 애절한 부르짖음, 자기를 부른다. 이제라도 아버지가 빨리 오면 살릴수 있다는것이다. 앞에는 수백리길, 야속한 정황이다. 달렸다. 그런데 발이, 다리가 뜻대로 움직여줘야 뛰지 않겠는가?...

그는 땀을 흘릴념도 않고 벽에 머리를 기대고 얼빠진 사람처럼 앉아있었다. 온 밤을 뜬눈으로 새우며 난생처음 그토록 심한 고독감을 체험했다.

창문유리를 흔드는 스산한 바람소리, 푹푹거리는 벽시계의 공허한 울림소리.

누군가 자기를 쓸쓸하고 측은한, 동정어린 시선으로 보고있었다. 옷도 벗지 못하고 새우처럼 꼬부리고 자는 모습을 불쌍하게 내려다보고있었다.

아, 그날... 그것은 분명 자기였다. 운명의 공교로움을 야속해하고 무엇인가 희생당한것을 아쉽게 여기며 그 누구인가의 동정을 바란 제2의 자기였다.

나한테 그런 2중적인 감정이 자리잡고있었던 말인가? 아니,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그렇다면 너는 안해한테는 《무정한 남편》으로, 딸애에게는 《랭랭한 아버지》로 잘못 보이면서까지 제 혈분이 아닌 환자를 위해 그렇듯 애쓰고 있는 자기를 떼뗄이 여기는가?...

이 명백한 내심의 질문에 그는 대답이 막혔다.

이때 인기척이 난것은 참 다행이었다.

《남윤선생 있어요?》

컴컴한 방에 어방대고 찾는 낮으나 성급한 여인의 부름소리.

한승희간호원의 목소리였다.

남윤은 구급환자가 생긴줄로 예상하고 불을 꺼는것과 동시에 안에 들어서는 한승희의 어깨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전화왔어요. 옥미 엄마한테서.》

남윤은 미간을 찌프리며 내짚었던 발을 슬며시 거둬뒀었다. 뒤통리에 부딪친 의자에 그냥 엉치를 붙이려다가 생각을 고쳐했다. 아침처럼 그 녀자에게 의혹을 주고싶지 않았다.

《헌데 밤중에 왜 나왔습니까?》

그는 나가면서 한승희를 의아쩍게 봤다.

《우리 세대주가 춘심이 면회가자구 자꾸 성화를 먹이잖겠어요. 뭐 환자에겐 밤동무가 귀인과 같다며...》

남윤은 가벼운 웃음을 남기고 입원실쪽으로 가는 그 녀자의 뒤모습을 생각깊이 바라보았다.

실명을 당하고 쓸쓸히 제 고향으로 피해간 청

년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해 낯설은 시내의 살림집창문밑에서 무려 3일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지켰다가 끝내 언약을 받아냈다고 하는 불덩어리 같은 심장을 지닌 어제날의 처녀간호원.

처녀시절의 가슴부푸는 꿈도 희망도 고이 묻어버리고 앞 못보는 사람의 눈이 되어 일생을 간호원으로 살기를 결심했다는 녀인이었다.

남윤은 저들부부가 혹시 한생의 언약을 드림없이 지켜가고있는 리상적인 쌍일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생각과 함께 자기들 부부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다.

복도를 걸어가며 그는 한숨을 지었다. 수화기를 드니 아침과는 달리 차분하게 느껴지는 안해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아침엔 할말을 다 못했어요.》

하고 안해는 허두를 뻗다.

《하루종일 당신이 왜 전화를 끊어버렸을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잠도 안오구... 당신도 쉬시지 못할것 같아서...》

《무슨 애긴지 하요.》

그는 송수화기를 들지 않은 손으로 의자를 당겨앉으며 흥심없이 응대했다.

《전화로 다 이야기하긴 어려울거예요.》

전 옥미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상실했다고 해도 할소리가 없어요. 일주일전에 역에서 당신과 헤어질 땐 당신이 원망스러웠고 내가 외롭구 애가 불쌍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초볼같은 애의 생명을 나혼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와 견딜수 없었어요.

옥민 여기 와서 더 심했어요. 수혈까지 받았어요.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전 맥박이 없는 애를 붙안았다가 겁에 질려 놓아버리기까지 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 정신이 아니었던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있었으니까요.

세살짜리 어린 생명을 위해 이 큰 병원에서의 사협의회가 몇번 열리고 숨이 꺼져가는 아이의 소생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있는지.

우리 옥미를 위해 그 미미한 맥박을 붙잡고 밤을 새운것은 내가 아니라 의사선생님들이었어요.

애한테서 숨소리가 몇자 서슴없이 애의 입에다 자기 입을 대고 소생의 숨결을 불어넣어준 사람도 제가 아니었어요. 옥민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 애를 위해 바친 여기 선생님들의 수고를 다 이야기할수 없는것이 안타까와요. 그리고 당신의 환자인 춘심이 아버진 휴가를 받고 여기 와서 살고 있어요. 바로 옥미의 침대곁에서 말예요. 저보다 더 많이 밤을 새우군해요. 당신한테 자기가 여기 와있다는걸 알리지 말라고, 그걸 알면 애바른 남윤선생이 그때문에 속을 쓸거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제 말하지 않을수 없군요. 전 정말 죄스러워서 못견디겠어요. 죄스러워서... 제판엔

의사의 안해라고, 의사인 당신을 이해하고 돕는다고 했지만... 용서하세요. 지난일을...

전 이번에 너무나 많은것을 새롭게 알았어요. 옥미 아버지, 전 옥미의 몸에 흘러든 값비싼 주사약과 고단백식품, 고가약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옥민 수혈만 해도 세차레에 걸쳐 받았어요.

전 누가 내 딸의 몸에 피를 뽑아넣어주었는지 그것조차 몰라요. 그런 어머니가... 나같은 부실한 애엄마가 어디에 있을까요!...》

남운은 말이 끊기운 송수화기를 누가 아아가기라도 할가봐 두손에 꼭 그러쥐고있었다. 안해의 흐느낌인지 수화기의 소음인지 가늠할수 없는 소리가 가슴을 적시며 흘러들었다.

그는 전화가 언제 끝났는지 알수 없었다.

발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가늠하지 못했다.

서고보니 밖이었다. 그는 넓다란 마당가운데 우뚝 섰다. 추위도 느껴지지 않고 바람 한점 없는 꿈속같이 고요한 밤이다.

한대 피우고싶었다.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담배는 없고 라이타만 손에 잡혔다. 무엇인가 잃어버린것처럼 속이 알뜰근하다. 의무실에 담배가 있었다. 1분이면 잤다울수 있었지만 다시 방에 들어가고싶지 않았다.

그는 측백나무가 담을 두른 울타리밑에 가서 라이타를 만지작거리던 손으로 녹지 않은 눈을 한웅큼 움켜쥐었다. 그것을 단 얼굴에 가져다댔다.

밤의 고요를 휘저으며 어디선가 높지 않은 웃음소리가 날아온다. 입원실쪽이었다.

환자들은 밤을 싫어한다. 밤에 누가 찾아오면 손님을 온밤 불들고 놓아주고싶지 않아하는것이 환자들의 공통적인 심리이다.

그러니 이상할것도 없다. 하지만 남운은 불빛이 명료한 여러 입원실중에서 방금 웃음소리가 새어나온 창문을 찾아내고싶은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리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일떨어진 짙광이나마가지가 열기설기 창문을 가리운 방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조금전에 그자신이 들어가있던 오춘심의 입원실이다.

그는 멀찌감치 물러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을 등지고 앉아서 과일을 꺾고있는 녀자가 한승희간호원이다. 그 맞은편에 검은 안경을 쓴 그의 남편 김정호가 의자에 앉은 몸을 앞으로 숙일사하고 손세를 쓰며 무슨 말인가 하는데 본래 인상이 좋은 사람인지라 환이는 줄곧 드러나있었다.

등에 배개를 고인채 몸을 반쯤 일으키고 김정호와 이야기에 심취되어있는 춘심의 얼굴표정이 이 밤따라 생동하게 느껴진다.

김정호가 우스개소리를 한 모양이다. 춘심이가 소리까지 내며 웃는것이였다.

남운은 아직 춘심의 웃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 그런지 그 웃음소리가 무척 기쁘게 들

린다.

웃음의 여파에 떠서 그냥 생글거리는 처녀, 저 얼굴에 언제 근심과 절망의 그림자가 비껴있었던가.

춘심은 확실히 환자일반을 대하는 의사와 타성으로만 볼 처녀가 아니다. 남운은 저 처녀한테서 런던과 동정의 감정보다 깨끗하고 의로운것을 더 강하게 받아안았었다.

《선생님, 전 의식을 회복했을 때 내가 다리를 다쳤다는것을 몰랐어요. 선생님은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런 어마어마한 용단을 내렸는가고 물으시는데 전 그 정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 안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날 마치 큰 일이나 한것처럼 자꾸 추어주니...

후에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겁을 먹었했어요. 선생님도 생각나시지요? 제가 어린애처럼 우니까 눈물을 닦아주며 달래시던 일 말예요.

전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저 엄마보다도 의사선생님들이 곁에 없으면 당장 죽는것 같아서 선생님만 찾곤했지요.

제가 첫 수술을 받던 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춘심이, 정신을 잃지 말라구. 아픔은 생각으로 이기는거다. 넌 꼭 회복돼. 자 봐라. 여기 그리구 저 바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너를 지켜보고있는가 보아라.>

언제인가 깊은 밤이었어요. 피곤이 물려서 잠에 들었던 제가 갑자기 동통이 와서 눈을 떠보니 면회왔던 저의 동무들도 다 가고 엄마도 지켜서 잠들었는데 선생님만이 제 머리맡을 지켜앉아 체온계를 살펴보고계셨지요. 전 그때 상처의 아픔보다 내가 막 미웠어요. 피발이 선 선생님의 눈을 보며 내가 얼마나 철없는 미련둥이일가 하고 생각했어요. 자기 고통만 생각하고 자기 아픔만 하소연하고... 이렇게 지극한 선생님과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불구가 된들 어쩔단 말인가. 당장 뛰쳐일어나 <다리를 잘라주세요.> 하고 말하고픈 충동까지 생기지 않았어요. 호호, 이젠 제 진심이 아닐수도 있어요. 사실 전 그때부터 난 절대로 불구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선생님, 전 선생님의 막내딸 옥미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아니, 꼭 회복되리라고 확신해요.

거기 도병원에도 선생님처럼 지극한 의사선생님들이 제실레니까요.》

언제였던가? 옥미를 도병원에 보낸 바로 그날이었지. 난 이래저래 기분이 언짢아서 왔었지. 눈치빠른 춘심인 모든걸 알아차리구 나를 위안하느라구 그런 말을 했어. 난 귀등으로 흘려들었지. 환자한테 고충을 드러낸 자신의 나약성을 꾸짖으면서...

난 때로 절망에 빠져있는 환자들에게 저 춘심

이한테처럼 말하곤했었지. 《어떤 경우이든 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의사를 믿으라. 우리와 보건 제도를 믿으라.》고 말이다.

환자들은 의사인 나의 그 말이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믿는다. 그들은 나의 눈빛을 거울로 내가 말한 우리의 보건제도,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며 평온에 잠길것이다.

그런데 환자를 향해서는 곧잘 그렇게 말하던 나 자신은 어떠했는가? 나는 왜 딸의 소생의 가능성 여부를 의학적무적인 문제에만 국한시켜보았는가? 왜 무작정 신심을 잃고 《운명에 맡긴다.》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는가?...

나도 그리고 안해도 아직 우리 사회의 생리를 모르고있었다. 온 나라가 혈연적으로 연결된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공허하게 자리잡고있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을 위한 헌신성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동요의 감정을 앞세웠다. 우리 사회에서 일방에 대한 타방의 희생이란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좋다고 하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나라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로 하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생명을 내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자기 소행의 의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저 춘심씨와 같은 순결한 처녀가 있는것이고 앞 못 보는 큰 불행속에 살면서도 남에게 살점을 떼여 바치려고 수술대에 누웠던 김정호와 같이 불같은 인간이 있는것이고 그의 안해인 한승희와 같은 아름다운 녀인이 있는것이 아닌가!...

발밑에 놀리운 눈이 녹으면서 랭기를 뿜쳐올리고있었다. 그러나 최남윤은 발이 시려드는것을 전혀 감각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어느날.

이날 최남윤은 오춘심환자의 마지막 피부이식 수술을 끝냈다. 완전히 형태가 잡힌 오춘심의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고 수술장에서 나오면서 그는 약간 비칠거렸다. 그는 간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실에 돌아와서 진찰용침대에 누웠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그는 심신의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파로와 긴장에 압축되었던 뇌신경을 평온과 안도감에 맡겨버렸다.

(이젠 의심할바 없다. 춘심인 본래의 자기 다리

를 찾게 될것이다.)라는 내심의 속삭임을 기꺼이 들으며 깊은 잠에 들었다.

《남윤선생! 남윤선생!...》

찾는 소리에도 그는 잠에서 깨지 못했다.

《옥미가 온대요! 방금 연락이 왔어요. 옥미를 마중하러 역에 나가야지요.》

그래도 그는 깨지 못했다.

그의 주위에는 준의, 간호원, 춘심의 어머니 등이 모여와있었다.

침대머리에 허리를 굽히고 남윤의 몸을 조심조심 흔들면서도 그가 그렇게까지 깊이 잠든줄 몰랐던 한승희간호원은 깨우기를 단념했다.

한승희는 고개를 들고 눈굽을 짙어내는 춘심이 어머니의 등어리를 껴안으며 의무실에서 나갔다.

그 순간부터 누구도 남윤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의무실에는 그의 고르롭고 평온한 숨소리만이 가득찼다.

그러나 얼마후에 복도를 울리는 여러 사람의 성급한 발소리에 그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어나 앉았다. 그냥은 불러도 깨지 못했던 그였지만 긴급한 정황을 예고하는 그 발소리만은 그를 깨우고도 남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구급함에 손을 뻗치며 발소리에 신경을 모았다. 발소리는 입원실쪽이 아니라 바깥현관쪽에서부터 점점 가까와오고있었다.

《구급환자다!》 하고 판단하며 일어서는데 의무실의 문이 벌컥 열린다.

여러 사람이 방으로 와 쓸어들었다.

담가에 누워 들어올 환자를 찾아보려던 그의 시야에 뜻밖에도 솜옷에 감싸인채 공중 쳐들리운 아이 하나가 안겨들었다. 그는 아이를 인차 가려보지 못했다.

앞에서 얼른거려던 사람들이 비켜서서야 그애가 바로 막내딸 옥미이며 애를 안고 병글병글 웃고있는 허우대 큰 사람이 춘심의 아버지임을 알아보았다. 순간 남윤은 눈앞이 탁 흐려와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몇발자국밖에 안되는 출입문 어구가 꿈속에서처럼 아득히 멀어보인다.

그는 안해가 가까이 다가온것도 몰랐다.

바닥에 내려놓인 딸애가 사람들이 띄여놓은 길에 오도카니 서서 걸음떼기를 주저하다가 《아부지!》 하며 위태롭게 발을 내짚으려 하는 순간에야 급하게 다가가 아이를 안았다.

고향의 향기

최낙서

고향!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헤아릴수 없이 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말인가!

이 세상에 어머니 없는 인생이 없듯이 나서자란 고향이 없는 사람 또한 어디에 있으랴.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손을 잡고 첫걸음마를 익히던 햇빛밝은 작은 트랙, 누렁소의 영각소리 구성진 푸른 시내가에 나가 송사리를 잡아오던 민들레 핀 들길, 선생님과 함께 학교운동장에 심어가꾼 키높은 백양나무, 부모님과 친척, 친우들의 배려움을 받으며 인민군대로, 대학으로 떠나가던 그리운 동구길이 그대로 누워있는 잊지 못할 고장이 고향이다.

누구나 고향을 생각할 때면 의례히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먼저 그리게 되고 친척친우들과 그 자손들의 모습이 다정히 안겨온다.

그러면 당장 달려가 열싸안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주 고향을 찾곤하며 흥안의 시절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역만리에 가서 과란만장의 세파를 다 겪던 사람들도 인생말년이면 모두 고향을 찾는것이다.

이렇듯 가고싶고 보고싶고 만나서 끝없이 이야기하고싶은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것이 고향의 향기가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아름답고 숭고한 고향의 향기를 땅그리 빼앗긴 사람을 만난 일이 있다.

봄날처럼 따뜻한 어느 겨울날이었다.

나는 계급교양주제작품을 쓰기 위하여 신천박물관을 찾아 길을 떠났다.

신천행 뺑스에 몸을 실은 나는 생각이 많았다.

이제 박물관에 들어서면 신천대학살만행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사진들과 그림들, 갖가지 자료들과 유물들이 수많은 전시되어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땅에 행복의 씨앗을 묻고 풍년을 가꾸었다하여 사지를 찢고 목을 매달고 젖가슴을 드러내여 무참하게 학살한 가지가지 비통한 장면을 피타는 음성으로 생동하게 해설할 강사들의 모습도 상상해보며 뺑스에서 내린 나는 뜻하지 않은 정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박물관정문앞에 자그마한 소나무동산이 있는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할머니 한분이 한 소나무 밑에 앉아 소리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치고있지 않는가.

직접적인 관심에서랄가 나는 할머니결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어디서 오신 할머니인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슬퍼하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말없이 나를 올려다보다가 내가 작

가라는 말을 듣고서야 갈린 음성으로 천천히 입을 여는것이였다.

《평양에서 온 늙은이웨다. 오래간만에 애들을 데리고 박물관에 왔더니 부모형제들생각이 나서 그러우다.》

나는 다시 물었다.

《할머니네 고향은 신천인가보지요?》

《그렇수다. 서원 밤가지라는 동네이지요. 하지만 난 고향을 잃었수다.》

《고향을 잃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의아한 눈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생각깊은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별로 가고싶지 않으니까요. 고향이란거야 보고싶은 사람들도 있고 어린 시절에 정이 든 산천을 다시 밟아보고싶은 마음도 있어야겠는데 그 마음을 난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놈들한테 죄다 빼앗겼으니까요.》

알고보니 할머니의 아버지는 해방후 첫 공산당원이며 모범농민이였다 한다. 그런데 지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야수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 3,600평을 분여받아가지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는 죄아닌 죄로 아버지는 느티나무에 목을 매달았고 어머니마저 갓난동생을 업은채 저수지에 수장하고 일가친척들과 함께 자기와 남동생은 파수원둔덕에다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했는데 그 구덩이에서 자기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다는것이다.

그래서 부모형제들이 그리울 때면 뉘이라도 만나보려고 이렇게 박물관을 찾아온다는것이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그냥 훔치였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후에 한번도 고향마을에 가본 일이 없으십니까?》

《오래전에 있는 일이지요. 외가집에 가던 길에 고향이라고 한번 들린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기가 막혀서. 동구에 서니 글썽 원주놈들이 우리 마을 당원들과 그 가족들을 쏘아죽이던 그날의 원한의 총소리가 어제인듯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고 아버지의 목을 매달았던 그 아름드리느티나무와 어머니를 푸른 물에 처넣은 저수지의 제방쪽이 먼저 나를 맞아주더군요. 봄이 오면 사과꽃이 하얗게 피어나던 파수원둔덕에서 생매장당한 내 동생 정복이가 불쑥 솟아올라 <누나야> 하며 막 달려오는것만 같았지요. 나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 수로쪽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이나 목놓아울

다가 그만 자리를 뜨고말았수다. 그다음부터는
가지 않았지요. 치가 떨리고 가슴이 터져와 미칠
것만 같았으니깐요.》

그렇다! 미제승냥이놈들은 이 할머니에게서 고
향의 향기를 깡그리 빼앗아갔다.

고향의 향기!

그것은 곧 고향땅에 살고있는 인간들의 향기다.
다시말하여 부모형제들과 친척친우들 그리고 스
승과 이웃들의 뜨거운 사랑이다.

바로 그 사랑이 있어 타향살이를 하는 자식들
과 친척친우들의 마음을 그렇듯 크나큰 인력으로
고향으로 끌어당기고있는것이다. 고향산천이 그
처럼 그리운것도 지난날 고향사람들과 함께 산천
을 거닐며 주고받은 그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쳐
발자국마다 습배인 까닭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그 모든 발자국들이
피눈물에 잠겨버렸고 그자리에서 증오의 불길만
이 활활 타오르고있는것이다.

할머니는 두주먹을 푸들푸들 떨며 부르짖었다.

《인간백정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 내 눈을
감겠수다. 미국놈들은 이 세상에 씨종자도 남기
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박물판을 찾는다고. 그애들에게 대를 이어 복수
심을 키워주자구요.》

나는 할머니의 피눈물이 배인 말을 들으며 생
각이 깊었다.

평범한 한 할머니의 이 피의 절규! 이것은 우
리 조선인민의 일치한 분노의 웨침이며 원한의
목소리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 할머니와 이 땅의 수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고향의 향기를 빼앗아
갔다.

허나 놈들은 무엇을 몰랐는가.

그 귀중한 고향의 향기를 빼앗긴 할머니의 가
슴에는 물론 대를 이어 복수의 총탄이 천백배로
장탄되어있다는것을 원썌들은 전혀 알수 없었다.

원썌를 갇기전에는 눈을 감을수 없는것은 이

할머니만이 아니다.

우리 인민모두가 천백배로 복수를 하지 않고서
는 만대를 두고 눈을 감지 못하리라.

미제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 인민뿐
아니라 온 세계 선량한 인민들의 가슴속에서 그
귀중한 고향의 향기를 계속 빼앗아갈것이니 우리
는 정의의 총창을 잠시도 놓을수 없는것이다.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이다.

고향의 향기를 빼앗기는 사람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 위대한신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철석
같이 단결하여 미제원썌들과는 결사전을 벌려
야 한다.

미제는 지금도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교살해
버리려고 어리석게도 군사경제적으로 고립압살책
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으며 힘의 정책으로 위
협과 공갈도 서슴지 않고있다.

그렇수록 우리 인민들의 가슴가슴에는 복수의
불은 피만이 더욱 세차게 끓어넘칠따름이다.

그렇다. 원썌들이 무모하게 덤벼든다면 우리
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멸적의 타격으
로 씨종자를 말리리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저쪽에서 할머
니네 귀여운 손자손녀들이 달려오며 소리를 쳤
다.

《할머니, 빨리 가자요. 버스가 떠나겠대요.》

《그래 그래.》

할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할머니.》

《예, 일을 잘 보고 가시우다.》

평양행 버스는 할머니를 태우고 천천히 북쪽으
로 미끄러져갔다.

(아, 고향의 향기를 빼앗긴 저 할머니의 복수를
위해서도 계급교양의 필봉을 더 역세게 틀어잡
아야 한다.)

나의 생각은 끝이 없었다.

꽃은 피값이 아니다

김영근

비분을 거두자
련꽃봉 이 무덤가에 한다발 꽃을 놓고
예 문헌 원혼들을 추모하기엔
신천의 아픔이 너무도 크다

긴긴 반세기
붉은 흙이 쌓인 이 무덤가의

비에에 젖은 한다발 꽃송이가
천백배 받아낼 피값이 아니거니

타오르는 증오여, 철추를 내려
살인귀미제를 요정대기전에는
차라리 마지막순간에 그네들이 찾던
그 복수의 칼을 제단에 놓으라!

조선로동당창건 55돐기념 전국문학축전 조직요강

우리 인민은 주체89(2000)년 10월 10일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맞이한다.

김일성민족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며 위대한 항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주체문학건설의 새로운 성과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전국문학축전을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 전국문학축전작품의 종류와 주제

이번에 진행하는 전국문학축전은 장중편형식의 작품 100편창작전투가 끝나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으므로 전투적인 형식의 작품만을 기본으로 하여 전체 맹원들이 다 참가하는 명작창작경쟁무대가 되도록 특색있게 조직한다.

-작품의 종류

- 단편소설(아동단편소설 포함)
- 서정시(가사, 동요, 동시 포함)
- 동화, 우화
- 단막희곡
- 단막가극대본

※ 서정시, 동요, 동시, 우화는 2편이상 묶어서 제출하여야 하며 단막희곡, 가극대본은 무대에 형상된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작품의 주제, 사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근에 주신 말씀들과 로작, 당의 의도와 정책적요구 등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들을 탐구하여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과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강성대국건설에 힘있게 고무하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창작할것을 요구한다.

특히 내용과 형식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창작방법론을 구현한 다양하고 개성적인 특색있는 작품들을 적극 장려한다.

△ 전국문학축전기간에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전국문학축전기간 산하 조직들과 창작기관들에서 작가들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끊임없이 들어가 격동적인 현실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현지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한편 창작된 작품을 가지고 시랑송모임, 벽시전시회, 문학의 밤, 독자들과의 상봉모임 등 다양한 사회정치활동과 문학운동을 활발히 벌려 그들을 영웅적위훈으로 고무하도록 한다.

△ 전국문학축전 참가대상과 작품을 보낼곳

-전국문학축전에는 조선작가동맹의 모든 현역 및 현직맹원(후보맹원 포함)들은 누구나 다 참가하여야 하며 해외동포인 경우에는 맹원이 아닌 작가들도 참가할수 있다.

-전국문학축전작품들은 작품의 종류에 따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접수한다.

작품을 우편통신으로 보내는 경우 그 주소를 《평양시 대동강구역 대학거리 의암동 조선작가동맹 소설문학분과위원회(아동문학분과위원회, 극문학분과위원회, 가극문학실)앞》으로 밝히며 봉투겉면에 반드시 《조선로동당창건 55돐기념 전국문학축전작품》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 서정시, 가사 작품들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 전국문학축전 기간과 총화사업

-조선로동당창건 55돐기념 전국문학축전은 주체88(1999)년 2월 16일부터 주체89(2000)년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조직진행하며 전국문학축전 참가작품은 1999년 2월 16일부터 2000년 8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전국문학축전에 제출된 작품은 축전 전기간에 걸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를 비롯한 출판물들에 발표할수 있다.

-전국문학축전작품 심사결과를 조선로동당창건 55돐기념일인 2000년 10월 10일을 계기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들과 중앙의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발표하며 입선작품들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시상을 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창조리(2 회)

정진혁

(전 호에서 계속)

×

봉상왕은 날이 갈수록 자기의 더러운 본색을 드러내었다.

오직 왕이 관심하는것은 주색잡기와 놀음놀이 뿐이었고 이를 위해 백성들을 마구 수탈하였다. 《백성놈들은 짜면 찔수록 뺏아놓는것들》이라고 여기고있었다. 하늘도 폭군의 하늘인지 계속 재해만 들쭉왔다. 모진 수탈과 자연재해에 백성들의 생활은 쪼들려만가고 사방에서 도적떼들이 창궐하였다.

그런데도 왕과 총애받는 환관, 간신배들은 태평가를 부르고 배를 두드리며 매일과 같이 큰 잔치, 작은 잔치를 벌렸다. 국고는 텅 비고 백성들은 가난속에 허덕이였다.

《자, 이제부터 왕궁을 증축하도록 하자.》

허영심이 가득찬 봉상왕은 궁궐을 확장하는 공사까지 계획하였다.

창조리를 비롯한 충신들은 이를 우려하여 극력 간하였으나 왕의 귀에 들어갈리 만무하였다.

《시끄럽다!》

봉상왕은 자기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많은 신하들을 관직을 삭탈하고 내쫓았다.

창조리도 봉상왕에게는 매우 귀찮은 존재가 아닐수 없었다. 늘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나이다, 그것은 그리하면 안되나이다 하는 그를 봉상왕은 등에같은 존재라고만 보았다.

어느날 왕은 창조리에게 《공이 집을 대신하여 지방을 순시하고 오라.》고 명령하였다....

창조리는 각지를 돌아보면서 나라의 실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어딜 가나 탐관오리들이 득세하여 날쳤고 수탈에 못건딘 백성들은 무리를 지어 류랑걸식하였다.

《아,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다니.》

창조리는 통분함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주먹을 부르짖었다.

나 하나만의 힘으로라도 백성들을 돕자!

이르는곳마다에서 탐관오리들을 파면하였고 창고를 헤쳐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이렇게 순시하기를 어언 1년.

행렬은 비류수가에 이르렀다.

《여, 사공! 빨리 와!》

출렁이는 물결위의 일엽편주는 서서히 기슭으

로 다가왔다. 고물에 우뚝 서 세판게 노질을 해내는 사공의 앞가슴은 화락하니 젖어있었다.

《아!》

사공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창조리는 크게 놀랐다.

죽은 돌고를 판에 박은듯한 사공의 모습, 을불이 분명하였다.

(여기서 사공을 하고있구나.)

창조리는 을불을 측은히 바라보았다.

(모르는체해두자. 고자질할놈이 없다고 장담할 수야 없지.) 하며 창조리는 내색하지 않았다.

로정의 마지막은 국경의 중요요새인 신성이었다.

이삭이 누렇게 익어가는 넓은 전야에서는 풍년을 노래하는 농군들의 노래소리가 구성지게 울려 퍼지는데 한때의 류민들이 남부녀대하여 신성쪽으로 밀려가고있었다.

《웬 사람들이냐?》

《신성이 살기 좋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하루에도 수십명씩 여기로 모여온다 하나이다.》

(역시 고노자가 달라.)

훌륭한 친구에 대한 긍지감을 느끼며 창조리는 성안으로 들어섰다.

구레나룻이 보기 좋은 웅장한 체격의 고노자는 중년기의 나이인데도 흰터럭 한오리 보이지 않았다. 우로 치켜쳐 올라간 눈썹리, 짙고 굵다란 눈썹, 광대뼈가 약간 나을사한 선이 굵은 얼굴, 넓직한 가슴팍, 어느모로 보아도 장수의 풍채로 손색이 없었다.

《지난 2년째 흉년이 거듭되었는데 금년에도 가물과 병충해가 막심하여 정말 근심일세. 그런데도 대왕께서는 환관들만 총애하시고 조정의 오랜 신하들의 입을 막으시니 장차 일이 어찌될지 예측하기 어렵구만...》

창조리의 탄식조의 목소리에 고노자는 놀랐다.

창조리는 언제한번 나약하고 비겁한 말이나 행동을 한적이 없었다. 고노자가 알고있는 창조리의 모습은 언제나 락관과 해학, 랑만이 가득한 밝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보게.》 하는 고노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짙게 깔려있었다.

《난 지금 자네의 태도가 놀라우이. 대고구려국의 국상이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다니? 변방을 지키는 미미한 지방관인 나도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인들을 만날 때면 강대국의 신하된 긍지감에 배짱이 생겨 절로 목소리가 커지거늘 하물며 자네야 어련하겠나.

그런 아녀자 같은 소릴랑 걸어치우라구.》
 고노자는 기탄없이 속마음을 내뽐었다.
 외교할줄 모르는 고노자의 팔팔한 무장의 기질을 잘 알고있는 창조리는 그것이 그의 본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여겼다.
 (웁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나라를 위한 일에 사심이 비껴선 안된다. 탄식만 하고있을수는 없다.)
 《고맙네. 꼭 명심하겠네.》 하고 창조리는 말했다.

말은 비록 짧았지만 그의 생각은 깊고깊었다.
 창조리와 고노자는 관직의 격차를 뛰어넘어 무예를 수련하던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무릎을 마주하고 고담준론으로 온밤을 밝혔다.

×

고구려에서는 왕명으로 전국의 15살이상의 장정들을 징발하여 궁실을 수리, 확장하는 대공사가 벌어졌다.

가을이라 가을걷이는 하였지만 이해 2월부터 7월까지 혹심한 가뭄로 비한방울 내리지 않아 축정이만 가득하였다. 게다가 조세는 중하여 얼마안되는 난알까지 깡그리 빼앗아가니 백성들은 한지에 나앉아 하늘을 원망할뿐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는데도 봉상왕은 자기 일신의 영화를 위해 공사를 벌려놓은것이였다.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만 갔다.
 봉상왕의 주위에 늘어나는것은 간신들, 아첨쟁이들뿐이였다.

이러한 때 창조리는 머나먼 순행을 마치고 수도로 들어서고있었다.

그의 눈에는 달라진 수도의 풍경이 비껴왔다.
 첫순간 보이는것은 사람들이 하얗게 달라붙어 궁전을 보수하는 광경이였다.

(끝내 벌려놓았구나.)
 창조리는 락망감에 휩싸였다.
 (어쩌면 이다지도 무지할수가...)

봉상왕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꿀꺽 솟구쳐올랐다.

《이놈아, 어서 일어나라!》

가까이에서 울리는 호통섞인 옥설과 채찍소리, 잇따른 귀청을 켜는듯한 새된 비명소리에 창조리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젊은 관리가 향류들과 군졸들을 호령하여 땅에 쓰러진 어린 소년의 등에 호되게 매를 안기고있었다.

군졸들의 손에서는 말가죽채찍이 뽁뽁 우는데 소년의 곁에는 웬간한 장정들도 힘에 부칠 커다란 각석이 황토먼지가 자욱한속에 처박혀있었다.

땅에 어푸러져 매를 맞는 소년의 옷은 다 해져 팔꿈치가 드러나보이는 누데기였다. 그마저 모진 채찍질에 등반이 찢어졌고 빨갛게 피가 배어

나왔다.

피골이 상절한 몸과 머리는 채찍이 내려칠 때마다 《아이쿠》소리와 함께 이리저리 맥없이 흔들거렸다.

주변에서 일하고있던 사람들도 멀찌기 서서 바라보며 걱정만할뿐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안타까와하였다.

창조리는 애처롭게 매를 맞는 소년에 대한 동정심, 소년을 마구 때리고있는 군졸들에 대한 격분을 누르지 못하였다.

채찍을 휘두르는 군졸의 손목을 짊 들어잡은 창조리는 엄지손가락으로 대통혈을 힘껏 눌렀다.

《아얏! 어떤놈이야?!》

팔목을 붙들린 군사는 채찍을 떨어뜨리고 회돌아섰다.

젊은 관리와 군졸들도 《이건 웬놈이나.》 하는 식으로 힐끔 돌아다보았다.

《이 고현놈들아!》

창조리의 입에서는 버락치듯 옥설이 터져나왔다.

젊은 관리와 군졸들은 자기들앞에 서있는 중년의 재상이 창조리임을 대뜸 알아보았다.

창조리는 쓰러진 소년을 일으켜세워 뺨으로 홀려내리는 눈물과 계발린 흙먼지들을 닦아주었다.

자그마한 몸집, 가는 팔다리, 뼈까지 들여다보일듯한 연한 살갗, 어느모로 보나 고된 부역에 동원될 나이가 아니였다.

모진 매를 금시까지 맞고도 례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소년을 가늠하게 바라보며 창조리는 물었다.

《애야, 네 몇살이나?》

《열두살이나이다.》

창조리는 소년의 대답에 놀랐다.

《여봐라, 국법에 15살이하의 어린이와 60살이상의 늙은이는 부역에 면제하게 되어있다. 어인연고로 이애를 끌어냈는고?》

《그건 저 ...》

젊은 관리의 옷자락만 만지작거릴뿐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였다.

《저의 아버지가 사흘전에 전각에 기와를 올리다가 떨어져 그만 허리를 상했소이다.

수를 채워야 한다기에 제가 대신...》

소년의 말이였다.

《으음-》

창조리의 짙 다문 이사이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던 말인가?!

부역의 폐단이 비단 이 하나만이 아닐것이다.

소년을 매질하던 젊은 관리와 군사들도 실상을 알게 되자 수치감에 머리를 외로 떨구었다.

《잠깐 일들을 멈추어라. 내 이제 상감마마를 뵈고 한말씀 올리겠다.

그리고 저 소년은 집으로 당장 돌려보내거라.》

창조리는 수레도 타지 않고 말등에 훌쩍 뛰어 올라 왕궁을 향해 살같이 내달렸다.

...

《소신 창조리 어명을 받들어 지경순시를 마치고 지금 돌아왔음을 아뢰나이다.》

봉상왕은 옥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창조리를 내려다보았다.

하등에 반갑지 않은, 오히려 시끄러운 사람이 돌아왔구나 하는 인상이 었다.

《아, 국상, 인제야 돌아왔소? 어서 일어나오.》

창조리는 쏴아앉은채 계속하였다.

《소신이 의람되오나 한말씀 올리겠나이다.

하늘의 재앙으로 가물이 계속되어 곡식은 되지 않고 도처에서 백성들은 류랑걸식하고있나이다.

지금은 절실로 백성을 넘려하여 자신이 조심하고 반성할 때이거늘 폐하께서 한번도 이에 대해 생각지 아니하고 굶주려 쓰러지는 백성들을 몰아다가 토목역사로 피로케 하고계시니 백성의 부모된 본의에 대단히 어긋나는 일로소이다.

더구나 가까운 이웃에 모용외와 같은 사나운 원쑤가 호시탐탐 노리고있는데 그들이 만일 우리의 피폐한 틈을 타 쳐들어온다면 나라와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나이까? 소신이 이번에 순시하면서 본것이 이러하오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깊이 통촉하시옵소서.》

봉상왕은 불쾌하였다.

(다 늙어빠진게, 패썹하게...)

먼길을 떠났다가 금방 돌아온 사람에게 옥부터 퍼붓는것은 자신의 인품만을 깎는것이라고 여긴 봉상왕은 뜨직이 대꾸하였다.

《임금이란 백성들이 우러러 보는것이므로 궁실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수 없는터인데 이제 국상은 아마 나를 비방함으로써 백성들의 칭송을 바라는것이로다.》

봉상왕은 옆으로 슬쩍 돌아앉으며 창조리를 힐끗 훑어보았다. 네가 무엇이러 더 말하는가 보자는 표정이였다.

비교입이 가득한 왕의 말에 창조리는 가슴이 미여지는듯하였다.

창조리는 왕이 자기를 은근히 위협하여 더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려는 뜻임을 알았지만 할말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임금으로서 백성을 생각해주시 않으면 어질지 못한것이며 신하로서 임금에게 바른 말로 간하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국상의 자리를 맡고있어 말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니 어찌 백성들의 칭송을 바라서겠소이까.》

가슴속에서 우리나라오는 충성어린 간언이었던만 봉상왕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왕의 머리속에는 다만 (감히 네가? 무엄한 놈.) 하는 생각만이 소용돌이치고있었다.

생각같아서는 당장 관직을 빼앗고 서민으로 내

치고싶었다.

(아직 다치기는 이르다.)

서서히 깎아내릴 생각을 하며 방치처럼 불끈거리는 화를 누르고 억지웃음을 짓던 봉상왕은 룡담 절반, 진담 절반으로 말했다.

《국상은 설쳐유부(허밀에 도끼가 있다는 뜻)라는 말을 아오?

백성들을 위해 죽으려 하는가? 후에 다시 말하지 말기를 바라노라.

원로에 피곤하겠는데 공은 그만 돌아가보오. 하- 아, 졸린다.》

피곤하여 더 말하기 싫다는것인지 한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하품까지 늘어지게 뿔었지만 봉상왕의 뜻은 명백하였다. 창조리를 내려다보는 봉상왕의 두눈은 살기로 가득차있었다.

여우가 제 새끼를 잡아먹고싶어지면 《토끼새끼 잡구나.》 한다는 항간의 풍설이 피끗 떠올랐다.

(이젠 나까지?...)

창조리는 다시금 통상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통상에 높직이 앉아 백성들의 뼈를 깎으며 제갈단듯 거들먹거리는 봉상왕의 파렴치한 모습 대신 선왕- 서천왕의 영명한 모습이 비껴들었다.

선왕이 림종을 앞두고 하던 유언의 구절구절이 다시금 쟁쟁히 울려오는듯하였다.

《...경들은 짐이 승천한후에도 태자를 잘 돌봐주길 바라오. 하지만 태자가 동명성왕의 위업과 단군천왕의 응지를 이을만하거든 돕고 그렇지 못할 땐... 그렇지 못할 때엔 가차없이 명림답부를 본받도록 하오...》

창조리는 선왕의 유언대로 상부를 잘 받들어 그를 성군, 영주로 만들지 못한것이 가슴아팠다.

아, 후날 저승에서 선왕을 뵈옵고 과연 무엇이러 여쭙단말인가.

가슴이 마냥 미여지는듯하였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고 어떻게 방안에 들어와 앉았는지 자기자신도 알수 없었다.

창조리는 가슴이 답답하여 띠를 끄르고 옷섶을 헤쳤다.

옆에 놓인 물그릇을 들고 단숨에 한사발을 쭉 들이키니 비로소 조금 진정되는것 같았다.

《후-》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는 방안을 휘돌러보았다. 방안의 기물들은 예나 다름없이 제자리에 가끈히 놓여있었다. 기물들을 더듬던 그의 눈길은 벽에 걸린 한자루 보검에 가 멎었다.

《아!》

부지중 그의 입술사이로 한마디 탄성이 새여나왔다.

대대로 물려오며 나라를 지키는 싸움터마다에서 조상들이 원쑤의 목을 삼대배듯하던 장검.

창조리의 심장은 다시금 세차게 뛸뛰기 시작하였다.

이 장검과 함께 승전고를 울리며 개선장군이 되어온 사람도 있었고 말가죽에 싸여 싸늘한 육신만이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가문의 력사가 함축되어 깃든 장검은 창조리에 게 조상들의 목소리를 합쳐 《넌 지금 무얼 하느냐?!》고 꾸짖는듯하였다.

짧은 한순간 창조리는 너무도 큰것을 깨달았다.

손에 든 장검은 다만 외적을 무찌르는데만 쓰이는것이 아님을 순시길에서 목격한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에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부역에 끌려나온 어린 소년의 가엾은 모습에서 창조리는 통절히 느끼었다.

(그렇다. 탄식만 하고있을수는 없다.)

그는 움쭉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며칠후, 창조리의 집에는 여러 대신, 장군들이 모여들었다.

창조리는 의심많은 봉상왕을 꺼려 이들에게 귀환연회를 차린다고 하였다.

《지금의 왕은 포악하고 방탕하여 헤어나올수 없는 구렁에 빠져들었다.

전에는 자기의 숙부와 동생을 죽이더니 이제는 바른말하는 신하모두를 없애려 하고있다.

이런 사람을 계속 왕으로 두고서는 나라가 더는 건잡을수 없게 된다.

칼로 자르기 힘들면 도끼로 찍어야 한다.》

좌중의 논의는 요컨대 이러하였다.

창조리는 여럿의 오가는 말을 들으며 침묵을 지키었다.

《국상대감이 폐립의 기치를 들어주길 바라오.》

누군가의 말이다.

창조리는 그들의 뜻이 자기에게로 모이고있으며 확고하다는것을 알았다.

《대감, 이 나라를 생각해주시오.》

피를 쏟는듯이 절절한 간청이었다. 아니 웨침이었다.

드디어 뜻을 세울 때는 왔다!

《나도 고구려사람이요. 제공들과 더불어 의기를 들리이다.》

좌중은 술렁거려졌다. 벌써 일이 다된것처럼 기뻐하는 축들도 있었다. 좌중은 한층 활기를 띠었다.

창조리의 곁에 앉아있던 백발의 로장이 흰 수염속에 가리워진 입을 무게있게 열었다.

《왕을 폐한후에 여러 왕족들가운데서 누구를 세울것이오이까?》

《고추가 돌고의 아드님인 을불이 어려서부터 지혜가 뛰어나고 덕행이 높았으니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 고구려가 다시금 흥할것이야.》

《그러하오나 을불은 도망쳐 수년째 행적을 감추고있사옵니다. 이제 그를 어떻게 찾겠소이까?》

《장군은 안심하오. 내 이미 을불을 잘 아는 제

나부의 조볼과 환나부의 소우를 비류수가에 보내여 그를 데려오게 하였으니 이내 회소식이 올거요.

그러니 제공들은 준비 갖추고 기다리다가 신속히 움직여주길 바라오.》

《본부대로 하오리다.》

모두는 맹약의 피를 마시었다.

...

창조리는 실성한 사람처럼 문지방에 걸터앉아 딸이 쓰던 향합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다.

딸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몹시도 괴로웠다.

이 정변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딸에겐 불행이었다. 성공하면 남편을 잃을것이고 실패하면 부모형제를 잃을것이다.

자기 하나의 목숨은 아깝지 않았다. 그러나 청춘을 아비의 독단으로 망친 딸앞에 무언가 죄의식을 느끼고있는 창조리였다.

(그애에게 더 고통을 주는것은...)

창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마음속에서는 어버이로서의 창조리와 정치가로서의 창조리가 치렬한 싸움을 벌리고있었다. 어느 한쪽이고 한결음의 양보도 없다.

《대감계선 무엇을 그다지도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

연씨는 문밖에서 좌중에 오가는 말을 다 들었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것 같았다. 그 녀자는 딸의 기구한 신세를 탄탄하며 울고 또 울었다.

《가엾은 내 딸아-》

하지만 참아야 했다.

연씨는 이것이 딸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만 생각지 않았다. 녀인의 소박한 마음에도 나라와 백성은 친근한 존재로, 평범하면서도 고귀한 존재로 자리잡았기에 슬픔을 누르고 자신을 다잡았다.

《상공은 너무 상심마소서. 딸자식 하나 없었던 셈 치면 되지 않으니이까?》

창조리는 놀랐다.

정녕 이런 녀자였는가?!

고맙소, 당신은 나의 의지를 더욱 굳혀주는구려.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속대사는 이러하였다.

×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개인 푸른 하늘엔 계절조들이 날아예고 무르익은 산과실향기들을 담아실은 가을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온다. 산과 들은 온통 울긋불긋한 빛갈들로 아름답게 단장하고나섰다.

이미 을불을 찾아와 안전한곳에 숨겨두고 만단의 준비를 갖춘 창조리는 봉상왕을 또다시 사냥

터에로 끌어내었다.

이날아침 창조리는 아들 궁진과 함께 비장한 결심을 품고 집을 나섰다.

《궁진아, 부디 성공해야 한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제는 어른이 다된 아들이었다. 애티나던 어제날의 모색은 자취만이 어렴풋이 남고 대신 사나이의 림름함이 흐르고있었다. 흥조가 사라진 뺨에 꺼렇게 수염발이 내돋기 시작한 현현장부가 창조리의 앞에 서있었다.

아들의 말도 단 한마디였다.

《주의하십시오.》

아버지는 사냥터로, 아들은 궁성으로 간다.

부자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끓어번지는것은 오직 승리의 일념뿐이었다....

세워놓은 일산아래선 술판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잡고 다른쪽에서는 먹어대고. 바야흐로 술판은 기울어 열근해졌다.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일산결에 어디선가 한대의 화살이 날아와 꽂혔다.

봉상왕은 와틀 놀라며 술잔을 던지고 자리에서 펄쩍 뛰어일어났다.

《뭐냐?! 감히 어디라고...》

봉상왕은 술김에 더욱 노기가 등등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불붙는데 키질하는격으로 삼살개같은 아침쟁이들은 절대로 살려뒀서는 안된다느니, 림지쳐참을 해야 한다느니 하며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다. 그 모양은 흡사 장마통에 땡땡이때 울어대는듯하였다.

《이놈의 목을 쳐라!》

이 뜻밖의 일에 더욱 놀란것은 창조리였다.

그는 여적 아들에게서 신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궁진은 왕궁을 습격하여 환도성을 장악하고 태후 우씨와 자기 누이를 구출하기 위해 성안에 남았다.

《일이 성사되면 봉화로 신호하라.》고 창조리는 아들에게 당부하였다.

아직 봉화는 오르지 않는다.

아까운 저 무사를 살려야 한다.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었던 창조리는 봉상왕에게 나직이 간하였다.

《상감마마, 그 무사가 실수하여 그런것이지 어찌 고의로 한것이겠소이까. 부디 성은을 베푸시여 용서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뭐라고? 살려주라구? 감히 네가. 음, 그러니 너도 이놈과 같은 심보였구나.》

왕은 더 푸르락거리며 점점 아니꼬와만 가는 창조리마저 죽이려고 날쳤다.

《이놈도 같이 형틀에 달아매여라!》

정변가담자들은 결사전을 하여서라도 창조리를 구원하려고 벌써 손들을 칼자루에 가져다대고있

었다. 창조리는 이러한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눈짓을 하였다.

이때였다.

누군가 《봉화다!》 하고 웨치며 도성쪽으로 손을 들어 가리켰다.

오, 궁진이가 성공했구나. 장하다.

창조리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봉화를 보라! 저 불길은 우리들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다!》

누구를 위해 그대들이 사는가?!

덕있는자가 덕없는자를 치는것은 마땅한 도리이다.

자, 나와 더불어 뜻이 같은 사람은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모두를 향해 웨쳤다.

창조리는 허리를 굽혀 발밑에서 버석이는 마른 갈잎을 한대 꺾어들었다. 여러 관리들, 무사들모두가 갈잎을 꺾어 손에 들었다.

일은 벌써 성사된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승리를 예감하는 창조리의 눈은 한쌍의 해불마냥 활활 불을 뿜는듯하였다.

여러 사람의 손과 손마다에 들린 갈잎을 잠시 바라보던 창조리는 손에 쥔 갈잎을 자신의 판에 꽂았다. 모두의 움직임은 창조리의 행동의 복사판과도 같았다.

이들의 기상천외한 행동에 봉상왕은 겁이 더러웠다. 금의옥식으로 기름이 번지르르한 혈색종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팔다리는 풍이라도 만난듯 우들우들 떨기 시작했다.

봉상왕은 순간 공포와 고독, 절망감에 완전히 포로되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나온 가축과 같이 겁에 질린 눈으로 좌우를 둘러보았다. 평시의 거만하던 기색은 그림자도 안남고 사그라져버렸다.

늘 꼬리치며 통상을 맴돌던 아침쟁이들은 어디로 꺼져버렸는지 어느 한놈도 보이지 않는다.

달아날가?

군사들은 창을 꼬나들고 혹은 검을 뽑아들고 점점 가까이 다가들었다.

《이, 이런. 어이쿠.》

봉상왕은 머리를 싸쥐고 한소리 비명과 함께 밀둥잘린 나무처럼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

상부는 환도성의 밤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갔다.

한없는 고독감과 슬픔이 그를 칭칭 에워싸고있었다. 옥좌에서 밀려나서가 아니었다. 누가 참된 충신이였는지 그는 지금에야 통절히 알게 되었다.

별궁에 갇혀있던 상부는 자기를 내쫓은 창조리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었다.

허나 어전회의소식을 들었을 때 상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었다.

한때 입이 닳도록 아침을 하던놈들까지도 나몰라 하고 자기를 버리는 이 순간 누가 자기를 비호해주었던가.

오직 창조리, 그뿐이었다.

...

《성상께서 아무리 폐왕에 대해 한이 깊다하시여도 그는 어디까지나 성상의 백부가 아니시나이까. 성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리는 나이젊은 미천왕의 앞에 꿇어엎드려 절절히 청하였다.

미천왕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를 죽이고 또 자신에게 이때껏 고생을 강요한 백부였다.

파연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용서해주기에는 나라일을 망친 그 죄가 너무도 컸다.

(하지만...)

사나운 선비족오랑캐들이 틈을 엿보며 기회만

을 노리는 이때에 하나의 힘이라도 합쳐야 한다. 이윽고 미천왕은 갈린 목소리로 칙명을 내렸다.

《폐왕 상부의 모든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모두는 놀랐다. 그리고 감탄했다.

누구보다도 기뻐한것 은 창조리였다.

...

이제야 상부는 그들이 훨씬 더 큰 그릇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그릇은 나같은 몸쓸 존재도 담는구나.

대세의 흐름은 막을수 없었다.

과도세찬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배, 그 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내자면 무엇보다도 유능한 키잡이가 필요하였다.

상부는 이런 진리를 새로이 깨달았다.

그는 못벌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이고 발달는대로 정처없이 걸어갔다.

-끝-

《6. 25》는 곁에 있다

최장남

철없던 시절엔 미처 몰랐다
맘놓고 뒹놀던 학교운동장-
파내면 그 땅 어디에나 있을
파편조각우에서 내가 자란줄
행복만이 지척-내곁에 있고
전쟁은 옛적의 일인줄만 알았다

허나 언제였던가?

내 《6. 25》를 가까이서 처음 본것은
음악가 되려던 나의 형님이
군대로 떠나가던 그 아침이었던가?
신새벽 때없는 비상소집구령에
집을 나서던 아버지의 모습이던가?

산뜻한 교복은 옷장안에 걸어놓고
붉은청년근위대에 입대하던 날
책을 쥐던 두손에 총창을 비껴들던
그 아침에 비로소 깨달았나니
내곁에 언제나 《6. 25》가 있었는줄...

그렇다 《6. 25》!

그것은 과거에만 있지 않았다
대학가 창공에 울려 퍼지던

준전시상태를 알리는 방송원의 목소리-
그것은 판가리 전호가로 나를 부르던
조국의 준엄한 목소리였다!

엣그제 판문점에 번뜩이었던
그 도끼날에도 《6. 25》가 있었고
조국의 허리를 가로지른 철조망뒤에서도
핵구름에 실리어 다가오는 《6. 25》!
미제가 우리에게 추파를 던진대도
그 웃음뒤에 숨어 《6. 25》는 오저니!

오, 물레처럼 세월을 감아간다는
시계바늘에도 감기지 않는 날이여!
날과 달은 예대로 가고 또 가도
언제나 바투-내곁에 머물러
멸적의 총탄으로 채워지는 《6. 25》!

어서 탄피를 풀자!
이 땅에서 미제가 영영 없어지는 날
그날에야 《6. 25》는
행복하고도 평범한 하루로 흐르리니
허나 아직은
내앞에 모든 날이 《6. 25》이다!

《귀나당》

김삿갓(본명 김병연)은 19세기초중엽 우리 나라의 유명한 풍자시인이다. 그의 시는 기지있는 해학과 역설로 엮여진것으로 하여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고있다.

김삿갓은 자기의 할아버지인 김익순이 흥경래 농민봉기군에 투항한것으로 하여 폐족처분을 받고 숨어살다가 21살때부터 방랑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김삿갓은 그때부터 세상의 온갖 부조리한 현상을 빚어내는 랑반, 부자놈들을 골탕먹이는데서 자기의 기쁨을 맛본 일종의 《반항아》였다고도 볼수 있다.

김삿갓에 대한 수많은 일화들중에서 한가지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약없는 방랑의 길에서 함판령을 넘어 김삿갓이 북청땅에 이른것은 4월말쯤이었다.

북청읍내에 들어선 삿갓은 방랑길에서 굳어진 습관대로 의례히 하루밤 류숙할만한 집부터 두리번두리번 살피었다. 그런데 마침 새집을 짓고 한창 기둥에 칠을 하고있는 큼직한 기와집 한채가 눈에 띄었다.

그리로 다가가 《주인장님, 집이 참 훌륭합니다요.》라는 말로 서두를 때며 주인에게 은근히 하루밤 자고갈것을 청하니 주인이 그래도 아주 박정한 사람은 아니었던지 좋아하지는 않으면서도 거절하지는 않았다.

《허, 좌우간 대접할것은 별로 없는데 정 그렇다면 사랑방에서라도...》

마지못해 허락하는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김삿갓은 비위살 좋게 사랑방으로 제먼저 넉 짝 들어갔다.

너무나 려치가 좋은 삿갓의 행동에 아연한 기색을 지으면서도 어쨌든 제 집에 온 손님이니만치 인사는 안할수가 없어 주인이 따라들어오며 《난 정풍헌이라고 하요.》 하고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제서야 《아차, 제 인사가 늦었나봅니다. 김삿갓이올시다.》 하고 삿갓도 제 소개를 하였다.

그날저녁 나오는 저녁상을 보니 그야말로 강보리밥에 된장찌개가 멩그라니 놓여있는 개다리소반이다. 삿갓은 뺨이 불끈 치밀어올랐으나 그런대로 다 먹어버렸다.

미처 준비가 없어 그럴수 있으리라고 속으로 위안을 하며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역시 엿저녁과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 발로 꼭 내지를가 하다가 손님된

채면에 그럴수도 없고 하여 아침밥이라고 들여온것을 먹으며말며 하는판에 주인이 들어섰다.

주인은 번번치 않은 음식을 대접해서 미안하며 인사치레를 한마디 하고는 혼자소리처럼 《혹시 글씨 쓸줄 아시오?》 하고 묻는것이였다.

《예, 잘은 못쓰지만 그런대로 좀...》

이렇게 얼버무리는 삿갓을 보고 정풍헌은 《에이, 그만두자. 아무래도 저 건너편 박초시가 잘 쓰지.》 하며 자리를 이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마루에 내다놓은 싱싱한 나무냄새가 풍기는 새 현판을 바라보며 무슨 궁리를 하는듯 고개를 기웃거리는데있었다.

쫓아내지 않고 재워주고 먹여준것이 다소 고맙기도 하여 삿갓이 명필은 아니라도 성의껏 써주겠다고 자청하자 정풍헌은 반색을 지으며 《정 그러면 당호를 멋있게 써주구려. 그놈의 박초시는 술대접을 해야만 써주는게...》 하고 대꾸하였다.

(음, 엿저녁과 오늘아침 밥상이 그렇게 보잘것 없는것도, 나더러 현판을 써달라는것도 다 네놈의 그 노랭이속심때문이였구나. 노랭이에게는 그에 맞는 대접을 해야지.)

이렇게 다짐한 김삿갓은 붓을 들었다.

《저, 당호를 귀할 귀자, 편안할 나자로 하여 <귀나당>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김삿갓의 얼굴에는 장난기어린 웃음이 얹게 비끼었다.

허나 북청노랭이 정풍헌은 눈치를 못채고 《귀하고 편안한 집이라, 그거 참 좋군.》 하며 무척 좋아하였다.

김삿갓은 활달하면서도 씨원씨원한 필체로 멋있게 다듬은 현판에 《귀나당》이라고 버젓이 써넣었다. 정풍헌은 쓸줄은 모르나 볼줄은 아는지라 이내 삿갓의 글씨가 박초시의 글씨에 비할바가 아님을 알고 싱글싱글 웃으며 《어 이거, 젊은 랑반 명필이로군그래. 허 너무 푸대접해서 안됐군. 어쨌든 고맙소.》 하며 무던히도 기뻐하였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고 김삿갓이 정풍헌의 집을 떠난 뒤 얼마 지나 건너마을 박초시가 한잔 얻어먹을 겸 글 써주러 찾아왔다.

정풍헌은 밤낮 제 글씨가 제일인것처럼 으시대던 박초시의 코대를 꺾어놓을 심산으로 아주 거드름을 빼며 말하였다.

《아따 이 사람아, 그만두게. 자네 아니라도 되네. 아까 어떤 서울선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잘 써주고 갔네그러. 워낙 정성껏 손님대접을 했는지라 제가 영 그냥 떠날수 없다면서 이렇게 써준

거라네. 어쩐가, 글씨가 살았지?》

정풍헌의 자랑에 박초시는 아니꼬운 눈길로 현판을 바라보았지만 역시 자기의 글씨보다는 월등한지라 흠잡을곳이 없었다. 그래도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무슨 흠잡을곳이 없을가 이리저리 살펴보던 박초시는 그 음을 몇번 바로도 읽어보고 반대로도 읽어보더니 큰소리를 치는것이였다.

《허허 여보게, 저 현판 당장 떼게. 어서 떼라니까.》

영문을 모르는 정풍헌이 《아따, 이 사람아. 남의 글씨라도 잘 쓴거야 알아줘야지.》 하며 못마땅해하였다.

《아니, 여보게, 자네 저 현판뜻이나 알고 볼었나?》

《아니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귀하고 편안한 짐이라는 뜻도 모를상싶은가?》

《아따, 그럼 자네 저 글자를 꺼꾸로 한번 읽어보게나.》

《뭘, 꺼꾸로? <당, 나, 귀.> (하늘소) 아니 이런 덜데먹은놈 봤나, 원...》

제김에 푸르락거리는 정풍헌을 보고 박초시가 한마디 더했다.

《자네 필시 손님대접을 잘하기는커녕 반찬도 변변치 못하게 해준게로군. 그러기에 일자천금이랴 글 한자의 가치가 천금값이 된다지 않는가. 술 한잔 안내려고 과객에게 소홀히 말졌으니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겠나.》

박초시가 짐짓 주인의 실수를 나무라며 점잖게 말하자 정풍헌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현판만 멍하니 바라보고 서있었다.

《이제라도 떼게나. 내 좋은 뜻으로 잘 써주지. 그러니 걱정말고 술이나 한상 차리게.》

박초시가 제가 제일인척 나서자 역시 노랭이인 정풍헌의 대답 또한 걸작이다.

《아니네. 귀하고 편안하다는 글뜻이 어째서. 글씨도 명필이니 그대로 두겠네. 그러니 걱정말고 자네 가보게나.》

이처럼 김삿갓은 방랑의 길에서 고루한 량반선비들과 린색한 부자들을 보지만 하면 꼭꼭 골탕을 먹이곤하였던것이다.

병사에게는 짐이 있다

김충기

걸음걸음
분노의 용암을 안고
신천을 떠나는 병사
그 가슴속엔 무거운 짐이 있다

박물관 진렬대에 없힌
주인 잃은 낫가락
타다남은 고무신
피물은 그 머리채...

오래도록 눈길 못베던
그 하나하나의 유물이
50년대가 남긴 피의 유산이어서
반백년 다되도록 조국이 안고있는 그 짐을
병사는 자기 집으로 안고가나니

덜지 않으리
그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목에서 겨불내나는 강행군길에서도
병사는 마음속의 그 집을 덜지 않으리

놓지 않으리
그 짐이 아무리 괴로운것이래도
승리의 그날 장구류 벗을 그날까지
병사는 마음속에 그 집을 안고있으리

오, 누가 풀어드리랴
우리 장군님 심중에 무겁게 없힌
조국의 아픔, 민족의 고통을
병사가 아니라면 그 누가 풀어드리랴

원썩이 있는곳이라면
지구의 한끝까지 달려갈 병사
신천을 안고가는 그 가슴엔
미제에게 불벼락으로 쏘을
산악같은 복수의 짐이 있다

잠들지 마시라 외 1편

림성희

놓아야 할 꽃묶음도 아니든채
부어야 할 한잔 술도 아니든채
나는 지금 봉분앞에 서있다
발밑의 흙조차 봉분일지 모를
여기 신천의 묘앞에

탓하지 마시라 고인들이여
연약한 너인이 눈물도 없이
주먹만 으스러진채 서있음을

머리숙여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이 서있는
내 심장의 목소리 탓하지 마시라
나는 그대들에게 빌고있노라
잠들지 말라고...

이 땅에 무수한 렬사들의 묘앞에서
고이 잠들라고
꽃송이도 정히 놓으며 추모하던 내 숨결이
왜서 여기 신천에선
잠들지 말라고
웨치며 웨치며 뿔뿔이 찢어지나

너무도 순박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묻혀있다
너무도 소박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묻혀있다
조국해방을 맞아 소원을 다 풀었던 이 사람들
죄없는게 죄였던가
아 통분타!

살아있다면... 아들손자 다 거느리고
참으로 사람답게 살았던
해방연의 그날을 추억해줄 사람들이
죄도 없이 묶이여 형을 받았다
죄도 없이 땅밑에 생매장을 당하였다

증오와 절규가 한으로 엮어진 땅아!
복수와 규탄이 서리발로 일어서는 땅아!
많고도많은 봉분아래 유해들을
잠재우지 말지어다
미제와 똑똑한 계산을 치르기전에는!

연약한 너인이 눈물도 없이
주먹만 으스러진채 삼가 드리는 말
아, 신천의 유해들이여 탓하지 마시라
그리고 부디 잠들지 마시라

다시는 그날이 오지 않도록

갑사댕기 빨간댕기는 다 어딜 가고
한에 뜰기고 피에 엉켜 태만 남았느냐
한웅큼 한웅큼 머리태들아
검은채 그대로 남은 머리태들아

수정천 맑은 물에 정히 씻어서
함초롬히 내려빚던 그 쌍태는 어딜 가고
몽그러 몽그러져 남은것이나
그 고운 가리마는 왜 잃고서
형클어 형클어져 남은것이나

검은머리 파뿌리되도록 오래오래 살자고
혼약의 그날에 정든님 꽃아주었을
너 은비녀야
떨어져선 못사는 헤어져선 못사는
가득가득 님의 정은 어디다 두고
주인마져 잃은채 녹만을 엮었느냐

몸은 죽어 흙이 되고

한은 맺혀 혼이 되여
신천의 이 땅을 봉분으로 덮어도
검은채 강요당한 그 죽음이 통분해
훨수도 썩을수도 없었던 검은 머리카락이여!

그날의 살인잔당
그 악귀의 후예들이
아직도 아직도 남아있거니

한오리 한오리 너의 머리카락이
천만개 억만개의 올라미가 되여
승냥이미제의 명줄을 매여달라
마지막 한놈까지 깨끗이 목을 달라

오 다시는 이 땅에
50년대의 신천이 오지 않도록
다시는 이 박물관에
우리 녀인들의 머리카락이 없이지 않도록

토마스 모어의 지조

런던의 램즈강변에 가면 지금도 중세기의 모습 그대로 서있는 성벽이 있다. 런던의 상징이라고 하는 유명한 런던탑, 면적이 4만 8천평방미터나 되는 성벽에는 12개의 탑이 있다.

강기슭에 위치한 성 토마스탑아래에는 《반역자의 문》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다. 정치범들이 배에 실려 들어와서는 죽어나간다는 문, 그 죽음의 문안에서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참혹하게 처형당하였던가.

1535년 7월 7일 무시무시한 형구가 갖추어진 사형장에 한명의 중죄인이 나타났다.

언제 면도질했는가싶게 덩수룩이 자란 구레나룻, 폭 꺼져들어간 눈썹, 그러나 정기를 잃지 않고 빛나는 두눈, 비웃는듯 조롱하는듯 입가에 늘 실거리는 미소... 죄인은 혼연히 걸음을 옮겼다. 절그럭절그럭 무겁게 끌리는 쇠고랑소리, 죽음을 맞받아 뿔뿔하러는 대장부다운 호용한 기백과 랭소를 머금은 그 호방한 기상앞에 형리들마저도 머리를 숙이였다.

그가 바로 근대 려명기의 걸작 《유토피어》로서 인류문학사의 한갈피를 이채롭게 장식한 첫 공상소설가 토마스 모어(1478-1535)였다.

어찌하여 그가 대역죄를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는가. 아마도 그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의 강직한 성품때문이라.

1509년에 왕관을 뒤집어쓰고 왕좌에 올라앉은 헨리8세는 잔인하고 음탕한자였다. 헨리7세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국왕인 애비의 등뒤에서 온갖 잔악무도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꺼리낌없이 일삼던 그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 잔악성과 파렴치성은 극치를 이루는것이였다.

제 형수인 캐서린한테 눈독을 들어오던 국왕은 형이 죽자 그 녀자를 왕비로 삼았다. 그랬다가 그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구실을 붙여 리혼하고 9년간이나 음욕을 품어오던 그 녀자의 시녀 앤 불린을 왕비로 맞아들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리혼과 결혼의 합법적인 구실을 만들려면 로마법왕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국왕은 한때 외교사절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외교수완가로서 명성을 떨친적이 있는 토마스 모어를 리용하려고 했다.

그때는 모어가 갓 대법관(영국 귀족원 의장)이 된 때였다. 정의감이 강한 그에게 왕의 추악한 행위가 마음에 들리 만무했다. 그러지 않아도 통치배들의 추악한 내막을 들여다보며 궁정생활의 허위성에 환멸을 느끼고있던 그였다.

모어가 단호히 반대해나섰으나 헨리8세는 이를 일축해버리고 로마법왕청에 알리였다. 법왕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캐서린이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칼5세의 숙모였으므로 칼5세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자 헨리8세는 자기의 심복을 캔터베리대주교로 앉혀 왕비와의 리혼과 앤 불린과의 결혼을 선언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파문당하게 되자 국왕의 독단과 전횡은 극도에 달하였다.

1534년 대법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권으로 의회를 추동하여 영국교회를 로마법왕의 지배밑에서 독립시키고 자신을 영국교회의 최고우두머리로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왕권만이 아니라 신권까지도 독차지하는 전례없는 사건을 조작해냈다.

그렇게 얻은 권력으로 앤 불린을 새 왕비로 맞아들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곧 그 녀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구실을 붙여 또 내쫓고말았다. 후날 앤과 그의 오빠는 유명한 런던탑에서 처형당하였으며 뒤이어 캐서린도 단두대에서 목을 잘리웠다. 이렇게 국왕은 여섯차례나 왕비를 교체하는 추태를 부렸다.

일신의 안일과 향락, 사치만을 추구하는 전제 폭군의 처사는 많은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대법관이여서라기보다도 젊었을 때부터 결백함과 옳은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려는 고결한 희생정신으로 사람들을 경탄시키던 모어였으니 불의가 판을 치는 현실을 두고 어찌 개탄하지 않으랴. 나라야 어찌되든 제 한몸의 부귀와 영달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왕의 후안무치한 비행을 도저히 묵인할수가 없었다. 모어는 헨리8세를 국왕으로서뿐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용납할수가 없었다. 정의를 위해 그 어떤 주저도 없이 폭군을 규탄해나섰다. 하루아침에 모어는 대법관의 자리에서 파면당하였고 날조된 죄명을 들쭉내 《반역자의 문》으로 끌려들어갔다.

그가 갇힌지도 어느덧 15개월, 잔인하고 포악무도한 왕이였지만 토마스 모어를 처리하는데서는 주저하지않을수 없었다. 그의 재능을 아끼고 싶었고 예전처럼 계속 리용하고싶었던것이다.

1509년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헨리8세가 그무렵 은둔생활을 하던 모어부터 찾은것은 그를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헨리7세가 자기 딸의 결혼식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정부예산에 포함시킬것을 국회에 요구했을 때 비법적이며 도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정면에서 반대해나선것이 다름아닌 모어였었다. 그때문에 정부의 박해를 받아 정치무대에서 실각당하였고 한동안 피해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헨리8세는 재능있는 그를 자기의 측근자로 리용할 생각이였다. 토마

스 모어는 어려서부터 이름을 날린 뛰어난 수재였다. 14살때 옥스포드대학에 입학하여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정통하고 철학, 문학, 법학, 음악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재사였다. 21살때 변호사로, 25살때에는 의회의원으로까지 선출되어 활약한 정치가였다. 그리하여 새 왕은 런던시 부시장, 왕실변호사의 높은 관직을 주어 모어를 정치무대에 다시 인입하였고 후에는 재정대신, 하원의원을 거쳐 1519년에는 국왕 다음가는 요직인 대법관으로까지 등용시키었던 것이다. 국왕은 모어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별의별짓을 다하였다. 회유하기도 하고 형틀에 끔뎌 묶어 갖은 악형을 다 들이대기도 했다. 살이 터지고 뼈가 부서졌어도 모어는 끝끝내 숙어들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그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분노가 너무도 컸으며 부귀나 직위보다도 양심을 귀중히 여기는 결곡한 마음과 굳은 절개가 더 소중하였다. 어떤 권력앞에서도 굽혀들지 않는, 죽어서도 굽히지 않으려는 그 굳센 지조앞에서 헨리 8세는 전율하였다. 죽이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존재였다. 그렇다고 살려두기에는 또 너무도 위험한 존재였다. 왕은 《국가반역죄》라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여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토마스 모어는 사형장에 나섰다. 정치가로서의 파란많은 한생을 돌이켜보는가, 아니면 압제와 예속이 없는 인류의 리상향, 《유토피어》를 다시금 그려보는 것인가.

삶과 죽음의 계선에 선 이 시각, 토마스 모어의 얼굴에는 조소와 야유의 웃음이 여유작작히 흐르고있었다.

《왕이 영국국교의 우두머리로 된것은 당치 않은 일이요.》

당당히 그리고 준절하게 웨쳤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통분해하는 딸에게 당부했다

《너도 비굴하게 살지 말고 정의를 위해 싸우거라.》

기발은 올랐다. 단두대에 올라서면서 모어는 결에 서있는 형리에게 말했다.

《여보게, 미안하지만 내 여기에 올라서게 좀 도와주게나. 내려올 때는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내려올테니.》

리상주의자인 토마스 모어다운 구슬픈 유모어라고 해야 할가.

한류덕

새벽에

김순학

식구들의 단잠을 깨울세라
칼도마소리도 저어하는 이 새벽
푸름푸름 어둠이 가셔지는 창너머로
대기를 흔드는 힘찬 노래소리
지축을 울리는 발구름소리...

아, 들려오누나
밤새 험한령 넘고넘어
얼마나 먼 혼련길을 걸어왔는가
철갑모엔 이슬이 흐르고
담찬 어깨엔 더운김 오르는데

처음 보는 대렬 아니건만
내 아들과 다름없는 모습들
이 가슴에 그리움이 가득차올라
애절한 저 병사들 모두 이끌어
아침상에 앉히고싶은 마음이어

대오는 저 멀리 사라져도
눈앞에 환히 어려와라
조국의 안녕을 지켜
내 집의 아늑한 요람을 지켜

간밤도 지새우며 행군길 다그친
더없이 귀중한 병사들의 그 모습

불타는 노을안고
휘날리는 최고사령관기 높이
무적의 기상 번뜩이는 저 대오로 하여
해빛 눈부신 이 아침이 밝아
풍요한 들이 설레이고
자동화의 동음은 더욱 높이 울리거니

용기백배 활력이 넘치는 대렬은
언덕넘어 멀리 사라져가도
병사들의 위용찬 저 노래소리
준마타고 구보로 내달리라고
내 심장의 박동을 더해주는가

군인정신으로 돌격 앞으로!
출근길에 나를 불러세우는
류창한 구령소리
가슴속에 뜨겁게 남아있어라
충효의 마음 불타게 하는 끝없는 메아리로

거지가 베푼 은혜 (걸인시혜)

김재국 작(19세기)

리원희 윤 색

옛적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께지게 가난하기로 항상 빌어먹다나니 그 얼굴이 사람들이 보기에 도 좋지 아니하여 어찌다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빌어먹는 사람의 모양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이르기를 《저 사람은 평생 빌어먹을 사람의 모양이니 한때라도 잘살수가 없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선비는 근본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여 남의 물건은 티끌만한것이라도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남의 곤궁함을 보면 제가 당한 일과 같이 근심하며 제힘이 부족한것으로 도와주지 못함을 몹시 한탄하였었다.

하루는 그 어디에 갔다가 밥도 못얻어먹고 또 잠잘곳도 없어서 이 집, 저 집 다니며 처마밑에 서라도 자고가기를 청하나 집주인들이 허락치 아니하는지라 할수 없이 산속에 있는 빈 절간에 찾아갔었다.

중들이 떠나버린지 오래된 절은 퇴락할대로 퇴락하여 바람과 비를 전혀 피할수 없고 그저 기둥만 남아있어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니 어찌하랴.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 날도 어둑어둑해지니 이제 어디 다른데를 향하여 갈수도 없는것이다.

허기진 배속에서 나는 괴이한 소리를 귀동무하며 잔뜩 두어깨를 움츠리고 이리저리 움직이던 선비는 발에 무엇이 걸체이자 흠칫하고 약간 놀라는듯하더니 이어 그것을 집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보니 무엇인지는 알수 없으나 매우 정히 봉한 비단주머니인지라 그것을 풀어서 보니 황금으로 꾸민 띠가 나오는것이였다.

황금띠라는것이 여느 랑반이 띠는것이라면 모르거니와 그보다도 위세가 더 당당한 일품재상이 지니는것이라는것을 잘 아는 선비는 그를 도로 비단주머니안에 넣어 봉하여 한곳에 놓아두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떤 사람이 저토록 좋은 띠를 잃어버리고 갔을가. 그 띠를 보니 적어도 2~3천냥은 될터인데 혹 어떤 사람이 남의것을 전하려 하다가 잃은게 아닐가. 그러면 그 주인에게서 도적이라는 말을 들을것은 물론이고 그 값어치를 물어줘야겠으니 어떡하든지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줘야 좋겠으니 누구인지 알수 없으니 안타깝도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만 할뿐 털끝만한 욕심도

내지 않고있는데 조금 있다가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흐느낌소리에 내다보니 어떤 열에닐 굶살쪼 되여보이는 아씨가 울면서 무엇을 찾는 모양이 보이였다.

텅 빈 절간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면 무서워할가보아 약간한 기척을 낸후 선비가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어떤 아씨온대 웬 연고로 울며 무엇을 찾느냐?》

선비의 물음에 잠시동안 놀라서 말이 없던 아씨는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여적 흐느끼며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저는 본래 일품재상의 딸이옵더니 집안에 괴이한 병이 돌아 2~3년사이에 모친과 동생이 다 죽고 다만 부친과 저만이 있었습시다. 그런데 부친이 또 며칠전에 돌아가셨습시다. 그러는세에 가세가 평락되어 부친님 장사를 치를수가 없사와서 5대째 전해오는 황금띠를 팔면 장사를 치를터이옵기에 그것을 가지고 여기를 지나다가 잃어버렸사옵습시다. 그래서 혹시 여기 어데 있을가 하여 다시 와서 찾아보나 형체도 보지 못하겠사와 마음이 안타까와 견딜수가 없습시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마음에 더욱 불쌍히 여기어 그 얻은 띠를 내어주며 《바빠 가서 이것을 팔아 부친님 장사를 잘 치르라.》 하였다.

황금띠를 받아안은 그 아씨가 선비에게 백배 사례하였음은 더 말할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후에는 이 선비의 일이 무엇이든 마음에 원하는대로 다 잘되어 나라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였다 하니 사람이 착한 일을 한후에야 바라는 것이 있고 악한후에는 바랄것이 없는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세상에 혹 부귀한자들이 부귀할수록 욕심이 더욱 불어나 남의것을 불의로 은근히 빼앗으려 하는것이 있으니 혹 이 선비와 같은 사람을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무릇 이우에서 나온 빌어먹던 선비가 2~3천냥이나 되는 보배를 보고 그 임자를 찾아주며 또 깊은 산속 빈 절간에서 그것도 밤중 고요한 가운데서 꽃다운 아씨를 대하여서 털끝만치도 더러운 행실을 하지 아니한것이 지금 세속의 경박한자들이 들으면 오히려 그 선비를 치준(어리석은 사람)이라 할것이나 되려 그 선비를 비방하는자들을 치준이라 하는것이 옳을것이다.

군사분계선표말뚝과 하고싶은 말 외 1편

홍철진

내 어린 시절
그림 공부시간에
크레용으로만 그려본
군사분계선표말뚝아

너를 그리자고
까만 크레용이 필요한줄 알았던
어린 마음이 자라
오늘은 이렇게
총잡은 병사되어
네앞에 서있다

나는 기어이
너와 말을 나누고싶은 세대
모르지 않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
너와 부딪쳐
울분의 메아리로
되돌아섰는지

너와 말을 나누자고
백두에서 판문점까지
부르기조차 뜨거운
피같은 언어들이
얼마나 굵이쳐흘러왔는가

목이 쉬도록

웨쳐도 보았고
민요풍의 노래로
찾아도 보았건만
진정 너와 나눌 말
우리 말 사전에는
더는 없었구나

말,
태고적부터
입으로만 해오던 말
그러나 너와는
입으로는 나눌수 없게 된 말
이 세상 모든 말을
다 삼켜버렸으니
내 어찌 가슴에서
말마디를 고르랴

그래도 나는 기어이
너와 말을 나누어야 할 세대
똑똑히 보라
군사분계선표말뚝아
분렬을 끝장낼
멸적의 총구가
지금 네앞에 있다
이 총대의 메아리만이 너와 나눌
병사 나의 말이다

새벽닭이 운다

꼬끼요-
새벽별을 붙들고
우는 수탉아
너 그만 목청을 낮추려무나
그 누굴 깨우려고
새벽안개 밀어내며 법석이느냐

그래 넌 여기가
청년분조숙소란걸
잇은건 아니냐
너 혹시 취사원 이 처녀가
못미더워 목청을
돌군건 아닐테지

새날이 뭐
네가 불러 오는줄 아니

이봐라, 취사장의 불빛아래
우리의 새날은
벌써 일어나앉아있단다
아마 널 보며 키득키득
웃을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은 우리 동무들
내가 먼저 불러오던 그 새날을
어느새 포전으로 물고갔단다
아이참, 속상해 나도 도르게

아마 지금쯤
논 한배미 넘기고
쉴런지도 몰라
취사장의 가마에선
식은 국이 몇번이나

끓는지도 모르고

래일을 앞당기는
청년분조기발
그 빗갈에 물들어
밝아오는 새날을
수답아, 넌들 어찌 알겠니
우리의 젊음이
일으키는 새 아침을

그럴바엔 차라리
목청 아꼈다
로적가리우에 올라
길게 뿔으렴
풍년가을 노래되어
꼬끼요, 꼬끼요-
그날만은 우리도
네가 온 다음에야 일어날게

어린이의 썸세기를 들으며

리광근

삐스안에서 한 어린이가
어머니앞에서
또랑또랑 썸세기를 한다
하나, 둘, 셋...

하다가도 머뭇거리며
열... 열셋 하고 뛰어넘을 땐
엄격하게 타이르곤하는 어머니앞에
그애는 하나부터 다시 올려센다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 옳다고 칭찬하는 어머니

웁아요 열다음엔
열하나, 열둘 그렇지요 네?!

그렇게 그 몇번이라 엄한 요구앞에
썸세기를 바로하는 아이
그렇더라 저 어린이는 한생
그렇게 생활의 걸음걸음이 바로잡히리니

내 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당의 아들로 살리라
어머니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는
저 순진한 어린이처럼!